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방안

조원빈 · 김경하 · 김은경 · 박현석 · 서상현 · 박홍은 · 최이슬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방안

조원빈 · 김경하 · 김은경 · 박현석 · 서상현 · 박홍은 · 최이슬

세계지역전략연구 21-0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방안

인 쇄 2021년 12월 24일
발 행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044-863-6566)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9033-1 94320
978-89-322-9000-3(세트)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산업 및 통상환경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추구의 노력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더불어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이들 네 가지 경제공동체 모두 역내 회원국 간 생산구조와 수출구조의 동질성 수준이 전 세계 교역 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화의 진척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과 지역 간 소득불균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중력모형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의 대아프리카 교역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먼저 가능한 한 아프리카 대륙 내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교역규모와 확산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

다. 둘째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와 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력 모형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무역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 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비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마주해야 하는 국제무역의 장벽이 더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비록 경제규모가 크지 않지만, 수자원, 삼림자원,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내부의 선도무역 파트너국을 육성하여 역내무역을 강화하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역내 인프라 확충, 내륙국가로의 운송체계 현대화,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 경제교류 활성화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용하여, 한국의 대아프리카 진출 전략 및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4개의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로 주요 협력 국가 2개국을 선정하고, 선정된 총 8개국의 최근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 구조를 분석한 후,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했다.

COMESA의 경우, 회원국 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각각 주요 협력국가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AC의 경우, 회원국 중 케냐를 주요 협력국가로, 탄자니아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ECOWAS의 경우,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를 주요 협력국가로, 가나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마지

막으로 SADC의 경우는 남아공을 주요 협력국가로, 앙골라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통합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하여, 대륙 내 국가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의 증대가 예상된다. 이에 한국 역시 신흥시장인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AfCFTA 공식 개시와 함께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 효과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 목적 · 필요성	14
2. 연구방법론	24
가. 문헌분석	24
나. 전문가 자문	24
다. 통계분석	25
3. 연구내용	26
제2장 주요 RECs 개발전략 및 전망	31
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	32
가. COMESA	32
나. EAC	36
다. ECOWAS	39
라. SADC	44
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	48
가. COMESA	52
나. EAC	56
다. ECOWAS	60
라. SADC	64
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	67
가. 주요 RECs의 통합 진행 현황	67
나. 주요 RECs의 통합 진행 및 영향력 평가	77

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	82
가. 협약·의정서의 국내 법제화·이행에 소요되는 과제와 시책의 예	85
나. 비관세장벽과 시책 예	88
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과제와 시책 예	90
라. 치안 상황	92
마. 기타 과제와 시책 예	93
제3장 주요 RECs의 산업협력 및 구조분석	99
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	100
가. 중력모형	100
나. 자료	101
다. 분석	103
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	110
가. 생산구조 분산	111
나. 교역구조 분산	112
다. 자료	113
라. 분석	114
제4장 한국의 RECs 활용방안: RECs별 주요 협력국가 선정	123
1. COMESA	126
가. 이집트	128
나. 에티오피아	132
2. EAC	137

가. 케냐	139
나. 탄자니아	143
3. ECOWAS	147
가. 나이지리아	149
나. 가나	153
4. SADC	157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159
나. 앙골라	163
제5장 결론 및 함의	167
참고문헌	174
부록	185
Executive Summary	192



표 차례

표 1-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무역 비중(2019년)	17
표 1-2. RECs별 접촉기관목록	25
표 2-1. 아프리카 개별 REC의 역내 및 역외무역 비중(2016~18년 평균) ...	49
표 2-2. COMESA 수출 상위 5대 품목(2016~18년 평균)	50
표 2-3. EAC 수출 상위 5대 품목(2016~18년 평균)	50
표 2-4. ECOWAS 수출 상위 5대 품목(2016~18년 평균)	51
표 2-5. SADC 수출 상위 5대 품목(2016~18년 평균)	51
표 2-6. COMESA 주요 회원국의 수출입 관세	53
표 2-7. COMESA의 세계 무역	53
표 2-8. 분야별 총수출	54
표 2-9. 분야별 총수입	54
표 2-10. 주요 수출입 시장	55
표 2-11. EAC 수출 추이	58
표 2-12. EAC 수입 추이	58
표 2-13. 주요 EAC 역내 수입 국가	59
표 2-14. 주요 EAC 역내 수출 국가	59
표 2-15. ECOWAS 역내무역 변화 추이	61
표 2-16. ECOWAS 역외무역 변화 추이	61
표 2-17. SADC 주요 무역통계	66
표 2-18. 역내무역 주요 수출국	66
표 2-19. 역내무역 주요 수입국	67
표 2-20. 역내무역 주요 수입국의 무역수지	67
표 2-21. 주요 RECs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69
표 2-22. COMESA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71

표 2-23. EAC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73
표 2-24. ECOWAS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76
표 2-25. SADC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77
표 2-26. 주요 RECs의 단계별 통합 진행 및 영향력 평가 요약	80
표 2-27. 아부자 조약의 아프리카 대륙 통합 프로세스	83
표 2-28. RECs가 안고 있는 과제	84
표 2-29. 협약·의정서의 국내 법제화 및 이행에 소요되는 과제와 시책 예 ...	87
표 2-30. 사무국 운영에 관한 과제와 시책 예	92
표 2-31. 기타 과제 관련 시책 예	94
표 2-32. AfCFTA하 관세철폐계획	96
표 3-1.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103
표 3-2. 중력모형 분석결과	108
표 4-1.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2015~19년)	128
표 4-2. 한국의 대이집트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130
표 4-3.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135
표 4-4. 케냐와 탄자니아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2015~19년)	138
표 4-5. 한국의 대케냐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141
표 4-6. 한국의 대탄자니아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145
표 4-7. 나이지리아와 가나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2015~19년)	148
표 4-8. 한국의 대나이지리아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152
표 4-9. 한국의 대가나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19년)	155
표 4-10. 남아공과 앙골라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2015~19년)	158
표 4-11. 한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162
표 4-12. 한국의 대앙골라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15년)	165



그림 차례

그림 1-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가입국 현황	15
그림 2-1. RECs의 역내무역 비중(2016년)	49
그림 2-2. ECOWAS 회원국의 경상수지	62
그림 3-1. 지역경제공동체별 생산구조 분산(v.모든 수출파트너)	115
그림 3-2. 지역경제공동체별 생산구조 분산(v.역외 아프리카)	116
그림 3-3. 지역경제공동체별 수출구조 분산(v.모든 수출파트너)	117
그림 3-4. 지역경제공동체별 수입구조 분산(v.모든 수입파트너)	118
그림 3-5. 지역경제공동체별 수출구조 분산(v.역외 아프리카)	119
그림 3-6. 지역경제공동체별 수입구조 분산(v.역외 아프리카)	120



부록 표 차례

부록 표 1.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국가별 투자 현황	186
부록 표 2.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국가별 교역 현황	188
부록 표 3. 아프리카 역내 주요 수입국 현황	190
부록 표 4. 아프리카 역내 주요 수출국 현황	191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목적 · 필요성
2. 연구방법론
3. 연구내용



1. 연구의 배경 · 목적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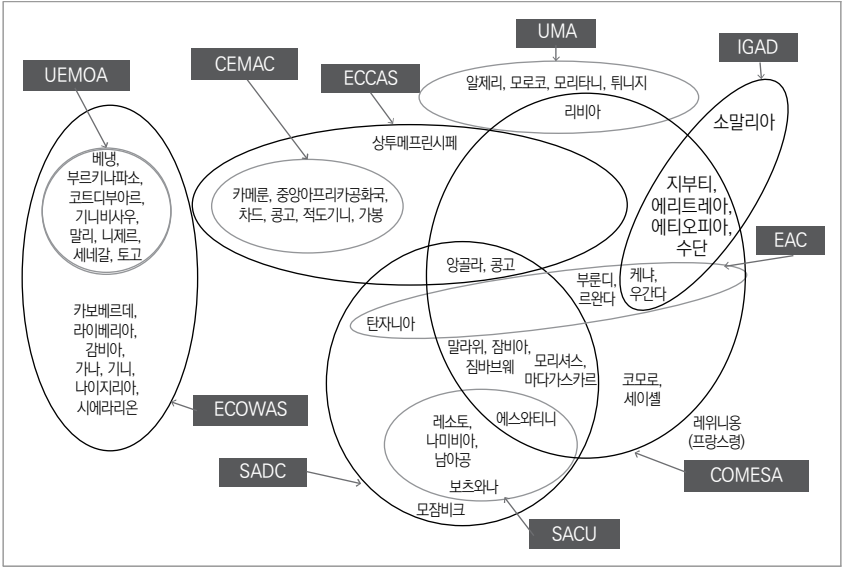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들이 서구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면서, 이 지역 정치 엘리트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프리카 내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해왔다.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범아프리카주의는 아프리카 공동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단합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3년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를 결성했으며, 2002년에는 아프리카 리더십 통합을 추구하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을 설립했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아우르는 정치적 기구 설립과 더불어 이 지역 정치 엘리트들은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와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는 개념도 도입했다. 아프리카의 통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 경제공동체(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라는 기구를 아프리카 하부 단위 지역에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 단위 경제공동체는 장기적으로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African Economic Community)를 결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실행방안은 1991년 OAU의 ‘아프리카경제공동체 설립에 대한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African Economic Community)’인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에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통합을 궁극적 목표로 아프리카 각 지역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하부 단위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1967년, 최초의 아프리카 지역 경제공동체인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곧이어 1975년에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가 설립되는 등 1960~70년대 이후 아프리카 지역경제통합의 노력이 활발해졌다. [그림 1-1]이 보여주듯이, 아프리카에는 다수의 지역경제공동체가 존재하며, 그 규모도 다양하고 설립목적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 경제공동체 등으로 다양하다. 지역, 정치, 경제, 역사 등 다방면에서 서로 얽혀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 국가가 여러 지역경제공동체의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 예로, 케냐와 우간다는 COMESA, EAC, IGAD 등 3개 지역경제공동체의 회원국이다. DR콩고 역시 COMESA와 ECCAS, SADC 등 3개 지역경제공동체에 가입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총 9개국(이)이 동시에 3개 이상의 지역경제공동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2개 이상의 지역경제공동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가도 31개국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내 정책의 일관성과 일치성 추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림 1-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가입국 현황



자료: 배성일 외(2011), p. 31.

이 중 아프리카연합(AU)이 인정하는 8개의 지역경제공동체가 활발하게 작동 중이다. 이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중 15개 회원국을 포함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는 이미 FTA를 조성해 공동체 내 활발한 무역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AC와 15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ECOWAS는 관세동맹을 맺고 상품과 인력 이동이 원활하도록 지역 내 공동여권제도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이 자신의 상법을 수정하여 공동체 내 상업과 투자를 촉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의 무역규모는 최근 10년간 급속히 성장했다. 1990~2018년 동안 이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은 전체 GDP의 약 55%를 차지했다. 더욱이 2011년 이후 천연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그 규모는 67%까지 증가했다.¹⁾ 이러한 무역규모의 성장은 무역량의 증가와 더불어 저렴한 가격의 중국 상품 수입이 기여한 결과이기도 하다. 2017년 아프리카 상품 무역 주요 수출입 파트너 중 중국은 단일 국가로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였다. 아프리카의 수출 중 대중국 수출규모는 약 14%였으며, 아프리카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규모는 전체의 약 19%에 해당했다.²⁾ 2010년 이후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역규모는 미국의 그것을 추월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해왔다. 아프리카의 서비스 부문 무역규모도 같은 기간 눈에 띄게 성장했다. 총서비스 수입과 수출의 경우 1990년 수입은 약 270억 달러, 수출은 약 20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각각 900억 달러와 890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³⁾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 역내무역 비율도 확연히 증가했다.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아프리카 역내무역 비중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수출과 수입의 전반적인 증가와 함께 지역 내 무역규모도 점차 증가했다. 아프리카 총수입에서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약 5%에

1) IMF(2019), p. 41.

2) Eurostat(2018),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21. 4. 28).

3) IMF(2019), p. 41.

서 2000년 9%, 2018년 16%까지 증가했다.⁴⁾ 아프리카의 총수출에서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9%에서 2019년 15%로 약 1.5배 증가했다. 물론 이러한 통계수치는 실제 역내무역 비중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비공식 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⁵⁾ 이러한 역내무역 규모의 증가는 아프리카의 상품 수출 증가와 좋아진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지역경제공동체 설립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⁶⁾

[표 1-1]이 보여주듯이, 2019년 아프리카 대륙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2.3%)보다 높은 4.1%였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3%이다. 2019년 아프리카 대륙 전체 무역 중 역내무역 비중은 14.7%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역내무역 비중을 아프리카 대륙 내 하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 규모도 다양하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아프리카 남부 지역 역내무역 규모가 14%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물론 이것은 아프리카를 벗어난 전 세계 지역의 역내무역 규모에 비해 소규모이다. 남부아프리카 지역 다음으로 역내무역 규모가 큰 지역은 동부아프리카 지역이며, 그다음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이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역내무역 비중은 1.6%로 매우 소규모이다.

표 1-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무역 비중(2019년)							
	GDP (백만 달러)	성장률 (%)	총 무역량 (백만 달러)	역내무역 (백만 달러)	역외무역 (백만 달러)	역내무역 비중(%)	역외무역 비중(%)
세계	87,734,574.39	2.3	38,084,927	38,084,927	-	100	-
아프리카	2,544,516.54	4.1	1,045,614	154,573	891,041	14.7	85.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900,614.64	2.3	729,511	118,601	610,910	16.2	83.8
남부 아프리카	575,125.53	1.6	209,130	29,411	179,719	14	86

4) *Ibid.*, p. 41.
 5) *Ibid.*, p. 41.
 6) Arizala *et al.*(2017), p. 5.

표 1-1. 계속

	GDP (백만 달러)	성장률 (%)	총 무역량 (백만 달러)	역내무역 (백만 달러)	역외무역 (백만 달러)	역내무역 비중(%)	역외무역 비중(%)
서부 아프리카	682,734.57	3.6	235,058	17,564	217,494	7.4	92.6
동부 아프리카	517,168.96	6.2	137,668	12,355	125,313	8.9	91.1
북부 아프리카	648,106.05	4.6	356,103	16,840	339,263	4.7	95.3
중앙 아프리카	121,381.47	3.4	107,656	1,822	105,834	1.6	98.4
COMESA	958,063.61	5.38	324,493	24,215	300,278	7.4	92.6
EAC	203,178.88	6.46	55,165	6,189	48,976	11.2	88.8
ECOWAS	682,734.57	3.62	229,584	16,832	212,752	7.3	92.7
SADC	680,884.27	3.18	340,124	68,259	271,865	20	80

주: 총 무역량의 경우 Total Trade of Group(Export + Import)의 합산값.

자료: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https://dataportal.opendataforafrica.org/bbkawjf/afdb-socio-economic-database-1960-2019>(검색일: 2021. 5. 10); UNCTAD(2020),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검색일: 2021. 5. 1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네 개의 지역경제공동체의 2019년 역내무역 비중도 비교적 다양하다. 이 중 SADC의 역내무역 비중이 20%로 가장 크고 EAC의 역내무역 비중이 11.2%로 그다음으로 크다. 나머지 ECOWAS와 COMESA의 역내무역 비중은 각각 7.3%와 7.4%로 아프리카 대륙 역내무역 비중에 비해 매우 소규모이다. SADC와 EAC는 공동체 내 무역 비중이 각각 총 무역규모의 20%와 11.2%를 차지하면서 아프리카 역내무역 규모 증대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경제공동체 이슈를 분석하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특정 공동체에 집중한 연구이거나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 우선 Bara와 Roux의 연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융 부문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금융 발전에 미치는 스피

오버 효과를 베이지안 VA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⁷⁾ 그 결과 신용대출 시장(credit market)으로의 상당한 스피로버가 이루어지지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용 증가는 다른 SADC 국가에 두고 있는 신용기관 또는 기업체의 지점(branches)이나 자회사를 통해 SADC 국가로 침투한다. 그러므로 신용의 성장은 경제활동과 생산을 촉진할 수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어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다른 SADC 회원국의 저발전한 금융체계, 무역 불균형, 취약한 실물경제 생산성 등으로 인한 경제협력의 역류효과는 스피로버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Ezekwesili의 연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의 경제공동체—특히 통화동맹—가 무역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⁸⁾ 저자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회원국을 대상으로 무역역량(trade flows), 서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WAEMU) 회원국 여부, 인구수, 국가 간 거리 등의 변수를 고려한 중력모형분석을 통해 무역규모 결정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ECOWAS 내에서도 WAEMU 회원국 간 무역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경험적 결과를 발견하였다. 동시에 통화동맹 자체는 상호 간 무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통화가치의 변화, 개별 국가 경제기반의 취약성과 불안정성, 비공식적(unofficial)인 무역장벽 등은 경제공동체 효과를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Cassim의 연구는 SADC의 무역 행태를 중력모형으로 분석하여 역내국가 간 무역 성장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을 탐색한다.⁹⁾ 거래비용, 개별 국가의 발전 수준과 경제규모 등의 요인들이 국가 간 무역 잠재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한 결과, 개별 국가의 (무역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보다 지역 경제협력이 무역 성장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SADC 국가(무역

7) Bara and Le Roux(2017), pp. 8-10.

8) Ezekwesili(2011), pp. 6-9.

9) Cassim(2001), pp. 7-8.

당사국) 간 경제규모와 거리(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가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kochekanwa의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프리카 지역 내 지역경제공동체의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분석했다.¹⁰⁾ 구체적으로,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회원 여부가 옥수수, 쌀, 밀 등의 농산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력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 간 거리의 확대는 무역 거래의 감소와 연관이 되었지만, COMESA, EAC, SADC의 지역 경제공동체 더미 변수는 전반적으로 교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산업 및 통상환경 중심으로 분석하여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의 성장과 복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¹¹⁾ 또한 지역경제공동체는 구성원들 간 지역안보 및 정치적 조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비경제적 목적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¹²⁾ 아프리카에서 지역경제공동체는 이 지역 내 무역의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세계경제 체제로의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정책 입안자들과 학계에 의해 추진되어왔다. 그것은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규모의 경제, 경쟁력 향상, 보다 효율적인 자원 동원 그리고 지역적 가치사슬(value chain)의 향상을 통한 구조적 개혁 가속화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경제공동체 수립은 지식과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고 새로운 상품의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아프리카에서는 다양한 지역경제공동체가 아프리카 독립 이후로 설립되어왔다.

아프리카 역내무역의 특징은 역외수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술집약적

10) Makochekanwa(2012), pp. 4-6.

11) Peter-Berries(2010), p. 19.

12) Carbaugh(2011), p. 24.

이고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데 있다. 2000~17년 기간 역외수출의 경우 1차 상품이 전체 수출상품의 60%를 차지했으며, 특히 광물의 경우 동 기간 전체 수출의 약 75%를 차지했고, 이에 비해 제조상품은 1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수입에 있어서는 화학과 제조상품, 기계, 이동장비가 전체 수입의 약 70% 가까이 차지했다.¹³⁾ 이에 비해, 아프리카 역내무역의 경우 주요 품목은 제조업 상품과 식료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내수출의 경우 2000~17년 동안 부가가치 상품과 제조상품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광물은 44%, 농업 생산품은 16%를 차지했다.¹⁴⁾

아프리카 무역은 여전히 기술 수준이 낮은 ‘로 테크놀로지’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종 수출상품의 총 부가가치 구성에 대하여 선진국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평균 30% 이상이지만,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의 기여 비율은 평균 15%로 확연히 낮다. 더욱이 원자재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아프리카의 수출 구조는 아프리카의 무역량과 그 수익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아프리카 역내무역도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광물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제조상품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전히 미약한 지역적 가치사슬 협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¹⁵⁾

역내 무역 중심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고, 아프리카에는 국제적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국가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아프리카 전체 수입규모 중 아프리카 중 4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알제리, 이집트)이 약 4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해 수출 규모 측면에서도 이 지역 4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알제리, 모로코)이 약 47%를 차지했다. 더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 총수출입 규모의 약 20%를 점유했다. 또한 아프리카 부가가치의 약 70%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4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지역은 국

13) Abrego *et al.*(2019), p. 13.

14) IMF(2019), p. 42.

15) 이재훈 외(2019), p. 34.

가 간 산업발전 수준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 문제는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내에도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회원 간 경제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EAC가 동아프리카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프리카 지역 내 제조업 단지 조성 및 수출 증가에 따른 편익은 일부 해안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우간다와 부룬디, 르완다 같은 내륙국은 EAC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경제통합 시도가 별문제 없이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통합 시도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구조적으로 개별 회원국 및 공동체의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 취약한 거버넌스, 종족 갈등과 분쟁,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개별 회원국의 여러 지역경제공동체 동시가입 현상 또한 지역경제통합의 속도를 더디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 내 각국의 정치 엘리트와 국제사회는 지역경제통합을 이 지역 경제발전과 빈곤 극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지역경제통합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 간의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통합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여 대륙 내 무역 및 투자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AfCFTA는 인구 13억 명에 3조 4,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블록이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¹⁶⁾ 2019년 아프리카 역내교역은 대륙 전체 교역의 14.7%에 머물렀지만, 아프리카수출입은행은 AfCFTA 출범을 통해 향후 역내교역이 22%까지 확대될 것이라 예상했다.¹⁷⁾

16) World Bank(2020), p. 4.

이러한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경제통합 움직임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모색 및 진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아프리카성장 기회법(AGOA: African Growth Opportunity)」을 통한 미국-아프리카 무역 확대를 도모해왔다. 유럽연합(EU)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통한 경제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도 대아프리카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대형 인프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전략을 앞세워 자국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혜용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투자와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¹⁷⁾

이에, 한국의 대외교역 확대를 위한 싹시시장으로서 효과적인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새로운 통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내 AfCFTA 출범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특성 및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와의 통상 확대를 위해서는 대륙 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심층 연구 및 관련 자료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아프리카 대륙 내 주요 지역경제공동체의 산업 구조 및 통상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정부의 정책과 협력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17) *Ibid.*, p. 10.

18) KOTRA(2018), pp. 219~220.

2. 연구방법론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적 분석 등으로 나뉜다.

가. 문헌분석

이 연구는 기존 연구자료 및 정부·기업·국제기구보고서를 문헌분석하여 아프리카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협력현황, 협약체결 내용, 사업구조 등을 파악하려 한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코로나19 시대 통상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려 한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 및 경제공동체의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요국의 산업발전 방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계획을 분석한다. 대아프리카 통상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여 기존에 제시된 한국의 협력방안과 협력현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협력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나. 전문가 자문

이 연구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내용의 신뢰도와 제시된 정책의 현실적 타당성 및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국제통상 전문가, 아프리카 지역전문가, 정부, 기업,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아프리카 협력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아프리카 협력 유망 분야,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및 협력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한다. 현지 거주 전문가와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현지조사의 대안을 마련(주한 아프리카

대사관에 의뢰하여 현지 관계기관 담당자와 인터뷰 또는 서신을 통한 Q&A 등) 하고 있다. [표 1-2]는 지역경제공동체별 접촉기관목록이다.

표 1-2. RECs별 접촉기관목록	
RECs(국가)	접촉기관
SADC(남아공)	KOTRA 아프리카 지역 본부, 남아공 진출 한국기업
ECOWAS(가나)	가나 진출 한국기업
COMESA (이집트, 에티오피아)	KOTRA 카이로 무역관, 에티오피아 진출 한국기업
EAC(케냐, 탄자니아)	KOTRA 나이로비 지사, 탄자니아 진출 한국기업

자료: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통계분석

이 연구는 데이터 활용 및 모형 분석으로 실증적 설명력을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려 한다. 통계분석에서는 UN Comtrade가 제공하는 교역량 자료와 CEPII에서 제공하는 Gravity 자료, Polity V,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지수, 유엔산업발전기구(UNIDO: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세분화된 제조업 데이터,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 데이터베이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및 AfDB, AU,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출간한 Africa Statistical Yearbook 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먼저 시장규모, 국가 간 거리, 공용어, 식민지 경험의 유사성, 내륙국 여부 등 교역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포함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사용하여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촉진요인으로서의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중력모형은 국제무역 연구자들 사이에서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로 사

용되어왔다.

둘째로,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생산 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성(synchronization) 분석을 통해 지역협력과 통합의 양상과 정도를 고찰한다.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협력관계 강화와 통합이 구현되고 있는 지역은 경제구조의 동질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지역경제공동체의 통합 효과가 적은 지역은 동질성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내에서도 중·고소득 국가는 전 세계 또는 지역 경제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구조 동질성 분석을 통해 각 지역경제공동체가 아프리카 국가의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한-아프리카 협력방안 마련에 지역경제공동체 단위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교역 파트너가 어떤 지역경제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국가인지를 구분해 국가 단위 분석의 효용을 높이하고자 한다. 분석의 주요 대상은 4개 아프리카 지역경제협력공동체(EAC, ECOWAS, COMESA, SADC) 회원국 중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35개국이며, 이 데이터에는 35개 회원국을 포함하여 이들과 교역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단위는 35개 회원국과 교역국 간 양자 관계이며, 표본 크기는 수출과 수입 모두 합쳐 총 4만 3,505국가쌍(dyad)이다.

3. 연구내용

이 연구는 아프리카 대륙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경제공동체 중 한국과 경제협력 가능성 및 한국기업의 진출 기회가 많은 4개 지역경제공동체(COMESA, EAC, ECOWAS, SADC)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과 그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공동체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동남 지역 2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케냐를 중심으로 5개 동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되

어 있다. 동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ICT 관련 분야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아프리카 내 최대 인구 및 경제규모를 보유한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가 아우르는 서아프리카 지역은 원유와 다양한 광물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15개 남부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경제공동체다. 대표적인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최고의 선진 인프라를 지닌 국가이자 유망한 소비시장이기도 하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경제통합의 역사적 경위와 지역경제공동체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 역사가 짧지 않음에 비해 아프리카 경제통합의 실질적인 진전을 막고 있는 요인으로 경제통합을 지원하는 제도 면에 주목하면, 1)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에 따라 무역 자유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실시 단계에서 각국의 재량이 인정받고 있으며, 2) 자유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해결 수단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3) 회원의 공동체 중복가입으로 여러 관세율이 존재하는 등 제도적·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네 가지 지역경제공동체의 형성 목적 및 특징, 경제통합의 진행 정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네 가지 지역경제공동체의 통합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통화동맹, 5) 정치연합의 5단계로 분류한다. 또한 네 가지 공동체의 영향력은 ‘결정한 규칙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21년 1월 시행된 AfCFTA가 제대로 작동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아프리카경제 공동체 수립 단계 별로 네 가지 지역경제공동체 간의 연계 수준을 평가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공동시장 설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더불어 아프리카 주요 4개 지역경제공동체의 무역환경을 분석한다. 이를 위

해, 개별 지역경제공동체의 산업화 정책을 다룬 보고서를 참고해 정리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REC별 경제통합 수준과 역내무역 비중, 규모 등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중 SADC, EAC, ECOWAS 등이 다른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무역 비중을 보여준다. 또한 네 가지 지역경제공동체별 향후 개발정책전략 및 목표를 분석하여 우선순위 산업 영역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통계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중력모형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회원국의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역내교역의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회원국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둘째로, 분산지수를 사용하여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의 동질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경제구조의 동질화는 국제무역의 확대, 화폐통합 등을 통해 발생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생산구조와 무역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공동체의 영향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공동체의 존재와 상관없이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지역경제공동체의 효용과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주요 협력국가 선정 및 한국과의 협력방안 마련에 앞서 아프리카 각국의 지역적 국제통상환경을 분석함으로써 한-아프리카 협력에 각 지역경제공동체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4장은 앞의 제3장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한 지역경제공동체의 영향력을 전제하여, 제2장의 문헌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한국과의 협력유망 분야와 산업 등을 제시하려 한다. 아프리카 주요 4개 지역경제공동체별 주요 협력국가 2개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현황도 살펴본다. 주요 협력국가의 선정 및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함으로써 중점국가와 한국 간의 협력 가능성 등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AfCFTA의 공식적인 시행으로 초래될 아프리카 산업 분업화 가능성도 분석한다. 산업 분업화는 각국이 경쟁력 있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아프리카 역내에서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핵심적인 사항이다. 최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류, IT,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노력은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 EU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에서도 보호무역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처럼 경제규모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교역규모가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가능한 산업 및 교역 분야 분석은 한국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 내 주요 지역경제공동체 및 공동체별 중점국가 분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협력방안과 아프리카 신흥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진출전략을 모색하려 한다.

제2장



주요 RECs 개발전략 및 전망

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
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
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
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



1. 주요 RECs 소개 및 개발전략

가. COMESA

COMESA(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는 1994년 무역통합과 역내무역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으로特惠무역지대(PTA: Preferential Trade Area)를 대체하며 회원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천연자원 및 인적 자원 개발과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또한 ‘지역통합을 통한 경제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21개 회원국은 5억 8,3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8,500억 달러 이상의 국내총생산, 3,240억 달러의 무역규모를 바탕으로 역내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 대륙의 약 3분의 2에 달하는 1,200만 km²을 보유하고 있다.¹⁹⁾

2000년 10월에는 9개의 창립 회원국(지부티, 이집트,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이 COMESA FTA를 체결하였고, 이후 부룬디와 르완다(2004년), 리비아와 코모로(2006년), 세이셸(2009년), 우간다(2014년), 튀니지(2020년)가 COMESA FTA에 가입했다.²⁰⁾ 콩고민주 공화국(이하, DR콩고)은 2015년 12월 COMESA FTA에 단계적으로 가입할 것을 관보에 알리며 3년간 관세를 각각 40%, 30%, 30%로 인하하였다. 현재 튀니지를 포함한 16개 회원국(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튀니지, 수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 COMESA FTA에 가입을 마쳤으며, 회원국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가입으로 인해 COMESA FTA 가입이 면제된 에스와티니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가 가입을 위해 협의 중이다.²¹⁾

19) COMESA 홈페이지, "What is COMESA"(검색일: 2021. 5. 4).

20) COMESA(2019), p. 22.

21) Amogne and Hagiwara(2021), p. 2.

COMESA의 주요 개발계획인 중기전략계획(MTSP: Medium-Term Strategic Plan)은 무역과 투자 촉진을 통한 전반적인 지역 경제발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MTSP의 계획은 무역 촉진, 시장통합, 인프라 개발, 중소기업 개발과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한 산업화, 제도 및 규제 정책, 역량 개발 및 자원 동원에 초점을 맞춘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²²⁾ 이전 2016~20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2021~25년까지 5개년 MTSP가 시행 중이며, 동 계획 역시 5년 동안 지역무역 활성화 및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개발 전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1~2025 MTSP의 네 가지 전략적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시장통합
- ② 물리적 통합/연결
- ③ 생산적 통합
- ④ 성(gender) 및 사회통합

COMESA의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생활수준을 가진 완전히 통합된,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공동체가 되는 데 있다.²³⁾ 이를 위해 2025년까지 COMESA는 관세, 비관세장벽 및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이동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단일 무역 및 투자 지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²⁴⁾ 현재 COMESA의 역내무역은 전체 무역에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COMESA 회원국 간 높은 거래비용에 있다. 현재 FTA가 시행되고 있지만 회원국 간 무역에는 여전히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COMESA는 관세,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경제통합 어젠다 역시 MTSP에 의거하여 잘 작동하는 FTA와 관세동맹, 점진적인 서비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 사회적 개발과 양성 평등, 그리

22) "COMESA's New Plan for the Next Five Years"(2020. 9.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7).

23) EU(2020), p. 2.

24) *Ibid.*, p. 2.

고 단일 시장을 향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포함한다.²⁵⁾ 2021~25년 동안의 MTSP는 개발 중으로, 추후 관련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²⁶⁾

또한 COMESA는 2017년부터 ‘2017~2026 산업화 전략’을 시행 중이다. 2017년에 채택된 동 산업화 전략은 COMESA 중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COMESA 조약에 따라 회원국이 산업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산업 간의 연계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산업화 전략의 수립을 제공하고 있다.²⁷⁾

동 전략은 모든 회원국의 빈곤 감축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며, 풍부한 인적·물적·천연자원을 활용한 노동집약적이고 자원 중심적 산업화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²⁸⁾ 이를 바탕으로 산업 기업에 친화적인 제도적·규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COMESA 회원국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업 개발을 이루며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다.

COMESA 산업화 전략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²⁹⁾

- ①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증진
- ② 공동시장 내 산업재 및 서비스 가용성 증대
- ③ 산업 부문 경쟁력 향상과 전체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촉진을 위한
역내 경제구조 변화 및 교역 확대 도모
- ④ 산업관리능력 및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산업 전문가 육성

COMESA 산업화 전략의 비전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과 제조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고, 환경 친화적이며, 다양한 산업 부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

25) *Ibid.*, p. 2.

26) “A New Statistics Strategy for COMESA is in the Works”(2020. 10. 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7).

27) UNECA(2020), p. 2.

28) COMESA(2017), p. 7.

29) *Ibid.*, p. 7.

하여 COMESA는 산업정책에서 농산물 가공, 에너지, 섬유 및 의류, 가죽 및 가죽제품, 광물 선풍(選鑛), 제약, 화학 및 농화학, 경공업 및 청색경제 등 아홉 가지 부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첨단기술산업은 COMESA 회원국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COMESA 2017~2026 산업화 전략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2026년까지 부가가치상품 수출 비중을 GDP 대비 9%에서 29%로 증가
- ② 2026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 이상으로 증가
- ③ 2026년까지 총 제조품 수입 중 역내 제조품의 비중을 7%에서 20%로 증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³⁰⁾

- ① 환경 보전을 위한 녹색기술 투자 증대
- ② 핵심 우선 업종 육성을 통한 제조업 기반 및 생산 다양화 증진
- ③ 경제구조의 변혁과 고용 창출을 통한 개별 국가 및 지역적 차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가치사슬 강화
- ④ 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별 국가 및 역내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 ⑤ 회원국의 마이크로 중소기업(MSME: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의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강화
- ⑥ 산업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효과적 적용과 혁신을 위한 지역적 역량 창출 및 강화
- ⑦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 육성
- ⑧ 회원국 및 역내 산업화에 기여하는 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한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개발
- ⑨ 역내 생산 제조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및 거래 확대

30) Ibid., p. 7.

⑩ 불법 거래와 위조화폐를 근절하기 위한 회원국 간 협력 장려

나. EAC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는 2000년에 설립된 공동체로 6개 회원국(부룬디, 케냐,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으로 구성되며, 탄자니아 아루샤에 본부가 있다. EAC는 1억 7,700만 명의 인구와 250만 km²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내 총생산은 1,930억 달러(2019년 EAC 통계)이다.³¹⁾

EAC 설립은 공동체를 설립한 조약에 따라 1999년 11월 30일에 서명되었고 기존 3개 파트너 국가인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의 비준 후 2000년 7월 7일 발효되었다. 르완다와 부룬디는 2007년 6월 18일 EAC 조약에 가입했고 200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공동체 정회원이 되었다. 남수단은 2016년 4월 15일에 조약에 가입하였고 2016년 8월 15일 정회원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경제 중 하나인 EAC는 상호 이익을 위해 다양한 주요 영역에서 회원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분야에는 경제 이외 정치 및 사회 부문도 포함한다. 현재 동아프리카 관세동맹(East African Customs Union)의 고무적인 진전, 2010년 공동 시장(Common Market) 설립, 동아프리카 통화동맹의정서(East African Monetary Union Protocol)의 시행에 따라 지역통합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³²⁾

EAC의 주요 개발전략인 제5차 EAC 개발전략(2016~17, 2020~21)은 동아프리카공동체 설립 조약 및 EAC 비전 2050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동체가 추구하는 광범위한 전략적 개발 목표를 보여준다. 전략의 형태는 지역 내, 지역 간, 대륙 간, 그리고 세계 수준의 개발전략(EAC 회원국, SADC, AU 어젠다

31) EAC 홈페이지 참고.

32) EAST AFRICAN COMMUNITY(2018), "PROTOCOL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FRICAN COMMUNIT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4).

2060 및 UN 개발 어젠다) 내에서 공동체의 의무를 바탕으로 한다. 2011~12년, 2015~16년 동안 진행된 제4차 EAC 개발전략이 종료되면서 동기간 동안 완료되지 않은 혹은 시행되지 못한 계획이 남아 있음에 따라 제5차 기간 동안에는 해당 계획을 시행함과 동시에 필요성 높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³⁾

제5차 개발전략의 전체적인 목표는 2021년까지 동아프리카공동체를 안정적이고 경쟁적이며 지속가능한 중하위 소득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는 7개의 주요 우선순위 영역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7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단일관세영토(SCT: Single Customs Territory)의 통합
- ② 지역기반시설의 개발
- ③ 공동시장과 통화연합규약 아래 모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화
- ④ 지역 내 산업개발 강화
- ⑤ 농업 생산성 향상
- ⑥ 지역 평화, 안보 및 굿거버넌스의 촉진
- ⑦ 지역 및 교역국가 수준에서 제도적 변화

공동체는 위의 분야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더 빠른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개발과 EAC 지역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위의 일곱 가지 주요 우선순위 영역과 함께 동 5차 EAC 개발 전략 기간 동안 시행되는 개발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³⁴⁾

- ① 농촌 개발, 농업, 어업, 가축, 식량 및 영양 안보,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성장 및 생산 관련 무역과 마케팅, 부가가치, 생산성, 지속가능한 생산의 가속화와 통합

33) EAC(2020), p. 55.

34) *Ibid.*, p. 58.

- ② 지속가능한 지역통합과 경쟁력을 지원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의 재고 및 품질 향상에 투자
- ③ 양질의 효과적·효율적인 인적자본 개발, 고용 증진, 건강 및 전반적 EAC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 서비스의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통합
- ④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접근을 위한 메커니즘 및 전략 강화
- ⑤ 지역의 개발 및 사회경제 변화, 그리고 지원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과학, 기술, 혁신(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투자 증가
- ⑥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활용 및 보존, 기후변화 관리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 및 전략 강화
- ⑦ 관세동맹 기능을 완전히 확보
- ⑧ 공정경쟁 보호를 포함한 공동 시장 규약의 완전한 이행을 가속화
- ⑨ 통화동맹의 완전한 이행 가속화
- ⑩ 지속적 안정, 정치적 공약, 거버넌스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연맹 설립을 위한 전략 및 메커니즘의 가속화
- ⑪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모든 EAC 기관의 역량 강화 및 개발
- ⑫ 통합 과정에서 EAC 국민의 지식 관리, 정보 공유, 인식 창출 및 참여 강화

동아프리카산업화정책(2012~32년)은 산업 생산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EAC 지역의 경제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지속가능한 부의 창출, 소득 향상 및 지역사회에 대한 더 높은 생활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⁵⁾ 동 산업화 정책은 고용 창출, 수출 수입 및 경제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했으며 동시에 리스크에 대비하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 다각화도 지원하고 있다.

EAC 지역은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

35) EAC(n.d.), p. 13.

가 및 지역 수준의 비도덕적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 필수 기술 및 기술 노하우의 부족 및 격차, 정보의 격차, 제한적 시장규모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아직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동아프리카에서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8.9% 수준으로, 이는 EAC 5개 회원국이 2032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평균 목표치인 3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³⁶⁾ 이에 지역의 자원 공동 개발을 활용하고 지역의 산업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적 자원 기반 산업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EAC는 장기적인 산업화 정책을 통해 광범위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정 목표를 설정하였다.³⁷⁾

- ① 제조 기반 다변화 및 제조된 수출품의 LVAC(Local Value Added Content)를 2032년까지 현재 추정된 8.62%에서 최소 40%로 증가
- ② 효과적인 전략 실행을 위한 산업정책 설계와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역의 제도적 역량 강화
- ③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기술 및 혁신 역량 강화
- ④ 다음을 통해 제조된 제품의 무역을 확대
 - ㉞ 역내에서 제조된 수출품의 비율을 현재 5%에서 약 25%로 증가
 - ㉟ 총 상품 수출 대비 제조업 수출 비중을 평균 20%에서 60%로 증가
 - ㊱ 마이크로 중소기업(MSME)을 제조 GDP의 20%에서 50% 이상 기여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개체로 전환

다. ECOWA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

36) *Ibid.*, p. iii.

37) *Ibid.*, pp. 13-14.

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등 15개국이 가입해 있다. ECOWAS 회원국은 현재 세 가지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및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에웨어(Ewe), 풀라어(Fulfulde), 하우스어(Hausa), 만딩고어(Mandingo), 월로프어(Wolof), 요루바어(Yoruba)와 같은 국경을 넘는 모국어를 포함하여 수천 개가 넘는 기존 현지 언어가 있다. 약 510만 km²의 광대한 면적에 3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경제총생산 합계는 7,202억 8,000만 달러이다.³⁸⁾

통합에 대한 첫째 노력은 1945년 이 지역의 프랑스어권 국가를 단일 통화 연합으로 만든 세파(CFA) 프랑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64년 라이베리아, 1965년 코트디부아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4개 국가의 합의로 서아프리카경제통합이 제안되었다.³⁹⁾

ECOWAS의 비전은 풍부한 인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기회 창출을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국경 없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ECOWAS가 구상하는 것은 인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즐기고 효율적인 교육 및 보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평화와 안보 분위기에서 경제 및 상업 활동에 참여하는 통합 지역이다.

ECOWAS의 대표적인 개발전략은 지역통합전략(RISP: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Paper)으로, 이는 산업화와 지역의 금융 통합의 지원을 받는 지역 가치사슬의 개발에 초점을 두며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역시 주요 목표이다.⁴⁰⁾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2020~25년 동안의 새로운 서아프리카 지역지역통합전략(WA-RISP: West Africa Regional Integration Strategy Paper)은 서아프리카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통합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전 WA-RISP의 주요 목표는 국경 없는, 평화로운, 그리고 번영 및 결속력

38) ECOWAS 홈페이지, <https://www.ecowas.int/>(검색일: 2021. 5. 10).

39) *Ibid.*

40) AfDB(2020), p. v.

있는 지역을 만들어 굿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 보전의 기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어젠다를 개발하고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RISP는 두 가지 주요 부문인 ① 지역시장 연계, 그리고 ② 효과적인 지역통합 어젠다의 이행을 위한 역량 구축으로 구성되었다.⁴¹⁾ 이와 비교하여 2020년부터 추진 중인 WA-RISP의 두 가지 우선순위 부문은 ① 국경 간 인프라 개선, 그리고 ② 지역 기업 개발 지원이다.⁴²⁾

첫째 우선순위 부문의 주요 목표는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개발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비용 효율적, 안정적, 기후 탄력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⁴³⁾ 이는 지역 교통 및 물류 허브, 스마트 전력 공급, 국경 간 상호 연결 및 전력 거래, 지역 ICT 연결 등에 초점을 둔다. 이는 지역정책, 법률, 규제 및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조화, 교차 국경무역 및 투자 개선을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투명성 및 회계 책임 촉진 등과 관련한 정책을 통하여 지원한다.⁴⁴⁾

첫째 우선순위 부문은 세 가지 세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계획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⁵⁾

- ① 역내 및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근 증진을 위한 운송수단 연결 및 활성화
 - ㉠ 운송을 위한 회랑 개발 지원(아비장-라고스 회랑, 프라িয়া-다카르-아비장 회랑 등 해상 회랑 개발에 집중)
 - ㉡ 기타 운송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예: 다카르-바마코 철도)
 - ㉢ 지선도로를 주요 고속도로에 연결함으로써 제품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감소
- ② 탄력적(resilient) 에너지 공급 및 연결망 개발
 - ㉣ 지역의 에너지 접근 및 사용 개선

41) *Ibid.*, p. iv.

42) *Ibid.*, p. v.

43) *Ibid.*, p. 15.

44) *Ibid.*, p. 15.

45) *Ibid.*, p. 16.

- ㉔ 스마트 에너지 생산에 초점(예: 태양광, 수력, 기타 재생에너지 생산)
- ㉕ 국가 간 전력 연결 강화 및 서아프리카 전력공동체 효율성 개선, 역내 에너지 교역 확대
- ③ ICT 인프라 및 인터넷 보급

둘째 우선순위 부문의 주요 목표는 산업 생산, 경제 다양화, 지역 내 무역 활성화 위한 제조업, 지역농업 가치사슬 개발 및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⁴⁶⁾ 이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특별농업가공구역(SAPZ: Special Agroindustrial Processing Zones)과 특별경제클러스터 개발, 역내 및 글로벌 가치사슬 개발과 기업의 개발 및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금융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둔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중점을 둔 5개 분야인 사업, 관광, 교통과 물류, 통신, 금융 등에 대한 지역 가치사슬 개발 역시 지원된다.⁴⁷⁾ 동 부문은 두 가지 세부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계획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⁸⁾

- ① 특별농업가공구역(SAPZ)과 특별경제구역(SEZ) 개발
 - ㉔ 지역 가치사슬 개발, 경제 다양화, 특히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녹색 일자리 촉진을 위한 SAPZ/SEZ 개발 지원
 - ㉕ 중소기업 개발에 초점을 둔 나이지리아-베냉 SEZ 개발
 - ㉖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국경 지역에 ECOWAS 바이오 가스 마을 기업(green enterprise village) 개발
 - ㉗ 어류 가치사슬 및 지역의 해양경제무역 회랑(blue economy trade corridor) 개발
- ② 기업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 및 결제 시스템 개발
 - ㉔ 민간 부문의 자금 충족을 위한 국내 저축 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금

46) AfDB(2020), p. 17.

47) *Ibid.*, p. 17.

48) *Ibid.*, pp. 17-18.

용 시스템 개발

㉔ 지역 자본시장 인프라 강화

㉕ 국가 간 투자 및 무역 촉진을 위한 지역 지불 및 결제 시스템 개선

ECOWAS의 대표적인 산업화 정책은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서아프리카공동산업정책(WACIP: The West African Common Industrial Policy)이다. WACIP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이며 국민의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견고한 산업구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산업화와 지역의 품질표준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WACIP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⁴⁹⁾

- ① 새로운 산업생산 능력 창출과 기존 생산 능력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 지원을 통해 지역 원료 가공률을 현재 15~20% 수준에서 2030년까지 평균 30%로 점진적으로 높여 지역의 산업생산 기반을 다변화하고 확장
- ② 제조업의 지역 GDP 기여도를 현재 평균 6~7%에서 2030년 평균 20% 이상으로 점진적 증가. 특히 기술, 산업 경쟁력 및 품질 인프라(표준화, 인증)의 향상과 개발을 통하여 서아프리카에서 제조된 상품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량을 현재 0.1%에서 2030년까지 1%로 점진적 증가
- ③ ECOWAS 역내무역을 현재 12% 미만에서 2030년까지 40%로 점진적 증가

WACIP는 다음 10개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⁵⁰⁾

- ① 소규모 기업,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I(Small and Medium Industrial institute) 및 주요 산업의 발전
- ② 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 실시

49) ECOWAS(2010), p. 5.

50) *Ibid.*, pp. 8-14.

- ③ 지역 지적재산권 개발
- ④ 지역 금융의 개발과 금융산업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 ⑤ ECO-BIZ(Business Opportunit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통한 생산에 대한 적절한 통계 및 기술정보의 가용성과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 충족
- ⑥ 지역 산업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투자 및 기술 흐름을 개선,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
- ⑦ 인프라 개발 및 NEPAD와의 협력을 통한 생산요소 비용절감, 지역사회 내 무역 발전 촉진 및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 ⑧ 표준화, 품질보증, 인증 및 도량형 프로그램(SQAM: Standardisation, Quality Assurance, Accreditation and Metrology)을 통한 역내무역 확대
- ⑨ 관리 역량 및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관리 및 기업가적 기술 개발
- ⑩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 정보 강화, 수출 컨소시엄, 수출 촉진 네트워크 구축, 파트너십 및 멘토링 강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지원 구조 고도화 및 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및 고도화 프로그램, 비공식 부문에 대한 추적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라. SADC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보츠와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남아공,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세이셸,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등 1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회원국 중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등 5개국은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에 가입해 있다. 남아공이 공동체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마다 경제구조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⁵¹⁾

SADC의 주요 목표는 경제발전, 평화, 안보 및 성장을 달성하고, 빈곤을 완화하며, 남아프리카 국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지역통합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있다. SADC는 전신인 남아프리카 개발조정회의(SADC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는 1980년 4월 1일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회원국 의존도 감소, 진정성 있고 공평한 지역통합을 위한 연계 구축, 국가 간 지역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회원국의 자원 동원, 경제해방전략의 틀 안에서 국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조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⁵²⁾ 회원국은 앙골라,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잠비아 및 짐바브웨 등 대다수 남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되었다. 이후 1992년 8월 17일,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국가 및 정부수반은 SADCC를 SADC로 전환하는 데 서명했다.⁵³⁾

SADC의 대표적인 장기개발계획은 ‘Vision 2050’으로, 이는 SADC의 향후 30년 동안의 장기발전계획이며, ‘지역발전전략방안(RISDP: Regional Indicative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20-2030’은 ‘Vision 2050’의 전략을 운영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개발전략계획이다. ‘Vision 2030’과 ‘RISDP 2020-2030’ 계획은 궁극적으로는 SADC를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한 경제적 행복, 정의, 자유를 누리는 평화적, 포괄적, 경쟁적, 중-고소득 산업화된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⁴⁾ 이를 위하여 공동체의 핵심 원칙, 즉 모든 회원국의 국가 평등, 연대, 평화, 안보, 인권, 민주주의, 법치, 형평성, 균형, 상호 이익,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행을 포함하고 있다.

Vision 2050과 RISDP 2020-2030의 3대 핵심 분야(pillar)는 ① 산업개발

51) SADC 홈페이지, <https://www.sadc.int/>(검색일: 2021. 5. 15).

52) SADC 홈페이지, “History and Treaty”(검색일: 2021. 5. 15).

53) SADC SECRETARIAT(2019), pp. 2-5.

54) “SADC discusses Vision 2050, RISDP 2020-30”(2020. 8.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7).

및 시장통합 ② 지역통합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 ③ 평화, 안보, 굿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사회 및 인적 자본 개발로 구성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젠더, 청소년, 환경 및 기후변화, 위험관리 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

위의 세 가지 핵심 분야는 다음 다섯 가지 세부목표를 포함한다.⁵⁵⁾

- ① 지역통합 촉진을 위한 상품, 서비스, 자본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환경 조성
- ② SADC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신속한 구현을 위한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가속화
- ③ SADC 사무국, SADC 국가위원회, SADC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개혁을 통한 기관별 역할 및 책임 강화
- ④ SADC 추진 프로그램, 의정서 및 법률문서 등의 진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 ⑤ 지역통합 의제를 담당하는 SADC 회원국 국민 및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 제고

이전에 시행된 RISDP 2015-2020은 중단기적으로는 지역 가치사슬을 촉진하고 농업, 광물, 제약을 우선 부문으로 선정, 부가 가치를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제조 역량, 경쟁력, 무역 역량을 향상해 지속적 경제변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현재 시행 중인 RISDP 2020-2030은 더욱더 포괄적으로 경제 및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년 간의 개발의제를 제시하고 있다.⁵⁶⁾

SADC의 '산업화 전략 및 로드맵 2015~2063'은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제고와 구조적 변화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 현대화 및 경제변역을 위한 전략으로 산업화,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 SADC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직면한 높은 자원 의존성, 낮은

55)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주간 앙골라 주요 동향(8.17~8.21)(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7).

56) SADC(2020b), p. 9.

부가가치 및 지식집약적 상품의 수출 비중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에 대한 낮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보여준다. 또한 SADC의 역내무역 비중은 전체 무역의 17% 정도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에 중점을 둔 관세 철폐 등이 큰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SADC 산업화 전략은 자생적 발전을 위하여 산업생산능력을 높이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더 높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선별, 경제 인프라로 만들어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SADC의 산업화 전략은 산업화, 현대화, 기술개발, 과학기술, 재정 강화, 지역통합을 통한 SADC 지역의 기술적·경제적 변혁을 기반으로 하며, AU의 '에젠다 2063'을 따른다. 동 산업화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 ① 1단계(2015~20년):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발전과 시장통합 및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 단계로, SADC 회원국은 1인당 연간 소득 성장률 6% 달성을 목표로 함.
- ② 2단계(2021~50년): 다양화와 생산성,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며, 2050년까지 1인당 GDP 9,000달러와 1인당 연간 소득 성장률 8% 달성을 목표로 함.
- ③ 3단계(2051~63년): 혁신중심의 경제로 진입하는 단계이며, 첨단기술의 발전 및 적용과 비즈니스의 고도화가 주요 특징임. 2063년까지 1인당 GDP 1만 7,000달러 달성, 5%의 연간 소득증가율 달성을 목표로 함.

이 밖에도 GDP 대비 제조업 차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 그리고 2050년까지 40%로 증가, 미드 및 하이테크의 비중을 현재 15% 미만에서 2030년까지 30%, 그리고 2050년까지 5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⁵⁷⁾

57) SADC(2015), pp. 3~24.

2. 주요 RECs의 무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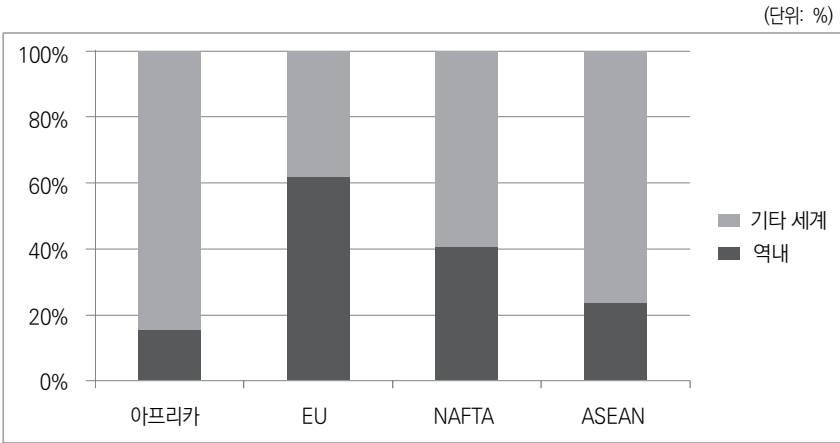
아프리카 역내무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상품무역은 아프리카 무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아프리카 대륙의 상품수출은 3,610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한 데 비해 동기간 서비스 무역은 약 960억 달러를 기록했다.⁵⁸⁾ 이처럼 서비스 무역의 비중은 낮지만 10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역외무역의 감소는 아프리카 역내무역의 비중을 높였지만,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아세안(ASEAN)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비중을 보여준다(그림 2-1 참고).

아프리카 대륙 내 REC별 역내무역 비중, 규모 등은 차이를 보여준다(표 2-1 참고). 아프리카 REC는 공통적으로 수출의 경우 해외무역이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아프리카 대륙 내 수출은 평균 약 19%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반면 수입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이 전체 수입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아프리카 수입 중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보다는 낮은 14%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REC인 SADC, EAC, ECOWAS는 다른 아프리카 RE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역내무역 비중을 보여주었고, 그중 SADC과 ECOWAS는 수출(각각 88.6%, 59.8%)과 수입(각각 86.4%, 64.8%) 모두 매우 높은 역내무역 비중을 보여주었다.

58) UNCTAD(2019), p. 12.

그림 2-1. RECs의 역내무역 비중(2016년)



자료: UNCTAD stat, UNCTAD(2019), p. 3.

표 2-1. 아프리카 개별 REC의 역내 및 역외무역 비중(2016~18년 평균)

(단위: %)

RECs	전체 수출 중 아프리카로의 수출	아프리카 수출 중 공동체 내 수출	전체 수입 중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	아프리카 수입 중 공동체 내 수입
COMESA	19.2	43	13.6	36.2
EAC	38.8	46.32	14.4	44.6
ECOWAS	17.2	59.8	11.4	64.8
SADC	23.2	88.6	23.2	86.4
AMU	5.5	47.8	4.2	48.7
ECCAS	9.9	44.1	19.2	15
평균	18.96	54.91	14.33	49.28

자료: UNECA(2020), p. 10.

[표 2-2], [표 2-3], [표 2-4], [표 2-5]는 REC별 역내, 역외 아프리카, 세계 국가에 대한 각각의 상위 5대 수출 품목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주요 4개의 REC의 상위 수출품목은 석유, 광물, 농산품으로 구성되며, 수출품은 역내, 역외 아프리카, 세계 국가에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표 2-2. COMESA 수출 상위 5대 품목(2016~18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품목(HS 6)	제품	수출지역			총계
		COMESA	아프리카	세계	
270900	석유	-	-	18,174.19	18,174.19
710812	금	-	-	3,845.58	3,845.58
240120	잎담배	-	881.15	1,440.24	2,321.39
090240	홍차	297.91	387.31	1,480.74	2,165.96
260300	구리광	834.50	838.63	-	1,673.13
090111	커피	-	-	1,613.00	1,613.00
170199	사탕수수당	121.48	255.36	-	376.84
260400	니켈광	-	336.92	-	336.92
252329	포틀랜드 시멘트	138.97	-	-	138.97
100510	옥수수 종자	91.27	-	-	91.27

자료: UNECA(2020), p. 18.

표 2-3. EAC 수출 상위 5대 품목(2016~18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품목(HS 6)	제품	수출지역			총계
		EAC	아프리카	세계	
090240	홍차	97.91	357.44	1,422.84	1,878.19
090111	커피	-	112.75	923.57	1,036.32
060311	장미	-	-	506.58	506.58
240110/240120	잎담배	46.82 (HS 240110)	-	316.68 (HS 240120)	363.50
080131	캐슈넛	-	-	323.77	323.77
100510	옥수수 종자	69.63	81.48	-	151.11
240220	컬런	-	78.20	-	78.20
151190	팜유	-	75.90	-	75.90
230610	오일 케이크	54.58	-	-	54.58
071339	콩	44.81	-	-	44.81

자료: UNECA(2020), p. 19.

표 2-4. ECOWAS 수출 상위 5대 품목(2016~18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품목(HS 6)	제품	수출지역			총계
		ECOWAS	아프리카	세계	
270900	석유	3,112.46	5,131.33	38,572.17	46,816.00
180100	코코아두	-	-	5,545.44	5,545.00
271019	중질유	618.13	679.13	1,104.28	2,402.00
80131	캐슈넛	-	-	2,141.92	2,141.92
260600	알루미늄광	-	-	2,096.35	2,096.00
151190	팜유	445.7	452.51	-	898.00
271012	경질유	323.46	342.21	-	666.00
252329	포틀랜드 시멘트	209.54	221.2	-	431.00

자료: UNECA(2020), p. 21.

표 2-5. SADC 수출 상위 5대 품목(2016~18년 평균)

(단위: 백만 달러)

품목(HS 6)	제품	수출지역			총계
		SADC	아프리카	세계	
270900	석유	1,269.72	1,299.64	32,537.11	35,106.47
710231	원석	-	-	7,731.02	7,731.02
271012	경질유	1,467.18	1,590.36	2,592.25	5,649.79
270112	유연탄	-	-	5,155.76	5,155.76
260112	철광광	-	-	2,748.33	2,748.33
260300	구리광	975.59	975.59	-	1,951.18
240120	앞담배	866.66	892.88	-	1,759.54
271600	전기에너지	-	1,066.50	-	1,066.50
261000	크로뮴광	535.07	-	-	535.07

자료: UNECA(2020), p. 22.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COMESA

COMESA는 2009년 경제통합 및 단일통화 사용을 목표로 관세동맹을 출범했다. 이에 회원국은 역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0~25%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여야 하며(원자재 0%, 자본재 0%, 중간재 10%, 완제품 25%), 공동역외관세 부과 이전 회원국은 최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⁵⁹⁾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남수단을 제외한 FTA 회원국은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한하여 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현재 18개 회원국은 그들의 역외관세를 평균 34%에 맞추고 있는바, 모든 회원국이 COMESA의 공동역외관세(CET)를 따르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⁶⁰⁾

[표 2-6]은 COMESA 회원국이 역외 아프리카 국가 및 EU-27,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를 보여준다. 이집트, 짐바브웨, 그리고 동아프리카 국가는 보호무역을 취하는 지역으로 수입품에 평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말라위는 10~15%에 이르는 중간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가 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전체 COMESA 국가 중 보호무역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는 모리셔스로 COMESA 역외 수입품에 평균 5% 미만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모리셔스, 짐바브웨, 나머지 동아프리카(REA)의 경우 역외수입보다 역내수입에 대한 평균 관세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역내 무역이 저조한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COMESA 지역은 선진국이 제공하는 유럽의 Everything But Arms(EBA),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등과 같은 특혜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역외무역의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59) UNECA(2020), p. 12.

60) *Ibid.*, p. 34.

표 2-6. COMESA 주요 회원국의 수출입 관세

(단위: %)

지역	수입관세			수출관세	
	다른 아프리카	EU-27	기타 세계	다른 아프리카	기타 세계
에티오피아	13.80	13.20	13.20	11.00	4.90
이집트	18.40	17.30	16.20	7.60	4.80
케냐	10.90	11.90	10.90	10.40	5.50
우간다	10.30	10.80	10.80	10.40	4.60
르완다	9.90	10.10	9.70	10.50	4.60
말라위	11.30	10.90	12.20	5.50	4.20
마다가스카르	8.10	8.50	8.30	7.20	4.80
모리셔스	1.40	0.10	1.20	7.20	5.20
잠비아	9.50	12.60	12.40	5.80	5.20
짐바브웨	24.40	23.20	23.10	7.70	6.60
기타 동아프리카	17.50	17.40	16.40	10.10	7.30
기타 북아프리카	7.70	6.20	8.40	8.90	8.40
기타 중남부 아프리카	7.90	7.90	8.40	6.40	4.80
기타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	6.50	7.20	7.40	9.10	5.40

자료: Amogne and Hagiwara(2021), p. 8.

COMESA의 총수출은 2018년 1,280억 달러에서 2019년 1,120억 달러로 1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2,110억 달러에서 2019년 2,120억 달러로 0.5%가량 소폭 증가했다. 2015년 가장 큰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해당 수치는 회복되어 2017년에는 가장 적은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표 2-7 참고).

표 2-7. COMESA의 세계 무역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수출	90,441	87,152	107,255	128,270	112,134
수입	202,638	186,841	181,525	210,895	211,975
총무역	293,078	273,992	288,780	339,165	324,109
무역계정	-112,197	-99,689	-74,270	-82,625	-99,841

자료: COMESA(2019), p. 16.

2019년 수출의 감소는 연료, 제조품, 금속 수출 감소가 주원인이었다.⁶¹⁾ 가치 기준으로 연료 수출은 2018년 310억 달러에서 2019년 210억 달러로 60% 가량 감소했으며, 제조품 수출 역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출이 가장 감소한 국가는 DR콩고로 2019년 수산화 코발트의 수출이 60%가량 감소했다. 또한 구리, 아연 가격의 하락은 잠비아, 에리트레아, 마다가스카르의 수출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연료 수입은 특히 튀니지, 수단, DR콩고, 르완다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액은 2019년 전년대비 101억 달러 증가했다.⁶²⁾

표 2-8. 분야별 총수출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8년	2019년	변화율(%)
제조품	45,534	38,725	-15
연료	36,022	26,781	-26
식품	19,328	19,477	1
광석 및 금속	20,020	18,474	-8
기타 제품	5,319	6,562	23
농업 원자재	2,047	2,115	3
총	128,270	112,134	-13

자료: COMESA(2019), p. 17.

표 2-9. 분야별 총수입

(단위: 백만 달러)

분야	2018년	2019년	변화율(%)
제조품	130,621	125,844	-4
연료	33,003	40,529	23
식품	35,402	33,812	-4
광석 및 금속	7,241	6,387	-12
농업 원자재	3,740	3,618	-3
기타 제품	888	1,785	101
총	210,895	211,975	1

자료: COMESA(2019), p. 17.

61) COMESA(2019), p. 16.

62) *Ibid.*, p. 16.

EU는 COMESA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2019년 기준 COMESA 전체 수출의 약 3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COMESA 역내 수출, UAE, 남아공, 중국, 미국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표 2-10 참고). 주요 수입시장 역시 EU가 1위를 차지했으며, COMESA 전체 수입의 24%를 차지했다. EU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정제유, 의약품, 차량 등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15%로 2위를 차지했다.

표 2-10. 주요 수출입 시장

(단위: 십억 달러)

수출		수입	
국가	2019	국가	2019
EU	40,701	EU	52,543
COMESA	10,874	중국	31,600
UAE	8,261	인도	11,367
남아공	7,789	COMESA	11,244
중국	6,713	미국	10,964
미국	4,882	UAE	9,306
총	112,133	총	211,974

자료: COMESA(2019), pp. 19-20.

COMESA의 역내 수출은 2018년 101억 1,000만 달러에서 2019년 107억 7,000만 달러로 8% 증가했다. 2019년 역내무역의 이 같은 성장은 이집트(22.5%), 튀니지(32.2%), 르완다(28.3%), 리비아(131.6%), 말라위(32.4%), 잠비아(2.7%), 짐바브웨(31.2%), 에스와티니(10.3%)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 국가들은 전체 COMESA 역내무역의 60%를 차지한다.⁶³⁾ 역내무역의 주요 수출상품은 석유, 구리 광석, 정련동, 기타 채소, 신선/냉장 상품, 홍차 순이다.⁶⁴⁾

63) Ibid., p. 20.

64) Ibid., p. 21.

나. EAC

EAC는 역내무역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단일관세영토(SCT: Single Customs Territory), 비관세장벽 철폐, 단일통화 도입, 3자 자유무역지역(TFTA: Tripartite Free Trade Area) 참여, 공동역외관세(CET)가 있다.

단일관세영토는 관세동맹 이행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⁶⁵⁾ 대표적으로 역내무역에 필요한 절차와 문서를 간소화하고 통관정보를 자동화하였는데, 그 결과 몸바사와 다르에스살람 항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각각 21, 18일에서 6일, 3일로 단축되었으며, 운송비용 역시 20피트 컨테이너(TEU) 기준 약 3,100달러에서 1,025달러로 감소하였다.⁶⁶⁾

또한 EAC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2005년 1월까지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는 역내수입 관세를 0%로 낮추었으며, 2015년 「비관세장벽철폐법(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Act)」을 제정, 2017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셋째로 역내 상품·사람·노동·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EAC 내 거주권 및 기업 설립권을 통해 지역통합을 도모하는 공통시장 규약이 2009년에 체결되어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AC의 단일통화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된 제15차 EAC 정상회담에서 5개국(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정상이 통화연맹의정서(Monetary Union Protocol)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후 2015년 동아프리카통화동맹을 창설하였고, 2017년 동아프리카통화연맹협의체(East African Monetary Institute) 신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로써 2021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 잔여 대출 폐지 및 거

65) UNU-WIDER and UONGOZI Institute(2020), p. 1.

66) EAC(2019), p. 19.

시경제정책 수립, 2022년까지 동아프리카공동체 안정화 기금 신설과 단일 환율 메커니즘 디자인 및 이행, 그리고 2024년까지 단일통화 디자인 및 환율 결정과 동아프리카 중앙은행 설립을 통해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⁶⁷⁾

EAC는 2015년에 출범한 TFTA에 참여 중이다. TFTA는 COMESA, EAC, SADC의 3개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29개의 회원국을 하나로 묶어 시장 통합, 산업발전, 인프라 개발 등 3개의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3개의 지역경제공동체는 아프리카연합(AU) 인구의 53%, 대륙 GDP의 약 60%를 차지한다. TFTA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계적으로 모든 무역상품에 대하여 0% 관세를 달성하는 데 있다.⁶⁸⁾ 2021년 2월 기준으로 10개 국가가 비준을 마쳤으며 보츠와나, 이집트, 에스와티니, 잠비아, 우간다, 케냐, 남아공, 르완다, 부룬디, 나미비아 등 10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다.⁶⁹⁾

EAC는 다른 지역경제공동체처럼 공동역외관세(CET)를 시행 중으로 3개의 범주인 원자재 0%, 반제품 15%, 완제품 25%의 관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더욱더 정확한 제품 분류와 관세 부과를 위하여 해당 범주를 4개로 개정하기 위하여 논의 중이다.⁷⁰⁾

[표 2-11], [표 2-12], [표 2-13], [표 2-14]는 EAC 무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AC의 무역액은 2019년 수출 증가로 인하여 2018년 513억 달러에서 2019년 553억 달러로 약 8%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동기간 142억 달러에서 2019년 158억 달러로 약 11%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기상상태의 개선과 금, 어류, 차(tea) 등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중국 및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67)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동아프리카공동체 단일통화 도입논의 동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7).

68) EAC(2019), p. 30.

69) "New Deadline set for Ratification of Tripartite Free Trade Area"(2021. 2. 20),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5. 7).

70) EAC(2019), p. 19.

주요 교역국인 COMESA에 대한 수출은 2018년 25억 달러에서 2019년 15억 달러로 약 40%가량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수입 역시 약 12%가량 감소했다(표 3-7 참고). 반면 SADC와의 수출입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탄자니아와 부룬디와의 무역 증가에 따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경제공동체와의 무역 감소는 우유, 설탕, 밀, 쌀 등의 민감 제품에 대한 관세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표 2-11. EAC 수출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수출	16,819.6	13,877.2	14,143.5	14,213.8	15,760.8
총역내수출	2,823.0	2,631.4	2,977.4	3,170.5	3,162.8
역내/총수출(%)	20.26	16.83	21.05	22.31	20.07
COMESA/총수출(%)	13.89	14.88	18.56	17.75	9.76
SADC/총수출(%)	8.90	10.37	14.89	15.42	13.92
EU/총수출(%)	14.26	14.42	16.81	17.24	14.47

자료: EAC(2019), p. 4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12. EAC 수입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수입	36,632.8	30,462.3	34,230.1	37,066.4	39,517.5
총역내수입	2,524.4	2,181.0	2,484.4	2,843.0	3,175.8
역내/총수입(%)	6.6	8.1	7.3	7.7	8.0
COMESA/총수입(%)	2.8	4.0	4.8	4.3	3.5
SADC/총수입(%)	6.9	6.1	7.5	5.4	6.2
EU/총수입(%)	14.4	15.1	12.9	11.6	11.2

자료: EAC(2019), p. 4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세계 무역의 경우 EAC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과 EU이며,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출은 약 4%, 수입은 2.5% 수준으로 높지는 않다. EAC의 주요 수입

국은 중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와 중동 국가로, EAC 수입의 80%는 원유, 기계, 의약품이다.

EAC의 역내수출 비중은 총무역 대비 20%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대륙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 같은 전체 무역 대비 역내무역의 비중은 2016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관리시스템의 통합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등을 통해 개선된 무역 조건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3. 주요 EAC 역내 수입 국가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우간다	631.0	532.6	565.5	796.3	1,270.1
탄자니아	278.6	298.8	243.2	302.7	329.2
케냐	407.8	324.4	589.8	676.5	620.5
부룬디	151.1	157.2	151.0	134.3	140.8
르완다	474.1	439.8	478.6	549.1	589.3
남수단	-	-	462.5	377.0	225.9
총	1,942.6	1,752.8	2,490.6	2,835.9	3,175.8

자료: EAC(2019), p. 4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14. 주요 EAC 역내 수출 국가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우간다	1,036.7	950.9	1,126.3	1254.5	956.2
탄자니아	995.2	552.5	464.5	508.6	674.4
케냐	1,285.9	1,199.0	1,272.5	273.8	1,370.2
부룬디	14.8	12.3	11.5	16.6	14.6
르완다	118.8	156.6	84.6	89.7	140.7
남수단	-	-	17.9	2.0	6.8
총	3,451.4	2,871.3	2,977.4	3,145.2	3,162.8

자료: EAC(2019), p. 4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모든 동아프리카 국가는 주로 1차 상품을 수출하며 제조품을 수입한다. EAC의 주요 수출품은 커피, 차, 원예 상품이며, 최근 들어 광물 특히 금, 다이아몬드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제조품은 여전히 EAC 수출에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섬유, 화학, 식용기름, 화장품, 의약품이다.

다. ECOWAS

ECOWAS는 서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 증진과 무역 안정화, 그리고 생산과 생산성 향상 및 밀반입 근절을 위하여 2013년 10월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15개 회원국은 공동역외관세(CET)를 채택했다. 또한 CET관리를 위하여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Union Economique et Monétaire Ouest Africaine, 영문: WAEMU)가 주도하는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다. CET는 0~35% 수준으로 품목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관세율을 책정한다. 의약품, 신문, 서적 등 필수품은 0%, 기본 원자재 및 자본재 5%, 중간재 10%, 최종 소비재 20%, 경제개발을 위한 특정 제품의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30% 이상의 부가가치를 지닌 경우, 회원국은 해당 제품을 무관세로 교역할 수 있으며 현재 70여 개 품목이 무관세 대상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다.⁷¹⁾

ECOWAS는 중부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에 이어 대륙에서 둘째로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ECOWAS의 경제성장은 주로 나이지리아에 의해 주도되는데, 나이지리아는 2014년 전체 GDP의 79.1%를 차지했고, 가나(5.3%)와 코트디부아르(4.7%)가 뒤를 이었다. 공동체 내 1인당 국민소득의 격차는 358달러(니제르)에서 3,035달러(카보베르데) 사이로 매우 높은 편이

71) KOTRA, 「지역무역체결협정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7).

며 발전 수준에 있어서도 높은 차이를 보여준다.⁷²⁾

ECOWAS의 수출입액은 전 세계 수출입의 약 0.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지역 최대 수출국인 나이지리아의 수출액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2016년 ECOWAS의 수출입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고 2017년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9년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 2-15, 표 2-16 참고).

표 2-15. ECOWAS 역내무역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역내수출(백만 달러)	14,004	13,314	10,229	9,166	11,173
역내수입(백만 달러)	12,762	10,429	9,104	6,515	7,281
총 역내무역	26,766	23,743	19,333	15,682	16,435
역내수출/전체 수출(%)	12	10	13	15	11
역내수입/전체 수입(%)	14	11	11	8	10
역내무역/전체 무역	13	10	12	11	11
역내수출 변화(%)	-	-5	-23	-10	0
역내수입 변화(%)	-	-18	-13	-28	12

자료: UNCTAD(2020), p. 4.

표 2-16. ECOWAS 역외무역 변화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백만 달러)	118,793	131,960	78,877	61,616	79,555
수입(백만 달러)	92,503	97,042	81,785	81,043	75,991
총무역	211,296	229,002	160,662	142,659	155,546
무역수지(백만 달러)	-	32,917	-2,908	-19,426	3,564
수출 변화(%)	-	11	-40	-22	29
수입 변화(%)	-	5	-16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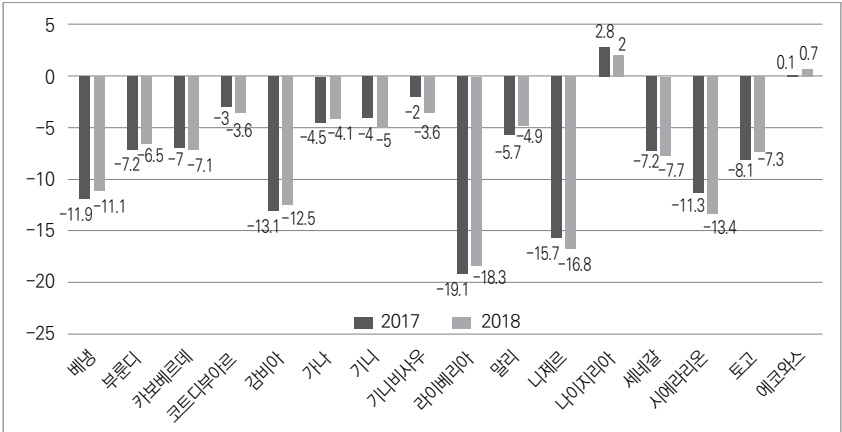
자료: UNCTAD(2020), p. 4.

72) UNCTAD(2020), p. 2.

ECOWAS의 무역 균형은 주로 나이지리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견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도는 회원국마다 다르다(그림 2-2 참고).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니비사우, 말리는 5% 이하의 적자를 보여주며, 베냉(11.1%), 감비아(12.5%), 라이베리아(18.3%), 니제르(16.8%), 시에라리온(13.4%)은 상대적으로 높은 적자 상황을 보인다.⁷³⁾

ECOWAS의 역내무역은 광물, 식품산업 제품, 화학, 운송장비 등 한정된 범위의 상품을 주로 거래하고 있다. 특히 광물 제품은 2017년 역내수출의 절반 이상인 약 51%를 차지했으며, 그중 원유 제품의 경우 동 기간 전체 역내수출의 41.5%, 역내수입의 62.9%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해외무역의 경우 주요 교역국은 유럽으로 2015~17년 사이 ECOWAS 수출의 41.4%, 전체 수입의 41.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이 동기간 수출의 32.5%, 수입의 40.2%를 차지했다.⁷⁴⁾

그림 2-2. ECOWAS 회원국의 경상수지



자료: UNCTAD(2020), p. 5.

73) Ibid., p. 4.

74) Ibid., p. 5.

ECOWAS 무역의 또 다른 특징은 비공식 국경 간 무역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비공식 무역의 경우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파악할 수 없지만 나이지리아와 베냉 전체 GDP의 20%, 75%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⁷⁵⁾ 베냉의 경우 주요 교역국인 나이지리아와의 공식 무역 대비 비공식 무역의 비율은 수입은 1, 수출은 5.1로, 공식 수입 1건당 비공식 수입이 1건, 그리고 공식 수출 5건당 비공식 수출은 1건의 비율로 이루어진다.⁷⁶⁾

ECOWAS는 지역통합 촉진과 회원국 간의 더 깊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장기 개발정책인 VISION 2020을 통하여 인적 자본, 굿거버넌스, 경제 및 통화 통합, 지역 평화 및 안보, 민간 부문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관세 철폐, 무역촉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소비자 보호, 개발 격차 감소 등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생산적, 혁신적인 단일 ECOWAS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공통무역정책(CTP: Common Trade Policy)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⁷⁷⁾ ECOWAS CTP는 다음 다섯 가지 특징과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⁷⁸⁾

① 단일시장 및 생산적인 ECOWAS

-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숙련노동자와 사업가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단일시장 형성과 이를 통한 생산적 ECOWAS를 창출

② 경쟁적, 혁신적, 역동적 ECOWAS

-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분야에 공통 규범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업 친화적, 혁신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을 추구

③ 연결성 개선과 부분별 협력 강화

- 교통 및 기타 인프라 개선을 지원

④ 포괄적이고 사람 중심의 ECOWAS

75) *Ibid.*, p. 5.

76) *Ibid.*, p. 5.

77) *Ibid.*, p. 7.

78) *Ibid.*, p. 7.

- 중소기업의 역내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도모하는 창조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평등한 경제발전을 추구

⑤ 완전히 통합된 글로벌 ECOWAS

-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의 참여를 강화하여 세계 경제로의 완전한 통합을 구상

라. SADC

2010년 개정된 SADC 무역의정서(Trade Protocol)는 SADC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 협정이다. 이는 SADC 회원국들 사이 관세를 줄이고 회원국 간 제품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관세동맹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8년 15개 회원국 중 12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FTA를 공식 출범했으며,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했고 비회원국 수입품에 대하여 공동역외관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15개 SADC 회원국 중 앙골라, DR콩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입한 세이셸을 제외한 12개국은 전체 무역의 85%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게 되며, 이후 점진적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한다. 현재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16개 회원국 중 13개 회원국인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는 FTA에 가입했으며 앙골라는 2019년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다.⁷⁹⁾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세동맹 중 하나이다. 회원국은 역외국에 대하여 공동관세 부과, 관세 수익의 배분 및 광범위한 분야의 무역 쟁점사항에 대해 정책과 의사결정에 있어 협력을 하고 있다. 회원국은 나미비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남아공 등 5개국으로 구성되었으나,

79) SADC(2020a), p. 5.

2019년 10월 모잠비크가 SACU 협정을 체결하며 총회원국은 6개국이 되었다. 모든 SACU 회원국은 SADC FTA 회원이기 때문에 SACU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의(SADC, EU, MERCOSUR & EFTA) 수입품에 대해서는 우대 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에 국가의 경우 일반 세율(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이 적용된다.⁸⁰⁾

SADC는 아프리카 무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SADC 교역량은 전체 아프리카 대륙 수출의 38%, 수입의 42%를 차지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준으로는 수출의 49%, 수입의 56%를 차지했다.⁸¹⁾

SADC의 역내수출은 2019년 348억 달러로 전체 SADC 수출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수치는 최근 5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2-17 참고). 수입은 2016년 20.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2019년에는 모잠비크, 모리셔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17%로 하락, 3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역내무역에서 주로 거래되는 제품은 경유, 전기, 에너지, 다이아몬드, 담배 및 크롬, 광석, 금, 구리 등의 광물이다.⁸²⁾

아프리카 역외국과의 무역의 경우 주요 교역국은 나이지리아, DR콩고, 케냐, 앙골라, 가나로 주요 수출품은 사탕수수, 차(tea), 황산, 식음료 등이고, 수입품은 원유, 구리, 코발트 등이다. 수출의 경우 DR콩고가 31%를 차지하며 기타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케냐(12%), 나이지리아(8%), 앙골라(7%) 순이다. 수입은 나이지리아가 주요 공급 시장으로 전체 역외무역 수출에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나(10%), 앙골라(9%), 케냐(8%) 순이다.

80)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negotiations: WHO is negotiating with WHOM?"(2020. 6.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7).

81) SADC(2020c) 통계자료와 KITA 무역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82) "Intra-SADC FTA trade and SADC FTA trade with the rest of Africa 2019"(2020. 11.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7).

표 2-17. SADC 주요 무역통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수출	162,767	152,497	173,933	191,415	173,060
총수입	179,289	152,183	163,761	184,756	190,024
무역수지	-16,522	313	10,172	6,659	-16,965
역내수출	35,420	34,088	35,189	37,626	34,813
역내수입	34,618	30,879	31,540	35,601	32,566
역내무역수지	802	3,209	3,649	2,026	2,247
역내수출/총수출(%)	21.8	22.4	20.2	19.7	20.1
역내수입/총수입(%)	19.3	20.3	19.3	19.3	17.1

자료: SADC(2020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남아공은 SADC 무역에서 총수출의 52%, 역내수출의 60%를 차지하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아공 다음으로 역내수출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나라는 나미비아(6.7%), 짐바브웨(6.6%)로 남아공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표 2-18 참고). 수입에 있어서도 남아공은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표 2-19 참고). 역내무역에서 남아공은 제조품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반대로 다른 회원국의 수출품은 주로 1차 상품과 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SADC 회원국 중 남아공, 탄자니아, 에스와티니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바, SADC의 무역수지는 남아공이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 2-20 참고).

표 2-18. 역내무역 주요 수출국

(단위: %)

회원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남아공	53.5	54.5	57.7	57.9	60.2
나미비아	7.1	5.4	5.7	6.3	6.7
짐바브웨	7.0	7.7	8.3	6.9	6.6
DR콩고	5.8	5.8	5.9	5.8	5.0
잠비아	4.4	3.9	3.8	4.5	4.5
기타	22.3	22.7	18.6	18.7	17.0
총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SADC(2020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19. 역내무역 주요 수입국

(단위: %)

회원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남아공	15.0	17.8	18.7	17.4	18.8
나미비아	16.1	13.8	13.1	16.2	15.6
보츠와나	16.2	15.6	12.3	13.0	14.1
짐바브웨	8.6	8.8	9.5	8.7	10.3
잠비아	11.3	13.2	13.6	13.7	10.0
모잠비크	7.8	5.6	5.9	6.0	7.3
기타	25.1	25.2	26.9	25.1	23.9
총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SADC(2020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20. 역내무역 주요 수입국의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회원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남아공	13,444	13,077	14,406	15,602	14,818
탄자니아	587	406	277	395	109
에스와티니	145	115	158	33	160
나미비아	-3,056	-2,433	-2,113	-3,419	-2,725
짐바브웨	-491	-88	-97	-499	-1,075
DR콩고	-587	-547	-571	-758	-150
잠비아	-2,355	-2,744	-2,945	-3,182	-1,685

자료: SADC(2020c)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주요 RECs의 통합 수준

가. 주요 RECs의 통합 진행 현황

경제통합은 오랫동안 아프리카 경제발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

로 간주되었다. 식민지 지배하에 분단된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넓은 대륙이지만 비교적 인구가 적고 국토면적이 작은 국가가 많은 ‘작은 시장, 작은 경제’의 집합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이 생산성 향상, 무역 증대, 해외 직접 투자의 유입 등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통합되어 일정한 규모의 경제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각국이 독립을 시작한 1960년대 초반에 이미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1961년에는 범아프리카니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합중국 구상이 주장되기도 했으며 1963년에는 이 구상이 원동력이 되어 아프리카 단결기구(OAU)가 설립되었다. 이후 경제통합은 아프리카 경제발전전략의 하나로서 항상 의식되어왔다. 예를 들어 OAU가 1980년 발표한 라고스 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은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사한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African Economic Community)의 설립을 제창했다. 1991년에 채택된 AEC 설립 조약(1994년 발효, 통칭 아부자 조약)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경제통합에 대한 자세한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다.⁸³⁾ 아부자 조약은 AEC 설립까지의 과정을 ‘지역통합-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통화동맹-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6단계로 제시했고, 2028년까지 단일통화 도입 단계에 이르도록 목표했다. 이후 대륙 차원의 제도인 아프리카 중앙은행과 아프리카 의회를 창설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2002년에 OAU가 아프리카연합(AU)으로 개편된 이후, AU는 아프리카 대륙 발전을 위한 공동 전략인 아프리카 통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부자 조약의 취지와 통합까지의 과정을 재확인했다.

AU는 아프리카 11개의 지역경제공동체 중 8개를 지역 경제통합의 중심으로 선정했다(표 2-21 참고). 각 지역경제공동체는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자체

83) OAU(1991), pp. 6-18.

적으로 로드맵을 책정해, 현재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동맹 등을 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경제통합의 진행 정도는 각 지역 경제 공동체마다 달라 사헬 사하라 국가공동체(CEN-SAD: Community of Sahel-Saharan States)와 정부 간 개발기구(IGAD: 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는 역내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며(아부자 조약의 2단계), COMESA 및 SADC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동 3단계), EAC는 같은 3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관세동맹의 결성을 마치고 공동시장의 창설(아부자 조약의 규정 외)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아부자 조약에 따르면, 3단계까지는 지역경제공동체 수준에서, 4단계 이후는 아프리카 대륙 수준에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2-21. 주요 RECs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외	
명칭	가맹국 수	설립 연도	활동 조화	분야 협력	자유무역 지역	관세 동맹	공동 시장	통화 동맹
AMU	5	1989	✓	●	●	x 1995년	x 2000년	-
CEN-SAD	24	1998	✓	●	x	x	x	-
COMESA	21	1994	✓	✓	✓	●	x 2025년	x 2025년
EAC	7	1967/ 2001	✓	✓	✓	✓	●	x 2023년
ECCAS	10	1983	✓	✓	●	x 2010년	x	-
ECOWAS	15	1975	✓	✓	✓	✓	x	x
IGAD	8	1996	✓	●	-	-	-	-
SADC	15	1992	✓	✓	✓	x 2010년	x 2015년	x 2016년

주: ✓ 시행 중(일부 시행 포함), ● 시행을 위한 협상 진행 중, x 미시행(연도는 당초 실시 목표 연도) - 현재로서는 목표로 하지 않고 있음.

자료: 각 지역경제공동체 홈페이지, AfDB.

1) COMESA

COMESA의 자유무역지대(FTA)는 2000년 10월 31일에 지부티, 이집트,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 등 9개 회원국이 1992년 채택된 관세 인하 일정에 따라 COMESA 원산지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서 달성되었다.⁸⁴⁾ 이것은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소와 궁극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1984년 시작된 무역자유화 일정에 따른 것이다. 부룬디와 르완다는 2004년 1월 1일 FTA에 가입했다. 이 11개국의 FTA 회원국은 관세를 철폐했고, 더불어 양적 제한 및 기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MESA의 관세동맹은 둘 이상의 관세 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통합 영역 간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무역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가 제거된다. 통합 영역에서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동일한 의무와 조치를 적용한다. 관세동맹을 준비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11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고, 연합 출범 전 실행이 필요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요약한 로드맵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관세동맹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아직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COMESA는 무역 촉진 달성을 돕기 위해 여타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우고 있다.⁸⁵⁾

- ① 무역자유화 및 관세협력(공동체 전체에 통합 전산화된 관세 네트워크 도입 포함)
- ② 국가 간 상품 서비스 및 인적 이동 용이를 위해 운송 및 통신 관리를 개선
- ③ 민간부문의 성장, 안전한 투자 환경의 구축 및 공통 표준의 채택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 및 법적 프레임워크 조성
- ④ 지역 전반에 걸친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의 조화를 달성

[표 2-22]는 COMESA의 통합 진행과 영향을 종합해 보여준다.

84) *Ibid.*, p. 18.

85) *Ibid.*, p. 18.

표 2-22. COMESA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구분	상태	현재(규치 수준)	현재(실시 수준)
자유 무역 지대	설립	2000년 10월 31일 합의 도달	역내무역 증가 중
관세 동맹	전환	2009년 관세동맹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시작	문서의 책정이나 위원회 설치 등 기술적인 측면은 진전이 보이지만 회원국 공동역외관세의 도입은 차이가 있음
공동 시장	전환	2025년까지 인력·물건·서비스·자본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인적 이동의 자유 우선 논의 진행, Visa Protocol은 준수 상황이 좋지 않고 Free Movement Protocol은 미발효
통화 동맹	준비	2018년까지 화폐동맹으로의 전환을 목표	Monetary Institute의 설립과 중앙은행의 통합에 대해 논의 중이나 진행이 느림. 전환 목표 시기에 현실성이 없음
정치 연방	목표 無	구체적 목표 설정 없음	-

자료: COMESA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아직 모든 COMESA 회원국의 FTA 및 관세동맹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에티오피아와 콩고민주공화국) 통일된 조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과제도 남아 있지만, 역내무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향한 진전이 보이고 있다. 비록 공동역외관세 도입은 회원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관세 동맹은 문서의 책정이나 위원회의 설치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인적 자유 이동에 관해서는 비자의정서(Protocol on Gradual Relaxation and Eventual Elimination of Visas)와 Free Movement 의정서(the Protocol on Free Movement of Persons, Services, Labour and the Right of Establishment and Residence)가 채택되어 있다.⁸⁶⁾ 그러나 전자는 회원국의 비준 후에도 이행 상황이 더디고, 후자는 비준국이 충분하지

86) COMESA 홈페이지, “Programmes - COMESA POLICY FOR IMMIGRATION”(검색일: 2021. 4. 26).

않아 발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공동시장의 전 단계인 관세동맹 이행 확보가 기대된다.

2) EAC

동아프리카 지역은 몸바사에 단일 세관 접수 지점이 설립된 1900년을 시작으로, 1917년 우간다와 케냐의 지역통합 이후 탄자니아가 1919년에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지역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독립 후 1967년 EAC가 설립되었지만 1977년 여러 요인으로 한차례 해체된 후 지역 발전에 대한 통합의 중요성을 인정한 케냐, 우간다 및 탄자니아는 2000년에 완전한 EAC 구성을 이루는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EAC 조약의 범위에는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분야가 포함되며, 통합 과정으로는 관세동맹을 시작으로 공동시장, 통화동맹 및 정치연방이 뒤따르는 점진적 방법을 따른다. EAC는 2010년 관세동맹 이행 기간이 완료되어 공동역외 관세(CET) 및 역내 공통의 원산지 규정의 도입을 실현하고 있다.⁸⁷⁾ 같은 해 공동시장의정서(Common Market Protocol) 발효로 주요 4개 지역경제공동체 중 유일하게 공동시장이 설립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역외관세는 상품에 대해 예외 조치를 인정하거나 민감품목 리스트(Sensitive List)에 의해 일부 상품에 25% 관세가 적용되는 등 예외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비스 노동자의 자유 이동 관련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공동시장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은 재개가 예상된다.

또한 동아프리카 여권(East African Passport)이 현재 회원국 국민의 역내 이동에만 이용되고 있지만 향후 역외로 이동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단계인 통화동맹(단일통화)의 실현을 향한 각국의 중앙은행을 정리할 위원회가 설립되어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책의 실시는 제한적이다. [표 2-23]은 EAC의 통합 진행과 영향에 대해 종합하였다.

87) Shepherd, de Melo, and Sen(2017), pp. i-ii.

표 2-23. EAC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구분	상태	현재(규치 수준)	현재(실시 수준)
자유 무역 지대	설립	2000년 EAC 설립 조약 발효.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에 의한 공동체 설립(르완다, 부룬디 2007년, 남수단 2013년 참가)	역내의 관세 철폐는 2010년에 완료
관세 동맹	전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 2005년 1월부터 EAC 관세동맹 발효. 르완다와 부룬디는 2009년 7월부터 발효	2010년 완료했지만, 공동역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지 않고 예외가 있음
공동 시장	전환	2010년 비관세장벽 철폐 공동무역 정책 등 실시. 같은 해 공동시장 의정서 발효 및 단계적 이행 예정	2010년부터 시작. 노동자의 단기 체류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논의 재개될 예정. East African Passport 도입
통화 동맹	준비	2010년부터 협상 개시, 2013년에 10년 이후 2023년까지 통화 통합을 위해 협력하는 조항을 포함한 의정서에 서명	로드맵 작성 및 위원회, Monetary Institute가 설립되었지만 10년 후까지 모든 국가의 보조가 갖추어지는 것은 어려울 전망
정치 연방	목표 無	구체적 목표 설정 없음	보안·대테러 및 조기경보 분야의 통합 검토. 다른 경제통합과 동시 병행으로 실시하거나 통화동맹 설립 후 진행할지 이견

자료: EAC 홈페이지, <https://www.eac.int/>(검색일: 2021. 4. 30).

3) ECOWAS

ECOWAS는 거시경제정책과 민간부문의 경제통합을 조화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ECOWAS 단일통화 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의 구현, 성과 및 거시경제 수렴의 모니터링 및 평가, ECOWAS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 및 다자감시시스템(ECOMAC) 관리, 기타 지역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ECOWAS는 새로운 단일통화인 ‘에코’ 도입을 결정했다. ECOWAS 전체에서 ‘에코’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동 통화 전환 조건으로 각국은 다음의 수렴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달성한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⁸⁸⁾

- ① 연간 인플레이션을 한 자릿수로 억제
- ② 재정적자를 GDP 대비 4% 이내로 감소
- ③ 재정적자비율이 전년도 세수의 10% 이내
- ④ 월평균 수입액의 3개월 이상 외환 보유액 확보

그러나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회원국 8개국(코트디부아르, 베냉, 부르키나파소,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을 제외하고 기타 ECOWAS 국가가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기준 ①과 기준 ②의 내용은 UEMOA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0.1~1%, 2018년의 재정적자는 평균 GDP 대비 3.9%지만, UEMOA 제외 ECOWAS 7개국의 같은 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9.9%~11.4%, 2018년의 재정적자는 평균 GDP 대비 4.4%였다.⁸⁹⁾ 또한 두 기준을 충족하는 비CFA 프랑 ECOWAS 국가인 토고와 기니를 제외하면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2%~13.8%, 재정적자는 평균 GDP 대비 5.8%가 된다. 이 상황을 감안하면 ECOWAS 전체에서 에코 도입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에코’ 도입은 UEMOA 국가의 식민지에서의 완전한 탈피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단계인 반면, 경제 면에서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통화 도입에 따라 지금까지 CFA 프랑에 대해 적용되고 있던 BCEAO의 프랑스 국고에 외환 보유고 예탁과 은행이사회에 프랑스 대표를 등록시키는 제도는 폐지된다. 따라서 UEMOA의 통화체제는 프랑스 정부의 관리에서 이전하고, UEMOA 회원국은 자립경제를 위한 통화 안정화가 요구된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유로 고정 환율로 교환을 계속 보장한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협정 등의 서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상황이다. 최근 2021년 9월 개

88) “West African Nations Rename Common Currency, Sever its Links to France”(2019. 12.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18).

89) AfDB(2019), p. 45.

최된 ECOWAS 정상회의에서 ‘에코’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하였다. 합의된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단일화폐인 ‘에코’의 정식 출범을 가질 예정이다.⁹⁰⁾ 그러나 ‘에코’ 도입에 적극적인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다르게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영어권 국가들은 금융시스템 안정화 등을 이유로 ‘에코’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회원국은 관세동맹 이행까지 자유무역을 역내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인 Trade Liberalization Scheme(ETLS)을 기반으로 통합이 진행되어왔다. 이 정표인 관세동맹 이행이 2015년에 달성됨에 따라 현재는 통합 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역외관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공동시장과 경제 통화동맹을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단계를 향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회원국 국민의 역내 타국에서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ECOWAS 여권이 이미 도입되었다. [표 2-24]는 ECOWAS의 통합 진행과 영향에 대해 종합한 것이다.

90) West African regional bloc adopts new plan to launch Eco single currency”(2021. 6.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4).

표 2-24. ECOWAS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구분	상태	현재(규칙 수준)	현재(실시 수준)
자유 무역 지대	설립	1979년부터 FTA가 추진되어 1990년부터 관세 철폐 과정 시작	예정보다 지연됐지만, 국내관세 철폐 진행
관세 동맹	전환	2015년 1월부터 대외공통관세 도입, 관세동맹으로 전환했음	이행 시작에서 진행은 불분명하나 회원국의 의 지는 강함
공동 시장	준비	2014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계 획, 새로운 목표 연도는 미정	ECOWAS 여권이 도입되어 인적 자유 이동은 진전
통화 동맹	준비	2020년까지 15개 회원국 모두 'ECO'를 도입한다는 목표 설정	'ECO' 도입 진행 느림.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UEMOA)은 CFA 프랑 도입 논의, ECOWAS 전체 통화 통합 2020년까지 달성 하지 못함
정치 연방	목표 無	구체적 목표 설정 없음	정전감시그룹 분쟁 예방·관리·해결·평화유 지·안보 메커니즘의 설치 계획

자료: ECOWAS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SADC

SADC는 2010년까지 역내 관세 철폐를 계획했지만 이행 기간이 지난 현재 까지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인 반면, 인프라 개발과 보통선거의 보급 등 지역개발 및 정치적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후속 통합의 단계도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통합 진행 정도가 다른 공동체에 비해 매우 느린 상황이다.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 달성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동시장의 단계는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역내 회원국의 국민이면서 공동시장 관련 인력인 경우, 모든 회원국에 비자 없이 90일 이내의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표 2-25]는 SADC의 통합 진행과 영향에 대해 종합한 것이다.

표 2-25. SADC의 단계별 통합 진행 현황

구분	상태	현재(규칙 수준)	현재(실시 수준)
자유 무역 지역	설립	자유무역지역은 2008년에 출범	역내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후속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
관세 동맹	준비	당초 2010년 전환을 목표	무역 의정서에 따라 2008년 전체 85% 관세 철폐 달성. 현재 나머지 25%에 대해 2012년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진행 중
공동 시장	준비	2015년까지 설립 목표, 진행 중	특히 서비스와 인적 자유 이동으로 일부 논의가 진행. 구체적인 공동 시장 설립에 관한 진척은 없는 모습
통화 동맹	준비	2018년 단일 통화 도입 목표	아직 논의 중으로 중앙은행과 환율, 인플레이션 등 기준 통일이 필요
정치 연방	목표 無	구체적 목표 설정 없음	안보, 분쟁 해결에 공동 정책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음

자료: SADC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주요 RECs의 통합 진행 및 영향력 평가

지역경제공동체의 통합 진행은 ‘예정된 규범에 통합 프로세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동체의 영향력은 ‘결정한 규범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를 [표 2-26]과 같이 도식했다. 지역경제공동체의 통합 과정은 ① 자유무역지대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경제통화동맹 ⑤ 정치연방의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자유무역지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된다. ② 관세동맹은 회원국이 역내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가에 공동 역외관세를 도입하여 공통의 관세정책을 취한다. ③ 공동시장에서는 인력·물건·서비스·자본의 네 가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④ 경제통화동맹은 단일 통화를 도입하고,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일체화한다. 마지막으로 ⑤ 정치연방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정책이 통합된다. 각 공동체의 통합 진행은 위 통합 과

정 중 회원국 간 합의로 어느 단계까지 설립 · 전환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EAC는 4개의 지역경제공동체 중 유일하게 공동시장이 설립되어 있다.⁹¹⁾ 그러나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예를 들어 서비스 노동자의 이동 자유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이 나뉘어 논의가 난항을 겪는 등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통화 통합의 실현을 위한 협의가 있지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실시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COMESA는 자유무역지대에 관해서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FTA의 실현을 통해 역내무역이 증가하는 등 비교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 향후 공동역외관세의 도입 완료가 기대된다.⁹²⁾ ECOWAS는 이정표였던 관세동맹으로의 전환이 2015년에 실현되어 회원국 간 통합을 위한 사기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관세동맹 설립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다음 단계를 향한 ECOWAS 여권 도입을 비롯한 인력의 자유 이동에 대한 통합이 진행되면서 단일통화 도입의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SADC는 계획의 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역내관세 철폐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통합 단계도 진행되지 않았고, 통합 진행은 다른 공동체와 비교해도 느린 상황이다.⁹³⁾

이러한 상황을 비교하면 4개의 공동체 속에서 EAC의 진척도 및 영향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COMESA와 ECOWAS, 마지막으로 SADC의 순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COMESA와 ECOWAS를 비교하면 준비 단계는 있으나 인적 자유 이동과 단일통화 도입 진전 등에서 ECOWAS가 다소 진행도가 높다는 점을 볼 수 있다(표 2-22 참고).

아부자 조약 이후 각 REC가 쌓아온 많은 노력은 확실히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 그러나 주요 공동체의 실행목표 대비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추진 중인 목표를 가로막는 난제는 정치, 경제, 사회 거버넌스 관련 문제들이 막아왔다. 그래도 최근까지 많은 진보가 있었으며, 1990년대와 비교해서는 차원이

91) 片岡 貞治(2018), pp. 141~142.

92) 위의 자료, p. 141.

93) 위의 자료, pp. 144~145.

다른 상황이다. 현재 각 REC의 통합 상황은 아부자 조약의 셋째 단계에 있으며 2021년 출범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예정이다.

표 2-26. 주요 RECs의 단계별 통합 진행 및 영향력 평가 요약

구분	목표 설정은 있지만 설립 및 진전은 미완	설립 및 진화 완료-이행수준 낮음	설립 및 진화 완료-이행수준 높음
EAC	자유무역지대		2000년 합의
	관세동맹		2010년 전환했지만 공동역외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지 않고 예외가 많음
	공동시장		의정서가 발효되어 2010년부터 공동시장 개시. EAC 여권의 도입 등 모든 인력·서비스의 이동에 진전이 있음
	경제통화동맹	2023년까지 통화 통합을 위한 협력 조항을 포함한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모든 국가가 이행하기는 어려울 전망	
	정치연방	구체적인 규칙 설정 자체가 없음. 보안·대테러 및 조기경보 분야의 통합 검토	
	자유무역지대		2000년 설립. 회원국 중 불참국이 있지만 역내무역은 증가
COMESA	관세동맹		2009년 이행 선언. 공동역외관세 도입 및 시행은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음
	공동시장	2025년까지 인력·물건·서비스·자본 이동의 자유 완전 달성을 목표	
	경제통화동맹	2018년까지 화폐동맹 전환을 목표로 한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이 느낌	
	정치연방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없음	

표 2-26. 계속

구분	목표 설정은 있지만 설립 및 전환은 미완	설립 및 전환 완료-이행수준 낮음	설립 및 전환 완료-이행수준 높음
ECOWAS	자유무역지대		1990년부터 관세철폐를 시도했으며 이행되고 있음
	관세동맹	2015년 1월부터 공동역외관세가 도입된 관세동맹으로 전환했지만, 본격적인 이행은 다소 미흡	
	공동시장	2014년까지 설립을 목표했지만 지연된 상황. ECOWAS 여권 도입 등 인적 자유 이동 진전	
	경제통화동맹	'ECO' 통화 도입, 일부 국가에서 CFA 프랑 사용 유지 중	
	정치연방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없음	
SADC	자유무역지역	2008년에 출범, 역내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후속 통합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상황	
	관세동맹	2008년에 발족, 2010년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85%에 대한 관세철폐를 완료하고 나머지 25%에 대한 관세 철폐를 진행 중	
	공동시장	2015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미설립. FTA 이후 다음 단계로 진행 예정	
	경제통화동맹	2018년 단일 통화 도입, 통화동맹 등에 대해 논의가 있지만,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음	
	정치연방	구체적인 목표설정 없음	

자료: [표 2-22]부터 [표 2-25]까지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

4.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

2015년 6월, 아프리카 경제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 두 개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하나는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에 소재하는 세 개의 지역경제공동체(COMESA, EAC, SADC)를 통합하여 ‘카이로에서 케이프까지’를 포함하는 3자 자유무역지역(TFTA)을 시작하는 기본 협정이 채택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CFT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형성을 위한 공식 협상 개시가 선언된 것이다.⁹⁴⁾ CFTA는 AfCFTA로 발전하여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를 지렛대로 하여, 아프리카의 경제통합 가속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듯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역별 경제통합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역내무역 활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관세장벽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아프리카 경제통합의 실질적인 진전을 막고 있는 요인 중 경제통합을 지원하는 제도에 주목하면, 첫째,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실시 단계에서 각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 둘째, 자유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해결 수단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회원국의 공동체 중복 가입으로 여러 관세율이 존재하는 제도적·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여러 지역경제공동체를 포괄하는 3자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은 이러한 제도적인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어서 무역자유화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경제통합의 특징에 의한 제도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는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1991년에 아프리카연합의 전신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정상회의에

94) 그러나 남아공, 탄자니아 등 일부 국가들은 TFT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경제규모 등에 있어 본래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

서 채택된 아부자 조약은 아프리카 국가가 2028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의 단일 통화를 도입,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 창설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먼저 작은 단위의 지역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점진적으로 이들 지역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형태로 AEC의 창설을 위한 접근법을 보였다. [표 2-27]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로, 6개의 단계가 예상된다.⁹⁵⁾

1단계에서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지역경제공동체의 강화와 지역경제공동체가 없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지역경제공동체 설립, 2단계에서는 지역경제공동체 간 노력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각 지역경제공동체 내의 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대처가 이루어졌다. 3단계에서는 각 공동체 내에서의 FTA와 관세동맹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이다. 4단계에서는 지역경제공동체 간의 관세 시스템 및 비관세장벽의 조정과 대륙관세동맹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후 5단계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공동시장의 설립, 6단계에서는 지역 간 통화 · 경제동맹 및 범아프리카의회의 설립에 임할 예정이다.⁹⁶⁾

표 2-27. 아부자 조약의 아프리카 대륙 통합 프로세스

1단계	1994~99	기존 지역경제공동체 강화 및 공동체가 없는 지역에서의 신규 설립
2단계	2000~07	지역경제공동체 간 활동의 조화 및 역내 관세 · 비관세장벽 단계적 철폐
3단계	2008~17	각 지역경제공동체에서의 FTA 및 관세동맹의 설립
4단계	2018~19	지역경제공동체 간의 관세 시스템 및 비관세장벽의 조정 및 대륙관세동맹의 설립
5단계	2020~23	대륙공동시장의 설립
6단계	2024~28	대륙 통화 · 경제동맹 및 범아프리카의회의 설립

자료: OAU(1991), Article 6.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2년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에서는 3단계 기준 연도인 2017년까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CFTA)를 설립하는 구상이 마련되

95) 箭内彰子(2017), pp. 93~94.

96) 위의 자료, pp. 93~94.

었다. CFTA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COMESA · EAC · SADC 블록’, ‘ECOWAS · ECCAS · AMU · CEN-SAD 블록’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논의되었다.⁹⁷⁾

2015년 6월 COMESA · EAC · SADC 블록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보다 많은 6억 2,500만 명의 인구를 포함하는 TFTA 설립 합의에 서명했다. 이 서명에는 ① 자유무역특구의 설립 ② 교통부 및 무역의 촉진, 그리고 ③ 인프라 개발 등 세 가지를 우선 시책으로 두고 있다. 현재 남아공 등 일부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20개국에 참여하고 있다.⁹⁸⁾

ECOWAS · ECCAS · AMU · CEN-SAD 블록은 2013년 12월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인프라, 산업화, 무역자유화, 자유 이동, 평화와 안전 분야에서의 통합이 제안되었다. 선행하는 TFTA를 모방하여 지역경제공동체 간의 자유무역권의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지만 아직 진전은 없다.

지역경제공동체의 역내 통합을 방해하는 과제는 크게 ① 협약 · 의정서의 국내 법제화 및 이행 ② 비관세장벽 ③ 사무국의 운영 ④ 치안 정세 ⑤ 기타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리하면 [표 2-28]과 같다.⁹⁹⁾

표 2-28. RECs가 안고 있는 과제

협약 · 의정서의 국내 법제화 및 이행	지역 수준의 결정 사항들이 회원국에 의해 이행되지 않음
비관세장벽	검문절차 등 관세 이외의 다양한 수단이 자유무역 방해
사무국의 운영	조직 구조, 재정, 인적 자원 등에 한계가 있음
치안 정세	일부 국가 정치불안 및 이슬람 과격파 조직 활동이 있음

자료: Hailu(2015), pp. 21-24.

97) Olayiwola(2020), pp. 10-12.

98) *Ibid.*, pp. 10-12.

99) 經濟産業省(2017), pp. 25~2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4).

가. 협약·의정서의 국내 법제화·이행에 소요되는 과제와 시책의 예

협약·의정서의 국내 법제화·이행은 어느 공동체에도 공통적으로 ‘지역 내 격차’, ‘역내 예외 품목 설정 및 자국 산업의 보호’, ‘주권·법적 구속력의 결여’, ‘준수 여부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1) 지역 내 격차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산업발전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가는 협약·의정서의 이행이 진행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역내의 격차는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경제통합에 있어서 큰 과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ECOWAS는 나이지리아 같은 경제 대국이 지역경제공동체의 통합 과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행도 진행되고 있지만, 내륙 국가인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등은 정정 불안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통합과 관련한 이행도 느리다. SADC에서도 남아공 및 기타 국가에서 격차가 나타난다.¹⁰⁰⁾

2) 예외 품목 설정 및 자국 산업 보호

예외 품목의 설정에 대해 예를 들면, EAC는 ‘Stay Application’이라는 예외 조치가 있다. 설탕 등 상품들이 국내에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빠졌을 경우, 회원국은 공동역외관세의 적용에 임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치이다.¹⁰¹⁾ 또한 ECOWAS는 수입금지 품목리스트(Import Prohibition List)가 설정되어 있으며, ECOWAS 사무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수입을 금지

100) ECOWAS의 경우 인구 측면에서 가장 많은 나이지리아는 2억 명을 넘는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카보베르데는 인구가 55만 명에 불과하다. 또한 SADC의 경우 남아공의 경제규모는 3,200억 달러인 반면, 상투메프린시페의 경제규모는 45억 달러에 불과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2021), IMF(2021) 등 참고.

101) EABC Brief on EAC Gazette(2020).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이러한 예외 품목 설정이 있어 지역경제공동체 수준에서
서의 결정이 회원국에 의해 반드시 통일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한다.

3) 주권 및 법적 구속력 부족

지역경제공동체에 참가하고 있으면서도 통합 과정에 소극적인 국가도 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는 COMESA 회원국이지만 이 공동체의 FTA에 참가하
지 않았다. 회원국이 협약·의정서에 비준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
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는 회원국에 대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준은 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서 각국이 국내 법제
화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국내 절차로 인해 실질적 통합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4) 준수 여부 관리 부족

각국의 협약·의정서의 준수 여부는 반드시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보고·정보공개제도가 부재하다는 것도 과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 공동체는 회원국의 이행을 관리하고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EU의 지원으로 COMESA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 통합
지원 메커니즘(Regional Integration Support Mechanism)에서는 회원국
자신이 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를 달성했을 때 EU로부터 자금을 제공받기 때
문에 회원국의 이행 동기가 형성된다. EAC와 SADC에서는 각국의 이행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East African Common Market Scorecard 2014(EAC Common
Market protocol 이행 상황의 관리를 목적으로 683개 품목 관련 국내 법규를
확인한 것)와 Self-Monitoring System(회원국이 SADC 사무국에 보고서를 제
출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¹⁰²⁾ 단 SADC에서는 각국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자
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표 2-29 참고).

102) EAC(2014), "East African Common Market Scorecard"(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표 2-29. 협약·의정서의 국내 법제화 및 이행에 소요되는 과제와 시책 예

역내 격차	모든 회원국이 통합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발전국가와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이행이 진행되는 등 역내에서 격차가 있음
예외 품목 설정 및 자국 산업 보호	자국의 경제에 중요한 상품에 대한 공통 정책의 적용 제외를 인정하는 조치가 존재함
주권·법적 구속력 부족	회원국 주권을 내세워 지역 기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공동체는 구속력이 없어 지역 수준에서의 합의가 각국에서 국내 법제화하기까지 시간을 요함
준수 상황 관리 부족	통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공개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자료: Hailu(2015).

각 공동체의 시책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준수 상황의 공개를 위해 Score Card를 작성한다(IFC·EU, TMEA 등에 의한 지원)

- COMESA: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Mechanism(회원국이 스스로 합의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경우 EU로부터 재정적 지원 공급을 받는 제도)이 도입되어 있다.¹⁰³⁾
- EAC: 의정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지원(Trademark East Africa의 산업화 및 가치사슬 개발전략, 세관관리시스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전자화물 추적시스템 등)을 한다.¹⁰⁴⁾
- ECOWAS: 현재 관세동맹의 설립을 계기로 통합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통합에 적극적인 국가들을 모아 그 국가가 타국에 선행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채택했다.
- SADC: 자발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Self-Monitoring System을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하에서 회원국은 연말 의정서의 이행 상태 상황을 SADC 사무국에 보고한다.

103) COMAID, “The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Mechanism(RISM)”(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104) TRADE MARK EAST AFRICA(TMEA) 홈페이지, “TMEA in EAC”(검색일: 2021. 8. 20).

나. 비관세장벽과 시책 예

지역경제공동체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주요 비관세장벽은 ‘행정 서류 절차’, ‘회원국과 기업의 낮은 인식’, ‘검문의 중복’, ‘문제 공유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기준의 차이, 인프라 미정비, 부패 등도 무역역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⁰⁵⁾

1) 행정 서류 절차

절차 통관 시에는 일반적으로 식품 위생, 출입국 관리, 관세 등 다른 담당 부처가 관련되어 여러 서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 예로는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국경 포스트(OSBP: One Stop Border Post)를 들 수 있다. OSBP의 도입으로 지금까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국가가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출입국 및 세관 행정 서류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진행함에 따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¹⁰⁶⁾ 또한 관료주의가 모든 통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사례(예를 들어, 냉장 제품을 실은 트럭과 빈 트럭이 혼재하여 줄서 있을 때, 절차가 적은 빈 트럭도 장시간 기다리게 되는 등의 사례)도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화물별로 다른 레인을 만드는 등의 기술 지원을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

2) 회원국과 기업의 낮은 인식

다양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도 현장 수준에서는 회원국의 공무원과 기업이 공동체의 합의를 이해하지 않고 잘못된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05) 経済産業省(2017), p. 27(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4).

106) JICA, “Focus on African Development (TICAD V) - One Stop Border Post”(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공동체에서 합의된 관세율이면 해당 국가도 합의를 비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인식 부족으로 올바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기업의 담당자도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례, 원산지 규정을 받지 않은 통관 절차 때문에 FTA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SADC는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Southern Africa Trade Hub라는 무역 관련 정보 공유 포털을 지역 수준, 국가 수준에서 구축하고 있다.¹⁰⁷⁾

3) 검문의 중복

현재는 트럭이 육로로 제품을 운송할 때 역내에서 여러 번 검사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ECOWAS 역내인 가나에서 토고를 통과하여 나이지리아까지 제품을 운반할 때, 토고 로메에서 화물을 내리고 검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에 입국할 때 다시 화물을 검사한다. 이러한 절차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에 비용이 추가된다. 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ECOWAS는 트럭 화물 정보 IT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국의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또한 화물의 봉인(Sealing)에 번호를 지정하고 일단 화물이 통관되면 번호가 무효가 되는 구조를 도입, 수송 중의 부정확한 적재·하역을 방지한다. 이에 따라 검문 횟수가 감소되어 역내 이동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⁰⁸⁾

4) 문제 공유의 어려움

관세장벽(수입 억제제를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과 비교하면 비관세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외국 상품을 차별하게 만드는 조치 또는 수단)은

107) USAID, "USAID Southern Africa Trade and Investment Hub"(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1).

108) 経済産業省(2017), p. 28(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4).

현장 수준에서 경험·공유되더라도 국가 간의 토론회에서 표면화하기 어렵다. COMESA, EAC, SADC는 현장 인력이 비관세장벽의 품목을 검사할 때 모바일을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보고된 비관세장벽은 공동체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대책이 검토된다.

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과제와 시책 예

지역경제공동체에 공통으로 보이는 사무국의 과제는 ‘제한된 역할’, ‘예산 부족’, ‘인재’(인원 부족, 기술 부족)를 들 수 있다.

1) 결정적인 역할

협약·의정서의 국내 법제화·이행에 소요되는 과제와 시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이 협약·의정서의 국내 법제화·이행에 소극적이어도 사무국은 회원국의 조정 역할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국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또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회원국에 맡겨져 있다. 예를 들어, EU-EAC 사이의 EPA 협상에서 EU 측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대표가 참석했지만, EAC 측은 사무국 대표의 권한이 없으므로 EAC 대표가 아니라 각 회원국 대표가 참석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ECOWAS는 2007년에 사무국위원회(Commission)가 개편된 프로그램의 시행을 담당하게 되었다.¹⁰⁹⁾

2) 예산 부족

공동체는 예산의 약 50%~70%를 주요 선진국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의 기부금 납부가 종종 지연되어 사무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기증자는 지원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예산 관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기술적인 지원을 통한 해

109) 위의 자료, p. 29.

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EAC는 Trade Mark East Africa(TMEA)에서 인력이 파견되어 예산 관리·회계·위험 평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른 이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상회의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3) 인재

인재 과제는 인원 부족과 기술 부족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규 직원의 인원수가 부족하고, 계약직 컨설턴트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유럽위원회와 비교하면 COMESA의 직원은 252명으로, 상당히 적은인력으로 유럽위원회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기증자가 사무국에 컨설턴트를 파견, 인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컨설턴트의 계약은 단기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인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무국 측은 제어하기 어렵고, 업무 내용을 원활하게 인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직원의 능력 부족도 큰 과제이다. 인재 과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위원회에 능력 향상을 비롯해 기증자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¹¹⁰⁾ 사무국 운영에 관한 과제와 시책의 예는 [표 2-30]과 같다.

110) 위의 자료, p. 309.

표 2-30. 사무국 운영에 관한 과제와 시책 예

구분		과제	시책 예
제한된 역할		사무국은 회원국 조약 또는 의정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	Secretariat에서 Commission로 조직을 변경하고 프로그램 실시를 담당하게 되었음[ECOWAS]
	예산 부족	가증자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 회원국 회비는 납부가 종종 연기되기도 함	예산 관리 및 회계 관리, 위험 평가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음(TMEA가 지원)[EAC] 사무국 내에서 불필요한 회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상회의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TMEA, EU 등이 지원)[EAC]
인 력	인원 부족	정규 직원의 수는 충분하지 않고, 컨설턴트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컨설턴트는 단기 취업 계약으로, 업무 내용 파악에 어려움 있음	사무국 능력 증대를 위해 가증자 기관에서의 인재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COMESA, EAC, ECOWAS]
	기술 부족	숙련된 인재 채용 어려움	

자료: Hailu(2015).

라. 치안 상황

치안 정세에 관련한 우려의 예로는 수단(남북), 에리트레아, 부룬디, DR콩고의 정치 불안과 소말리아의 알-샤바브,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등 급진 이슬람 조직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공동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과격파 조직 알-샤바브가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 치안 문제는 동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의 해결 과제로 간주되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으로 2007년 2월 이후부터 아프리카 연합소말리아미션(AMISOM)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부룬디와 에티오피아에서는 국가 내부의 종족갈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치안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해 EAC는 평화적 협상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는 2012년부터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군사 충돌이 있어왔지만, 2013년에 SDAC의 중재로 전투행위 종결이 선언된 바 있다. 그러

나 동부 국경지대의 치안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COMESA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과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의 산업화를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광물자원에 의한 분쟁의 예방을 목표로 치안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에는 COMESA와 대호수국가경제공동체(CEPGL: Economic Community for the Great Lakes Countries) 사이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¹¹¹⁾

마. 기타 과제와 시책 예

기타 과제로 ‘회원국의 중복’, ‘기증자 간의 조정’, ‘기증자의 원조정책’, ‘상이한 언어권’ 등을 들 수 있다.¹¹²⁾ COMESA, EAC, SADC의 조사에서는 회원국들이 여러 공동체에 중복으로 소속되어 있는 문제를 과제로 지적했다. EAC 회원국인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중 탄자니아는 SADC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국은 COMESA에도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세율과 다른 방향의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세율이 다를 경우의 해결 방법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3개의 공동체는 2015년 6월에 TFTA에 서명한 바 있어 점차 개별 공동체 간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회원국 중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AC는 복수로 존재하는 기증자 간 지원정책의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EAC에는 EU,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JICA, TMEA,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등의 많은 기증자가 존재하지만, 현재는 기증자 간 조정역이 없고 프로젝트마다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는 등 체계적이지 않다. 최근 EAC 사무총장과 기증자들 간 고위급 정치 대화로 지원의 방향성을 논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¹¹³⁾

111)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은 일반적으로 Lake Victoria, Lake Tanganyika, Lake Malawi, Lake Turkana, Lake Albert, Lake Kivu, Lake Edward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이 호수를 둘러싼 DR 콩고, 부룬디, 르완다, 우간다 지역을 대호수 지역이라고 부른다.

112) 經濟産業省(2017), p. 32(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4).

ECOWAS는 인프라 투입 자금이 부족하여 하드웨어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나, 실제로 기부자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측면에 지원하고 있다(전체의 60~70% 정도가 소프트웨어에 지출되고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기증자 측과 Win-Win 관계 구축을 위해 ECOWAS는 전략적 제휴 틀(Strategic Alliance Framework)을 만들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¹¹⁴⁾ [표 2-31]은 기타 과제 관련 시책의 예를 정리한 것이다.

표 2-31. 기타 과제 관련 시책 예

구분	과제	시책 예
회원국 중복	여러 지역경제공동체에 가입한 국가는 한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세율과 다른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세율이 다를 경우 해결 방법이 없음	COMESA, EAC, SADC 간 TFTA 설립 논의에서 대책을 생각할 수 있음. 3개 기관의 통합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결될 전망
기증자 간 조정	다수 존재하는 기증자를 조정하는 사람이 없고 기증자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기증자 간 조정을 위한 사무총장과 기증자와의 고위급 정치 대화로 지원의 방향성을 논의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원조정책과 요구 불일치	기증자의 원조정책이 ECOWAS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기증자와의 Win-Win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 틀을 만들었음. 이 틀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
상이한 언어권	역내를 언어권으로 분류하면 영어권, 프랑스어권, 포르투갈어권 등 3개 블록으로 구분되어 이들 간의 언어 장벽이 존재함	명확한 시책은 보이지 않음

자료: Hailu(2015).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2021년 1월 1일 공식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아프리카는 GDP 2조 5,000억 달러, 인구 12억 명 이상, 그리고 55개 회원국을 지닌 세계 최대 단일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는 정문 22조항에 근거하여 비준국이 22개국을 넘는 시점부터 한 달 후인 2019년 5월 30일 정식 발표되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현재 아프리카연합 회원 55개 국가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54개국이 협정에 서명을 완료하였고

113) 위의 자료, p. 33.

114) ECOWAS Commission(2014), pp. 3~4(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5).

이 중 38개국이 아프리카연합에 비준서를 기탁한 상태이다.¹¹⁵⁾

당초 2020년 7월 1일 공식 시행을 목표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어 2021년 1월 1일에 공식 개시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 발표한 시행도 AfCFTA 협정의 공식 시행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아직 본격적인 상품 관세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는 등 다양한 유예로 실제적인 시행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¹¹⁶⁾

최빈국을 제외한 일반 회원국은 5년, 최빈개도국은 10년에 걸쳐 90%의 관세선 자유화를 목표로 관세자유화 방식을 채택했다. 민감품에 대한 비율은 협상 대상 관세선 전체의 7%를 초과할 수 없으며 관세 철폐는 6년차부터 시작된다. 일반 회원국은 90%의 자유화가 시작된 2021년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내, 최빈국은 13년 이내의 민감한 제품을 자유화해야 한다. 제외품 목록은 5년마다 협상 및 검토 대상인 아프리카 내 수입액 한도가 10%를 넘지 않는 총 관세선의 3%를 초과할 수 없다.¹¹⁷⁾

AfCFTA 회원국은 2021년 6월까지 관세율표 및 원산지 규정 제출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현재 원산지 규정의 약 90%가 합의된 상태이고 나머지 10%는 7월 완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 일부 국가들은 원산지 규정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합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다. SACU, ECOWAS 등 아프리카 주요 관세동맹에 소속된 국가들이 모두 비준을 마쳐야 실제 수행이 가능하여 관세동맹국 간 동일 수준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¹¹⁸⁾

115)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6. 14), 「2021년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0).

116) 정미성 외(2020), p. 5.

117) Africa Union, "The Schedules of Tariff concessions"(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30).

118) 정미성 외(2020), p. 5.

표 2-32. AfCFTA하 관세철폐계획

구분	최빈국	그 외
관세자유화	90%	90%
	10년간 단계적	5년간 단계적
민감품목	7%	7%
	13년간 단계적	10년간 단계적
	현 수준을 첫 5년간 유지, 6년 차부터 하락	현 수준을 첫 5년간 유지, 6년 차부터 하락
제외품목	3%	3%

자료: AU 홈페이지(검색일: 2021. 8. 30)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앞에서 언급했듯이, 2021년 1월 1일 AfCFTA가 공식 개시함에 따라 아프리카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아프리카경제 복원력이 타 대륙 국가들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AfCFTA가 아프리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아프리카 인구는 2025년에 15억 명, 2050년에는 2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아프리카인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는 AfCFTA 출범으로 세계 최대 단일화 시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기업의 아프리카 비즈니스 강화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 가지 예로, 남아공에 생산 거점을 가진 국내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남아공에 생산기반을 두고 남아공이 속한 SADC 역내에서만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AfCFTA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남아공에서 활동 중인 한국기업들은 나이지리아와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즉 특정 경제블록으로만 진출해왔던 대아프리카 사업이 대륙 전체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향후 사업 확대나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한국기업에게도 매력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AfCFTA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RECs의 활용이 유효할 것이다. 특히 기존 RECs 중 무역자유화도가 높고 일정

시장규모를 갖춘 지역을 우선 지역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역자유화도 높은 REC는 EAC, ECOWAS, COMESA, SADC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AC가 우선 진출 지역으로 고려되지만, 한국 기업의 교역 및 투자 우선 지역은 SADC라는 점에서 개별 국가들의 경제 및 시장규모, 그리고 국내 교역 제품들의 특성 등에 따라 우선 진출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주요 거점 국가 선정에 있어 무역자유화도가 높은 국가 및 주요 REC의 회원국들 중 경제 및 시장규모,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인프라 등이 비교적 잘 갖추어진 국가들을 우선 대상 국가로 고려하여 연구·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 일본기업들 역시 기존 REC의 FTA 등을 활용한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회(JETRO)가 2018년에 아프리카에 진출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303개사 중 약 20%의 55개 기업이 아프리카 REC의 FTA를 이용하고 있으며, 62개 기업은 향후 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⁹⁾ 이처럼 최근 AfCFTA의 공식 개시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의 역내 및 대륙 내 경제통합에 대한 의지가 더욱 높아진 가운데, 기존 REC의 영향력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존 REC와 협력 및 진출을 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119) JETRO, “아프리카대륙자유貿易圈(AfCFTA), 設立協定が發効、運用開始に向けて前進”(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0).

제3장



주요 RECs의 산업협력 및 구조분석

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
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



제3장에서는 UN Comtrade 데이터, CEPII에서 제공하는 Gravity 자료, Polity V 지수와 프리덤하우스 지수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주요 지역경제공동체가 각국의 교역량과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중력모형을 활용한 교역량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교역파트너 선정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분석한다. 특히 지역경제공동체를 통한 협력 여부가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조사한다. 다음은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분석하여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의 지역경제공동체 내 동질성(synchronization) 정도를 고찰한다.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협력관계 강화와 통합이 구현되고 있는 지역은 경제구조의 동질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지역경제공동체의 통합 효과가 적은 지역은 동질성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즉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정도를 분석하여 지역경제공동체가 각 회원국에 미치는 산업 및 무역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밝힌다.

1. 중력모형을 활용한 RECs 영향력 분석

본 장에서는 중력모형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회원국의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내교역의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회원국 간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가. 중력모형

중력모형은 국제무역 연구자들 사이에서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중력모형은 [식 3-1]과 같다.

$$\begin{aligned} \log X_{ij} &= c + b_1 \log GDP_i + b_2 \log GDP_j + b_3 \log \tau_{ij} + e_{ij} \quad \cdots \cdots \cdots [\text{식 3-1}] \\ \log \tau_{ij} &= \log(\text{distance}_{ij}) \end{aligned}$$

X_{ij} 는 국가 i 로부터 국가 j 로의 수출을 뜻하며, GDP는 각국의 국민총생산, 거리는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를 뜻하며, 무역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중력모형은 이에 더해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위 모형에 추가하여 국제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유연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EAC, ECOWAS, COMESA, SADC 등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회원국의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나. 자료

중력모형을 통해 4개의 아프리카 지역경제협력공동체 회원국 42개국을 대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역량 자료는 UN Comtrade 자료를 사용하여, 아프리카의 42개국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아프리카의 42개국이 전 세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분산지수 분석과 마찬가지로 결측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에는 42개 회원국이 교역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교역 파트너로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단위는 42개 회원국과 교역국 간의 양자관계이다. 기본 변수로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민총생산 자료는 CEPII에서 제공하는 Gravity 자료의 2015년 측정치를 활용하였다. 이 기본 자료에 4개의 아프리카 지역경제협력공동체인 EAC, ECOWAS, COMESA, SADC의 회원국 여부를 확인하여,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동일 지역

경제협력공동체의 회원국인 경우를 표기하였다.

국제교역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경제규모와 거래비용 등 경제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국제교역량을 분석 및 예측한다. 국가 간의 교역은 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주로 받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세계 무역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가들과 비교할 때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요인 또한 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EPII 자료¹²⁰⁾를 활용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이 동일한 언어와 인종을 공유하는 경우, 동일한 국가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경험을 가진 경우, 그리고 공동의 종교를 가진 경우를 따로 측정하였다.

이에 더해 국제 정치경제 분야에서 국제교역을 분석할 때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는 정치체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권위주의 체제와 비교할 때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국제무역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자유는 결국 경제적 자유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이 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¹²¹⁾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집약적 산업이 확장되면서 주요 수출산업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노동자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무역장벽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¹²²⁾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민주주의와 국제무역의 상관관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일군의 연구들은 제3의 민주화의 물결 이후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교역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¹²³⁾ 반면 아프리카의 경우 민주주의와 국제교역이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¹²⁴⁾ 경험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연구¹²⁵⁾ 또한 존재한다.

120) CEPII(2021), "Gravity(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5).

121) Balding(2011), pp. 585-603; Mansfield, Milner, and Rosendorff(2000), pp. 305-321.

122) Milner and Kubota(2005), pp. 107-143.

123) Azu and Muhammad(2020), pp. 293-303; Banerji and Ghanem(1997), pp. 171-194.

124) Fankem(2018), pp. 139-167, 번역: Cadenza Academic Translations(2018), pp. 129-156.

이 연구에서는 정치체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Polity V 지수와 프리덤하우스 지수를 사용하였다. Polity V 지수는 -10에서 10까지의 범위에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측정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프리덤하우스 지수는 1에서 7까지의 범위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다. 분석

1) 기초 통계

본 장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3-1.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1) 종속변수: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출액 2(백만 달러)	3,738	47,747,142	283,054,138	0	6,826,593,431
거리 2	3,738	6,255.560	3,510.057	162.182	18,556.120
국경공유	3,738	0.036	0.186	0	1
아프리카 42개국 GDP 2(십억 달러)	3,662	65,607,178	112,424,176	565,690	481,066,156
교역대상국 GDP 2(십억 달러)	3,589	729,059,509	2,167,081,148	565,690	18,036,648,051
ECOWAS	3,738	0.039	0.194	0	1
COMESA	3,738	0.059	0.236	0	1
SADC	3,738	0.042	0.201	0	1
EAC	3,738	0.005	0.073	0	1
동일언어/인종	3,738	0.213	0.410	0	1
동일국 식민지배	3,738	0.163	0.370	0	1
동일종교	3,738	0.155	0.199	0	0.992

125) Blanton and Blanton(2001), pp. 275-295.

표 3-1. 계속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아프리카 42개국 POLITY 5	3,738	3.657	4.892	-9	10
교역대상국 POLITY 5	3,725	4.212	6.204	-10	10
아프리카 42개국 프리덤하우스 점수	3,738	3.954	1.628	2	7
교역대상국 프리덤하우스 점수	3,556	3.451	2.008	1	7

(2) 종속변수: 아프리카 국가의 수입

	표본크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출액 2(백만)	4,650	77,351,543	456,738,059	2	13,411,080,076
거리 2	4,650	6,492.974	3,463.141	53.591	19,396.300
국경공유	4,650	0.029	0.167	0	1
아프리카 42개국 GDP 2(십억 달러)	4,563	59,916,425	110,495,324	565,690	481,066,156
교역대상국 GDP 2(십억 달러)	4,437	621,432,745	1,969,188,681	565,690	18,036,648,051
ECOWAS	4,650	0.033	0.179	0	1
COMESA	4,650	0.051	0.219	0	1
SADC	4,650	0.035	0.185	0	1
EAC	4,650	0.004	0.065	0	1
동일언어/인종	4,650	0.188	0.391	0	1
동일국 식민지배	4,650	0.151	0.358	0	1
동일종교	4,650	0.156	0.203	0	0
아프리카 42개국 POLITY 5	4,650	3.630	4.859	-9	10
교역대상국 POLITY 5	4,621	4.239	6.273	-10	10
아프리카 42개국 프리덤하우스 점수	4,650	4.007	1.613	1.5	7
교역대상국 프리덤하우스 점수	4,445	3.435	1.995	1	7

2) 분석결과

중력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를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로 두고 최소제곱법(OLS)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국민총생산, 물리적 거리, 국경 공유 여부를 포함한 기본 모형에 언어적 배경, 식민지 경험, 종교 등을 포함시킨 모형이다. 거리가 멀수록 무역량이 줄어들고 국경을 공유하는 이웃일수록 무역량이 늘어나며 양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교역이 늘어나는 등 중력모형의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더해 수출대상국과 언어와 인종을 공유할수록 수출이 늘어나며, 동일 국가로부터 식민지배를 받은 경험을 가진 경우에도 수출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종교적 배경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4개의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모두 동일한 공동체 회원인 경우 1로, 나머지는 0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변수들은 모형 1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EAC, ECOWAS, COMESA, SADC 모두 계수가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동체가 회원국 간 교역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변수를 포함시키자 상대국과의 물리적 거리, 그리고 국경 공유 여부의 영향력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경제공동체 변수가 교역 상대국과의 물리적 거리와 국경 공유 여부 변수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3과 모형 4는 기본 모형에 경제공동체 회원 여부 이외에 교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모형 3에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수출대상국의 Polity V 지수를 포함하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질수록 수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형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무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자유는 결국 경제적 자유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민주주

의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증시하고 정부의 질이 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이 수출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의 Polity V 지수는 음의 부호를 보여주었다. 수입하는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프리카로부터의 물품 수입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Polity V 지수를 포함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공동체 변수는 모형 2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모형 4에서는 Polity V 지수 대신 프리덤하우스 지수를 포함하였다. 아프리카의 수출국의 프리덤하우스 지수의 경우 계수가 음의 부호를 띠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 지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 결과는 Polity V 지수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의 수출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프리덤하우스 지수의 경우 수입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3과 마찬가지로 모형 4에서도 지역경제공동체 변수는 회원국들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를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들의 수입액으로 상정할 경우 분석결과는 상당 부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의 물리적 거리, 국경 공유 여부, 각국의 경제규모, 지역경제공동체 회원 여부 등의 변수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검토한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Polity V 지수의 경우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 3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입액 또한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수출국의 Polity V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리덤하우스 지수의 경우에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모두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Polity V 지수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수입국들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 수입액이 늘어나고, 동시에 수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수입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과 함께 노동집약적 산업이 확장되면서 주요 수출산업으로 등장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노동자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무역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에서 보호하는 정치적 자유는 결국 경제적 자유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처럼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증시하고 정부의 질도 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장벽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지역경제 공동체 회원국들과 한국의 물리적 거리, 국경공유 여부, 언어 및 인종적 배경, 식민지배의 경험, 종교 등은 기본적으로 교역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역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구조적 제약요건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이 아프리카와의 교역을 늘려나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 또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프리카에서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을 중심으로 교역을 늘려가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들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Polity V 지수와 프리덤하우스 지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수출과 수입 모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을 전략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표 3-2. 중력모형 분석결과

(1) 종속변수: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19.590*** (1.304)	-26.373*** (1.474)	-26.129*** (1.476)	-22.916*** (1.444)
거리 2	-1.695*** (0.095)	-1.178*** (0.109)	-1.281*** (0.110)	-1.508*** (0.111)
국경공유	2.218*** (0.334)	1.467*** (0.347)	1.409*** (0.343)	1.366*** (0.337)
수출국 GDP 2 (백만 달러)	0.901*** (0.038)	0.954*** (0.038)	0.959*** (0.037)	1.012*** (0.038)
수입국 GDP 2 (백만 달러)	1.005*** (0.029)	1.039*** (0.028)	1.052*** (0.029)	1.036*** (0.030)
EAC		2.040** (0.760)	2.005** (0.753)	1.962** (0.737)
ECOWAS		2.347*** (0.328)	2.167*** (0.330)	1.805*** (0.325)
COMESA		0.993*** (0.245)	1.079*** (0.243)	1.308*** (0.239)
SADC		2.190*** (0.294)	2.023*** (0.294)	1.679*** (0.290)
수출국 Polity V			0.091*** (0.011)	
수입국 Polity V			-0.022* (0.009)	
수출국 FH				-0.460*** (0.033)
수입국 FH				-0.054 (0.030)
동일언어/인종	0.802*** (0.140)	0.747*** (0.138)	0.684*** (0.138)	0.701*** (0.136)
동일국 식민지배	0.464*** (0.157)	0.391* (0.156)	0.264 (0.156)	0.189 (0.157)
동일종교	0.230 (0.287)	0.395 (0.284)	0.3788 (0.282)	0.703* (0.282)
표본크기	3512	3512	3500	3332
Adjusted R-squared	0.3504	0.3665	0.3443	0.4044

표 3-2. 계속

(2) 종속변수: 아프리카 국가의 수입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	-30.945*** (0.947)	-37.326*** (1.063)	-36.884*** (1.076)	-32.304*** (1.118)
거리 2	-1.512*** (0.069)	-0.994*** (0.080)	-1.043*** (0.081)	-1.293*** (0.082)
국경공유	1.894*** (0.266)	1.036*** (0.275)	1.010*** (0.275)	0.919*** (0.271)
수입국 GDP 2 (백만 달러)	0.878*** (0.026)	0.917*** (0.026)	0.912*** (0.026)	-0.924*** (0.026)
수출국 GDP 2 (백만 달러)	1.459*** (0.021)	1.489*** (0.021)	1.486*** (0.021)	1.435*** (0.022)
EAC		2.262** (0.069)	2.236*** (0.609)	2.026*** (0.598)
ECOWAS		2.239*** (0.254)	2.272*** (0.257)	1.703*** (0.254)
COMESA		0.794*** (0.191)	0.830*** (0.192)	0.929*** (0.189)
SADC		2.426*** (0.229)	2.326*** (0.231)	1.902*** (0.228)
수입국 Polity V			0.025** (0.008)	
수출국 Polity V			-0.010 (0.007)	
수입국 FH				-0.150*** (0.024)
수출국 FH				-0.224*** (0.022)
동일언어/인종	0.653*** (0.107)	0.609*** (0.105)	0.571*** (0.106)	0.501*** (0.105)
동일국 식민지배	0.486*** (0.118)	0.410*** (0.116)	0.423*** (0.118)	0.579*** (0.119)
동일종교	-0.049* (0.203)	-0.363 (0.200)	-0.305 (0.202)	0.148 (0.204)
표본크기	4351	4351	4323	4149
Adjusted R-squared	0.5765	0.5919	0.5918	0.6005

주: '***' 0.001, '**' 0.01, '*' 0.05

2. 분산지수(Dispersion Index)를 활용한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별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성(synchronization) 분석을 통해 지역협력과 통합의 양태와 구조를 살펴본다.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만한 요인으로 생산 부문에서는 제조업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꼽을 수 있다. 아프리카 생산구조 변화에 관한 세계은행의 최근 연구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문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력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¹²⁶⁾ 미미한 변화이기는 하나 아프리카 저소득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회원국 사이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공동체의 존재와 상관없이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경제구조의 동질화는 국제무역의 확대, 화폐통합 등을 통해 발생하며,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의 무역구조가 세계무역구조 추세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¹²⁷⁾ 따라서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협력관계 강화와 통합이 구현되고 있는 지역은 경제구조의 동질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지역경제공동체의 통합 효과가 적은 지역은 동질성이 낮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내에서도 중·고소득 국가는 전 세계 또는 지역경제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대부분이 농업 중심의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에서 동시적으로 제조업 비중을 늘려가는 쪽으로 변화할 때 지역경제공동체는 활성화될 수 있다. 경제구조의 동시적 변화는 분업과 특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역을 통해 산업(sector) 및 상품(good) 단위의 분업에서 과업(task)

126) Diao, Harttgen, and McMillan(2017), p. 412.

127) Calderon, Chong, and Stein(2007), p. 2; Inklaar, Jong-A-Pin, and De Haan(2008), p. 646.

단위로 세분화된 국제분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시장구매력이 강한 지역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다.¹²⁸⁾

분산지수를 사용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별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동질성 분석을 통해 각 지역경제공동체가 아프리카 국가의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함으로써, 한-아프리카 협력방안 마련에 유용한 함의를 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공동체 단위로 분석하여 교역 파트너가 어떤 지역경제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국가인지 구분하고, 이를 통해 국가 단위 분석결과와의 효용을 높이하고자 한다.

가. 생산구조 분산

전 세계 모든 국가(i 제외, ROW: the Rest of the World) 대비 국가 i 의 생산구조 산포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산지수를 계산하였다.

$$dy_i^{row} = \sum_{n=1}^N (sy_{in} - sy_{row,n})^2 \quad [\text{식 3-2}]$$

위의 공식에서 sy_{in} 은 국가 i 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산업분야 n 의 비중이다. i 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ROW) 평균 n 의 비중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하며, 이때 y_{jn} 은 국가 j 의 산업분야 n 의 생산량이다.

$$sy_{row,n} = \frac{\sum_{j \neq i} y_{jn}}{(\sum_{n=1}^N \sum_{j \neq i} y_{jn})} \quad [\text{식 3-3}]$$

따라서 위의 생산구조 분산지수(dy_i^{row})는 국가 i 의 산업분야별 생산비중이 전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0부터 1까지

128) 윤우진(2015), p. 46.

값으로 측정되는 분산지수는 두 상대 간 생산구조가 유사할수록 0에 가까우며, 상이할수록 1에 가깝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교역 파트너와의 생산구조 비교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생산구조 분산지수를 측정하였다. 국가 i 와 수출파트너 간 생산구조 분산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dy_i^{\text{export}} = \sum_{j=1}^J \alpha_{\xi j} \sum_{n=1}^N (sy_{\in} - sy_{jn})^2 \quad [\text{식 3-4}]$$

$\alpha_{\xi j}$ 는 국가 i 의 전체 수출에서 국가 j 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를 가중치로 반영하여 생산구조 분산지수를 계산한다. 여기서 dy_i^{export} 는 수출 비중이 큰 교역 대상국과 생산구조가 유사할수록 0에 가까우며, 상이할수록 1에 가깝다.

한편, 국가 i 와 수입파트너 간 생산구조 분산지수는 다음과 같다.

$$dy_i^{\text{import}} = \sum_{j=1}^J \alpha_{mij} \sum_{n=1}^N (sy_{\in} - sy_{jn})^2 \quad [\text{식 3-5}]$$

여기서 α_{mij} 는 국가 i 의 전체 수입에서 국가 j 에 대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dy_i^{import} 는 수입 대상국과 생산구조가 유사할수록 0에 가까우며, 상이하면 1에 가깝다.

나. 교역구조 분산

교역국가 간 수출입 품목별 비중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역구조 분산지수를 계산하였다. 국가 i 의 수출구조 산포도는 다음과 같다.

$$dx_i = \sum_{j=1}^J \alpha_{\xi j} \sum_{n=1}^N (sx_{\in} - sx_{ijn})^2 \quad [\text{식 3-6}]$$

여기서 $sx_{\in}$ 는 국가 i 의 전체 수출에서 수출품목 n 의 비중을 나타내며, sx_{ijn} 는 국가 i 가 국가 j 에 수출하는 품목 n 의 비중을 나타낸다. 각 교역 대상국의 수출비중에 해당하는 가중치($a_{\xi j}$)를 반영하여 분산지수를 구한다. 즉 수출 분산(dx_i)은 국가 i 의 수출구조가 수출 파트너의 평균 수출구조와 상이할수록 크게 나타나며, 그와 유사할수록 수출분산지수는 작아진다.

수출분산과 마찬가지로, 국가 i 의 수입구조 분산지수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dm_i = \sum_{j=1}^J \alpha_{mij} \sum_{n=1}^N (sm_{\in} - sm_{ijn})^2 \quad [\text{식 3-7}]$$

$sm_{\in}$ 는 국가 i 의 전체 수입에서 수입품목 n 의 비중을 나타내며, sm_{ijn} 는 국가 i 가 국가 j 에서 수입하는 품목 n 의 비중을 나타낸다. 각 교역 대상국의 수입비중에 해당하는 가중치(a_{mij})를 반영하여 분산지수를 구한다. 즉 수입분산(dm_i)은 국가 i 의 수입구조가 수입 파트너의 평균 수입구조와 상이할수록 크게 나타나며, 그와 유사할수록 수입분산지수는 작아진다.

다. 자료

국가 간 교역구조의 분산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UN Comtrade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결측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4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COMESA, EAC, ECOWAS, SADC) 회원국 중 35개국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¹²⁹⁾ 데이터에는 35개 회원국을 포함

129) 2016년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결측치를 최소화하였으나 콩고민주공화국(SADC, COMESA), 남수단(EAC), 기니비사우(ECOWAS), 라이베리아(ECOWAS), 지부티(COMESA),

하여 이들과 교역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분산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의 기본 단위는 35개 회원국과 교역국 간 양자 관계이며, 표본 크기는 수출과 수입 모두 합쳐 총 4만 3,505국가쌍(dyad)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분류방식인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국제표준무역분류) 분류체계(대분류)에 의한 무역통계를 사용하여 양자 무역에서의 수출입 품목별 비중을 계산하였다.¹³⁰⁾

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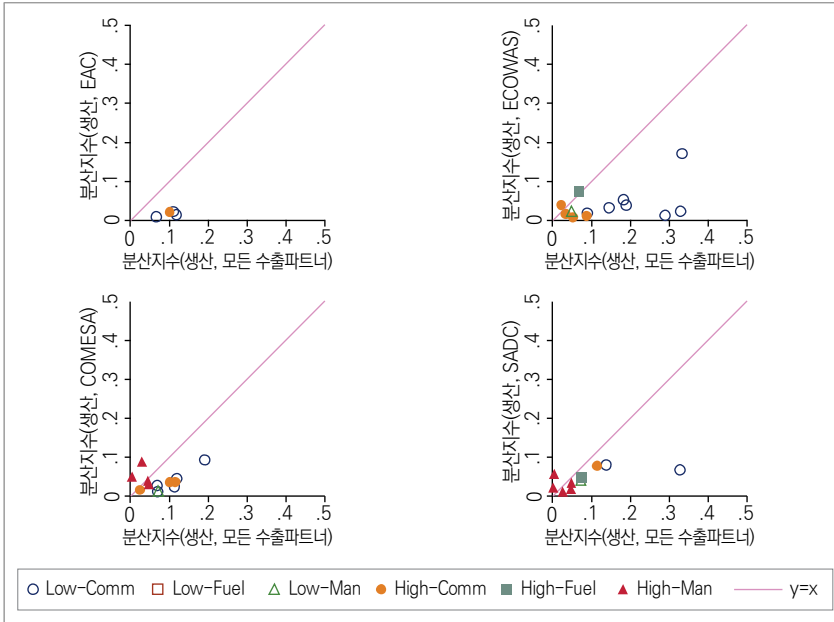
1) 생산구조 비교를 통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활용도 분석

위의 공식을 사용하여 35개 아프리카 국가의 생산구조 분산지수를 도출하였다. 비교대상에 따라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의 분산지수(혹은 동질성)는 달라진다. 국가군에 따른 비교를 위해 교역대상 집단을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각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둘째는 전 세계 교역국(수출국 또는 수입국)이며, 셋째는 각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을 제외한 아프리카 대륙 내의 모든 교역국이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① 각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가 지역경제공동체 내에서 더욱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전 세계 교역국 평균과 더욱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② 역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경제구조가 더욱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리비아(COMESA), 수단(COMESA)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130) SITC 대분류에 따른 무역품목 분류는 다음과 같다. 0. 식품 및 산동물, 1. 음료 및 담배, 2. 비식용원재료(연료 제외), 3. 광물성 원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5. 화학물 및 관련 제품, 6. 재료별 제조제품, 7. 기계 및 운수장비, 8. 기타 제조제품, 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 단 [그림 3-3], [그림 3-4], [그림 3-5], [그림 3-6]에 사용된 무역품목의 단순분류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0, 1, 2, 9는 상품(commodity), 3은 연료, 나머지는 제조업.

그림 3-1. 지역경제공동체별 생산구조 분산(v.모든 수출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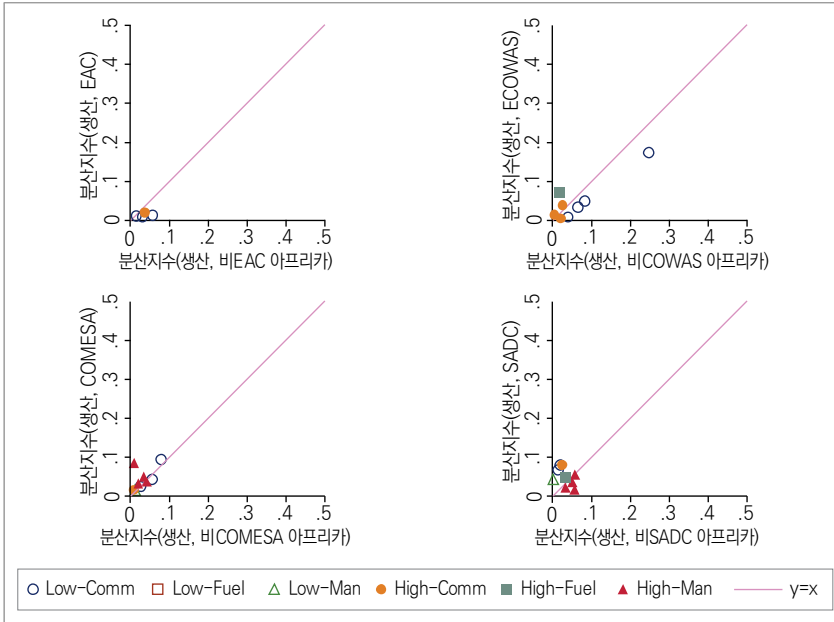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3~4.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1]은 각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EAC, ECOWAS, COMESA, SADC) 역내 생산구조 분산과 전 세계 교역국과의 생산구조 분산을 비교한다. 기울기가 1인 직선 $y=x$ 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국가는 역내 생산구조 분산이 전 세계 교역국과의 수출분산보다 크므로 지역경제공동체 국가 간 생산구조 동질성이 전 세계 모든 수출파트너에 비해 낮고, 직선 $y=x$ 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국가는 역내 동질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는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과 더욱 유사한 생산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EAC와 ECOWAS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의 특성에 따라 생산구조 분산지수를 보면 중·고소득국가의 생산구조 분산지수는 일반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¹³¹⁾

131) 그림에서 원형으로 표시한 국가는 1차 상품(commodity)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를 나타내며, 사각

그림 3-2. 지역경제공동체별 생산구조 분산(v.역외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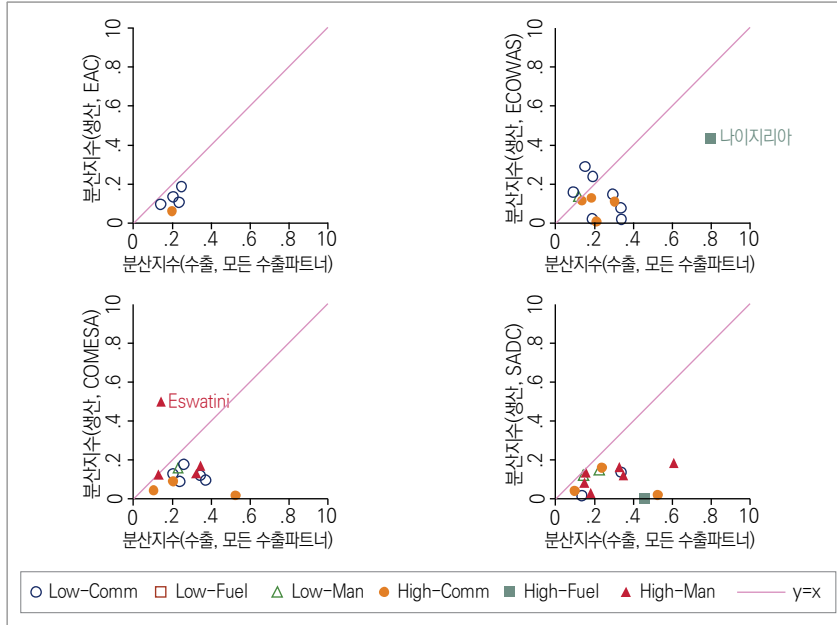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3~4.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2]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의 생산구조 분산 비교이다.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생산구조를 비교했을 때도 역내 동질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지역경제공동체는 EAC이며, ECOWAS에서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저소득 국가와 SADC의 중·고소득 제조업 수출국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과 생산구조가 더욱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AC나 ECOWAS 1차 상품 수출국의 생산구조 동질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경제공동체의 영향이라기 보다 전통적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생산구조 변화 양상이 회원국 간 유사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SADC의 중·고소득 제조업 수출국임을 알 수 있다.

형은 연료, 삼각형은 제조업 수출이 가장 많다. 속이 빈 도형은 중·저소득국가(lower middle income or below)를 나타내는 반면, 속이 짙은 도형은 중·고소득국가(upper middle income or above)를 나타낸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수출 및 수입 구조 분산은 [그림 3-3]~[그림 3-6]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3]은 역내 수출구조 분산과 모든 수출파트너와의 수출구조 분산을 비교한다. 이에 따르면 ECOWAS를 제외한 모든 지역경제공동체가 낮은 수출구조 분산, 즉 높은 수출구조 동질성을 보인다. ECOWAS 회원국 중에서도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중·고소득 국가는 전 세계 모든 수출파트너와의 수출구조 분산보다 낮은 역내 수출구조 분산을 보인다. COMESA의 경우, 에스와티니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수출구조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ADC 역내 수출구조 분산이 모두 0.2 미만인 것으로 보아 SADC의 회원국이기도 한 에스와티니의 수출구조는 COMESA보다 SADC와의 동질성을 더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구조에 있어 국가 소득이나 최다 수출품목에 따른 수출구조 분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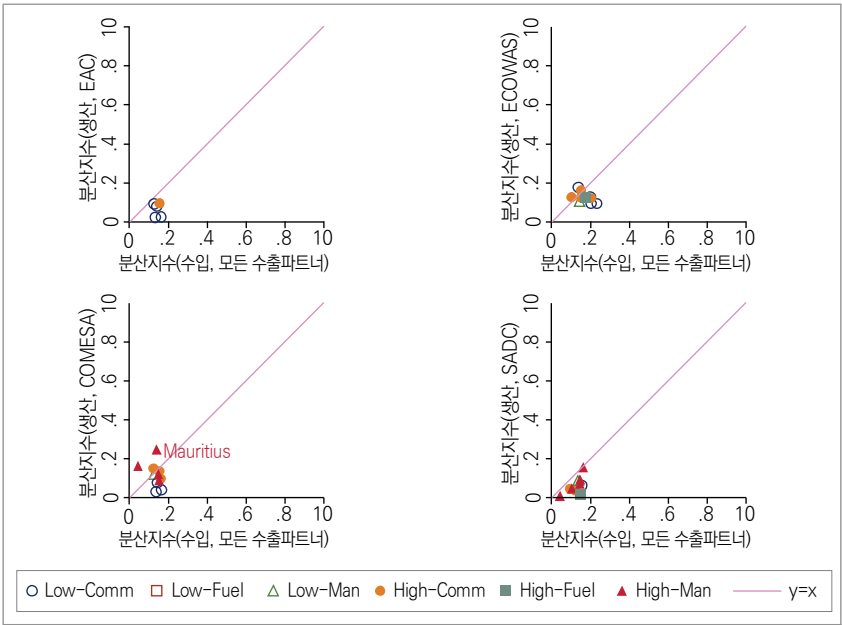
그림 3-3. 지역경제공동체별 수출구조 분산(v.모든 수출파트너)¹³²⁾



자료: UN Comtrade(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3~4.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4]의 수입구조 분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수출구조 분산보다는 산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입구조는 수출구조보다 더욱 서로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EAC와 SADC은 모든 회원국의 역내 수입구조 분산이 모든 수입파트너와의 수입구조를 비교했을 때보다 작다. ECOWAS와 COMESA도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회원국의 역내 수입구조가 전체 수입파트너와 비교했을 때보다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출구조 분산과 마찬가지로 국가 소득이나 최다 수출품목에 따른 수입구조 분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4. 지역경제공동체별 수입구조 분산(v.모든 수입파트너)



자료: UN Comtrade(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3~4.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2) 그래프 안에 표시된 국가명은 y축의 관점, 즉 역내무역에 관한 분산지수 관점에서 이상치(outlier)를 표시하였으며, 이후에 나오는 그림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였다.

한편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공동체의 역내 수출구조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구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EAC, ECOWAS, COMESA의 대부분 국가는 역외 아프리카의 평균적 수출구조와 더 유사한 경향이 있다. 특히 ECOWAS의 나이지리아와 COMESA의 에스와티니는 지역경제공동체 역내 수출구조와 매우 다른 수출구조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역내 수입구조 역시 EAC의 중·저소득 1차 상품 수출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3-6 참고). 하지만 수입구조 분산의 산포도는 수출구조 분산의 산포도보다 대체적으로 작게 나타나 아프리카 국가 대다수가 유사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AC와 ECOWAS의 역내 수입구조는 다른 지역경제공동체보다 동질성이 높다. COMESA의 역내 수입구조 분산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중·저소득 1차 상품 수출국의 분산지수는 낮고 중·고소득 국가는 높은 편이다. 즉 COMESA 중·고소득 국가의 수입구조는 COMESA의 평균적 수입구조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SADC도 EAC와 ECOWAS에 비해 역내 수입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편 수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입구조가 다양한 지역과 교역하면 다양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림 3-5. 지역경제공동체별 수출구조 분산(v.역외 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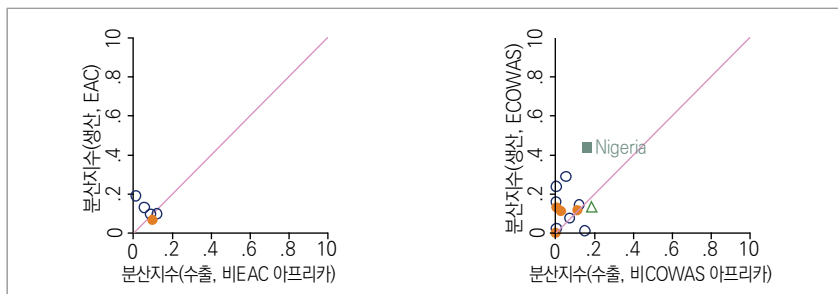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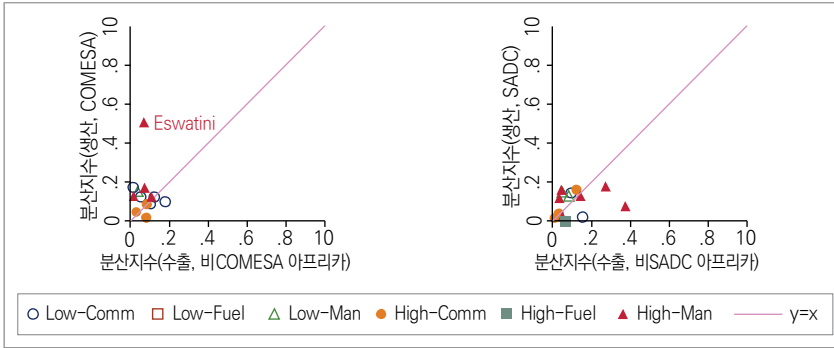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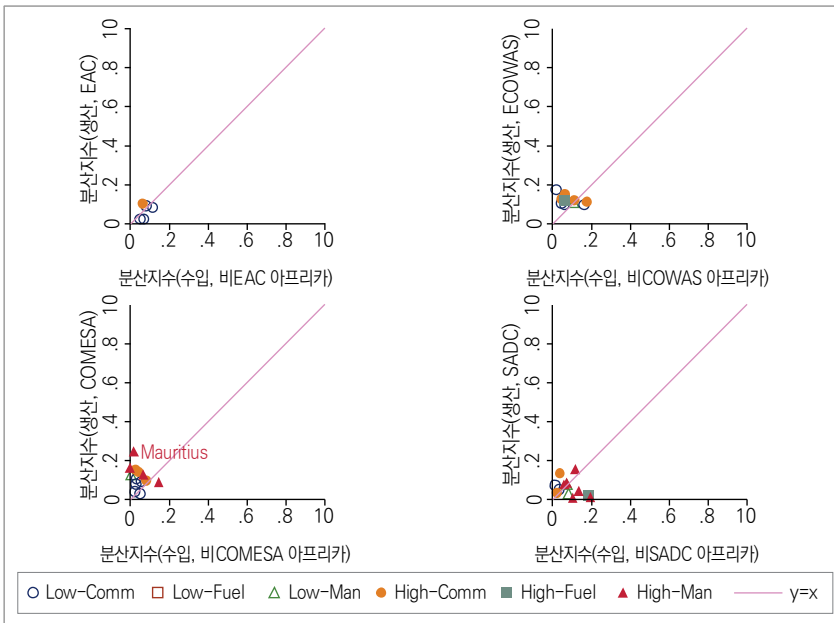


그림 3-5. 계속



자료: UN Comtrade(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3~4.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6. 지역경제공동체별 수입구조 분산(v.역외 아프리카)



자료: UN Comtrade(2016)(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4. 23~4. 2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앞의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의 동질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역내 생산구조와 역내 수출구조는 전 세계 교역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동질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공동체의 상호협력은 관계강화 및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¹³³⁾ 특히 SADC의 중·고소득 제조업 수출국(남아공, 에스와티니, 모리셔스, 잠비아, 보츠와나, 레소토) 간 생산구조 동질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산업발전을 실현하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경제규모와 산업다양성이 훨씬 큰 남아공이 SADC 내에서 경제활동의 동질화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목해왔다. 그 결과 남아공은 SADC에서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SADC 회원국과 더불어 팽창하는 공동변화(co-movement)를 보였다.¹³⁴⁾ ECOWAS도 역내 수출구조의 동질성이 높은 편이나 나이지리아는 다른 회원국들과 상이한 수출구조를 보인다.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ECOWAS는 화폐 및 금융통합과 공동시장 형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¹³⁵⁾ 하지만 무역과 생산 부문에 있어 원유 중심 수출국인 나이지리아와 타 ECOWAS 회원국의 동질화는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나이지리아 효과가 지역경제공동체에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점 국가 선정에 있어 지역공동체와 개별국가의 상

133) 리카도(Ricardo), 헉셔-오린(Heckscher-Ohlin), 스톨퍼-새뮤얼슨(Stolper-Samuelson) 등이 주장한 비교우위론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은 상품을 특화하면 교역대상 모두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며, 주로 산업 간 무역에 초점을 둔다. 브랜더(Brandner), 포즈너(Posner) 등의 산업 내 무역이론은 산업 간 비교우위가 없어도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 간 차별화된 제품의 산업 내 무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EAC 회원국 간 비교우위에 관한 한 연구는 산업 간 비교우위가 없어도 생산제품 간 비교우위가 존재해 관계 강화 및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Chingarande, Mzumara, and Karambakuwa 2013). 즉 유사한 소득수준은 역내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질적인 생산 및 교역구조 속에서도 여전히 협력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134) Kabundi and Loots(2007), pp. 737-748; Harding and Pagan(2002), pp. 365-381.

135) Agba and Madueme(2021), pp. 1-12.

호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거점 국가의 특성에 따라 교역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대다수 회원국과 서로의 생산 및 무역구조에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화폐 및 금융 시스템 통합의 주축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수입구조의 경우, COMESA와 SADC가 EAC와 ECOWAS보다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COMESA와 SADC 지역에 보다 다양한 품목을 수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AC는 생산구조, 수출 및 수입구조에 있어 동질성이 높다. 이는 EAC에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용이한 조건이 갖춰져 있거나 이미 통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EAC는 농업 의존적인 생산구조로 인해 외부와의 다양한 교역 또는 그 밖의 협력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높은 통합 정도를 보여주는 EAC는 외부의 경제적 쇼크(global shocks)가 발생했을 때 활발한 역내교역을 통해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충격을 흡수 및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¹³⁶⁾

본 장에서 시행한 중력모형 분석과 분산지수 분석 모두에서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는 경제적 이익 증진과 지역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기업은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활성화 정도와 발전 방향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산업화 정도 및 경제성장 추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공동체 역내국 간 경제통합과 협력 정도 및 가능성을 이해할 때 주요 협력국 선정과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총체적 분석과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136) Ncube, Brixiova, and Meng(2014), pp. 1-28.

제4장



한국의 RECs 활용방안: RECs별 주요 협력국가 선정

1. COMESA

2. EAC

3. ECOWAS

4. SADC



아프리카 무역의 많은 부분은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전체 아프리카 지역 경제공동체의 경우, 수출의 60% 이상, 수입의 80% 이상이 대륙 외 시장과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프리카 국가 간 수입은 전체 아프리카 국가 총수입의 약 14%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전체 수입규모의 약 50%는 각 지역경제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다.¹³⁷⁾ 아프리카 대륙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약 35%가 가공품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타 대륙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¹³⁸⁾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상품은 농산품과 광물이다.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경제공동체 역내 및 역외 국가로의 수출품목뿐 아니라 타 대륙의 국가로 수출하는 품목이 대부분 분화되어 있지 않고 농산품이나 광물 등으로 중복되어 있다. 아프리카 국가 간 수출은 지난 5년간 평균 708억 7,000만 달러 규모였다. 평균적으로 이 지역 국가 간 수출은 대부분 각 지역경제공동체 내에 집중되어 있다.¹³⁹⁾

최근 아프리카연합(AU)은 AfCFTA를 발효하였는데, 이는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FTA이다. 목표는 54개국에 걸친 상품과 서비스의 단일시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무역합리화를 위한 대륙관세동맹을 형성하고, 장기적 투자를 이끌어낸다. AfCFTA는 명백하게 아프리카 역내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이는 비용을 수반하고 이를 통한 이윤이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종종 다른 나라와의 추가적인 무역통합이 일부 산업에 이익을 주는 반면 다른 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일부 부문과 기술 수준에서는 이윤 및 고용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정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¹⁴⁰⁾ 이러한 주장은 AfCFTA가 소득 수렴¹⁴¹⁾(income

137) UNECA(2020), p. x.

138) *Ibid.*, p. 10.

139) *Ibid.*, p. 12.

140) IMF(2019), pp. 16-19; Frazer(2012), pp. 12-17.

141) 경제성장을 또는 소득 수준이 어느 한 지점으로 동일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convergence) 또는 소득 분화¹⁴²⁾(income divergence)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지역통합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일부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정책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역경제공동체 설립과 경제성장 및 소득 수렴 간 관계는 아프리카 경제의 특정한 빈곤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이다. 실제로 이 대륙에 만연해 있는 높은 빈곤율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의 달성을 필수적이게 하며, 따라서 2030년까지 빈곤과 불평등을 크게 줄이기 위해 충분히 높은 연간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반면 이 지역 내 다양한 지역경제공동체 설립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회원국 간의 양자 무역 생산 채널(The Channel of bilateral trade flows)에 의한 수익 격차를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몇 년 동안의 경제통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무역 수급(intra-regional trade flows)이 낮아 잘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프리카의 지역 무역 발전에 대한 주요 제약으로는 부족하고 열악한 운송 인프라, 구조화되고 규제된 국경 간 시장, 지속적인 관세 및 비관세무역 장벽 등이 있다.¹⁴³⁾ 바람직한 지역경제공동체는 국가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경제 수렴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의 이질성은 일부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더 벌릴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경제성장은 개별 국가들의 국내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지역 수준의 요인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COMESA, EAC, SADC의 아프리카 대륙 내 수출 비중은 각각 19.2%, 38.8%, 23.2%로 평균 이상이였다. 특히 ECOWAS와 SADC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지역경제공동체 내에 집중되어 있어, 그 비중은 각각 59.8%와 88.9%에

142) 경제성장 또는 소득 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143) Shepherd, de Melo, and Sen(2017), pp. 9-15.

이른다.¹⁴⁴⁾ 본 연구에 포함된 4개의 아프리카 대륙 RECs 중 통합 수준의 정도를 비교하면, EAC의 진척도 및 영향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COMESA와 ECOWAS, 마지막으로 SADC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EAC에는 4개의 RECs 중 유일하게 공동 시장이 설립되어 있다. COMESA는 FTA 실현을 통해 역내 무역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COWAS는 관세동맹으로의 전환을 실현했으며 최근 단일통화 도입의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SADC은 교역규모와 경제규모 측면에서 대륙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의 격차와 환경이 지나치게 다양해 역내관세 철폐도 완료되지 않아 후속 통합 단계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지역경제공동체의 역내 경제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소속 지역경제공동체 내에서 경제규모나 대내무역량 등에 우위를 점한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 지역경제공동체별로 각 권역 간 무역 산업 및 교역 교류에 영향력이 큰 주요 협력국가를 선정하고, 이러한 지역적 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 차원으로 교역과 투자 공간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COMESA

COMESA의 경제규모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 GDP의 27.8%를 차지하며, 대륙 내 지역경제공동체 중 가장 크다.¹⁴⁵⁾ 2025년까지 COMESA는 관세, 비관세장벽 및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이동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단일무역 및 투자 지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COMESA의 역내무역은 전체 무역에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COMESA

144) UNECA(2020), p. 10.

145) *Ibid.*, pp. 6-7.

회원국 간 높은 거래비용에 있다. 현재 FTA가 시행되고 있지만 회원국 간 무역에는 여전히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COMESA는 관세,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경제통합 어젠다 역시 MTSP에 의거하여 잘 작동하는 FTA와 관세동맹, 점진적인 서비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투자, 사회적 개발과 양성 평등, 그리고 단일시장을 향한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포함한다.

COMESA는 2017년부터 ‘2017~2026 산업화 전략’을 시행 중이다. 2017년에 채택된 동 산업화 전략은 COMESA 중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COMESA 조약에 따라 회원국이 산업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고 산업 간의 연계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산업화 전략의 수립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COMESA는 산업정책에서 농산물 가공, 에너지, 섬유 및 의류, 가죽 및 가죽 제품, 광물 선광(選鑛), 제약, 화학 및 농화학, 경공업 및 청색경제 등 아홉 가지 부문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 첨단기술산업은 COMESA 회원국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는 COMESA 회원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의 무상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이다. [표 4-1]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분야별 무역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2015~19년)

(단위: 백만 달러)

COMESA		이집트					에티오피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조품	수출	13	15	22	22	25	0.99	0.42	4.5	1.3	1.9
	수입	1,980	1,430	1,278	1,457	1,389	230	181	187	157	159
	합계	1,993	1,445	1,300	1,479	1,414	230.99	181.42	191.5	158.3	160.9
연료	수출	91	16	31	197	130	-	-	-	-	-
	수입	8.9	57	15	155	213	0.13	0.09	0.03	0.28	0.13
	합계	99.9	73	46	352	343	0.58	0.09	0.03	0.28	0.13
식품	수출	12	30	35	32	25	50	53	59	45	38
	수입	8.1	4.4	62	9.5	8	0.63	0.61	0.92	19	6.2
	합계	20.1	34.4	97	41.5	33	50.63	53.61	59.92	64	44.2
광석 및 금속	수출	1.4	3.6	7.1	10	8.9	-	-	-	-	-
	수입	9.4	5.7	9.1	7.7	10	9.8	9.2	1.4	6	5.3
	합계	10.8	9.3	16.2	17.7	18.9	9.8	9.2	1.4	6	5.3
농업 원자재	수출	0.7	1.1	0.7	0.5	1.1	0.58	0.56	0.73	1.73	0.93
	수입	6.1	5	12	7.2	7.4	1.4	1.1	1	1.8	1.2
	합계	6.8	6.1	12.7	7.7	8.5	1.98	1.66	1.73	3.53	2.13
기타 제품	수출	1.9	0.3	0.2	0.5	1	0	0.02	0.3	0.01	0.17
	수입	0.5	0.5	0.9	1.6	0.6	0.04	1	0.35	0.92	0.17
	합계	2.4	0.8	1.1	2.1	1.6	0.04	1.02	0.65	0.93	0.34
무역 규모	수출	120	66	96	262	191	51	54	64	48	41
	수입	2,013	1,502	1,377	1,638	1,628	242	193	190	185	172
	합계	2,133	1,568	1,473	1,900	1,819	293	247	254	233	213

자료: UNCTAD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 이집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2021년에도 국제사회는 이집트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이집트는 계속해서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2019년 5.6%, 2020년 3.5%), 2021년 이집트 경제성장

률의 경우 세계은행(World Bank)은 2.3%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¹⁴⁶⁾

이집트는 2016년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정부 주도로 활발히 산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이후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변수로 인해 이집트 정부의 산업 활성화 및 거시경제 안정화 노력의 효과가 계획 대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집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21년 약 일천 억 이집트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였다. 해당 예산의 투입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산업 부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¹⁴⁷⁾

이집트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코로나19 대응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관광산업과 부동산, 제조업, 그리고 해외근로자 송금 등 국제 수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건설 부문, 석유정제 부문, 농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최근 이집트 정부는 100만 MBTU당 6달러였던 산업용 천연가스 비용을 4.5달러 수준으로 경감했다. 이러한 이집트의 에너지가격 인하는 생산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¹⁴⁸⁾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집트의 실업률과 빈곤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률과 빈곤율 상승은 이집트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더욱이 백신의 효능과 보급률

146)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4. 2), 「20/21 이집트 정부예산으로 살펴본 유망진출 분야」(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0).

147) 위의 자료.

148) 위의 자료.

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알 수 없어 이러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¹⁴⁹⁾

한국 산업의 이집트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¹⁵⁰⁾은 다음과 같다.

표 4-2. 한국의 대이집트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명	수출금액	수입품목명	수입금액
1	승용차	173	나프타	230
2	합성수지	152	박류	32
3	평판 디스플레이	69	천연가스	31
4	자동차부품	62	기타 비금속광물	17
5	철도차량	46	연괴 및 스크랩	5

자료: KOTRA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집트는 전체 아프리카 국가 중 셋째로 인구가 많고(2021년 기준), 뇌물 제 공 등의 부정부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비즈니스 환경이 인근 국가들과 비교하 면 양호한 수준이다. 현재 이집트에는 한국기업 33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주요 분야는 [표 4-2]와 같이 전자 제품, 중공업, 섬유, 종합상사, 타이어 판매 등이 나, 다음의 분야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① 의료 및 의약품: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집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예산 지 원 확대에 따라 진단키트, 마스크, 적외선 온도계, 알코올, 인공호흡기 등과 같은 의료 및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교육 IT: 이집트 정부의 교육 분야 투자증대정책에 따라 e-Learning 관련 제품(태블릿 PC, 노트북, 기타 IT 교육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삼성전자가 교육용 태블릿 PC 생산 을 위해 이집트 현지공장에 3,0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내부수요와 투자 추세에 따라 컴퓨터 주변기기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이집트

149)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3. 2), 「2021년 이집트 경제 개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15).

150) 이 부분은 이집트 카이로무역관 종사자의 서면 인터뷰 내용과 KOTRA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 였다.

현지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③ 수자원 관련: 이집트 정부는 만성적 물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수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정책을 도입했다. 관개·여과·폐수 관리·해수 담수화 시스템 등 수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④ 교통 관련: 이집트 정부는 현재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간 지불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 관련하여 한국은 이집트와 함께 EDCF 차관 협정을 체결해 지하철 3호선 전동차 공급사업에 2억 4,30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해당 프로젝트 입찰에 국내기업이 참여했으며, 2020년 6월부터 2023년까지 전동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 ⑤ 이집트를 통한 제3국 수출 투자 가능성: 이집트 정부가 국내 투자, 유지보수, 수출보조금,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이집트 내 합작투자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 예로, 삼성·LG 등 국내에 본부를 둔 현지 자회사들의 제3국 수출 비중이 전체 이집트 수출 규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의 투자 보조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현지 합작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식품가공, 섬유·의류, 비료 등의 산업 분야에서 주요 시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가공식품] 미국과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이나 EU와의 EBA(Everything but Arms) 이니셔티브에 의한 수출 기회의 확대가 기대되는 산업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도 이 산업은 성장이 빠른 대표적인 산업이다.

[섬유·의류]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시장의 확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섬유 및 의류산업 구현 전략 및 프로그램(Textile and Apparel Industry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Programs)을 통한 투자 촉진, 인재육성정책에 따라 산업 확대가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된다.¹⁵¹⁾

[비료] 2019~20년까지 생산량을 두 배로 증대할 계획(200만 MT)이 있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화학 부문 확장 및 다각화 프로그램(Chemical Sector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Program)을 통한 클러스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

[기타 유망 산업] 가죽 및 피혁 제품, 금속 및 제품, 석유 및 가스, 포장, 생명공학, 전자 제품, 일용품(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을 들 수 있다. 한편 COMESA FTA에 불참 등 경제가 개방적이지 않은 점, 근로자의 능력 부족, 간헐적인 정전과 높은 수송비용, 외화 부족 등이 위험 요소이다.

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1992년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해왔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해왔으며, 이 대륙에서 유일하게 고유 문자와 자국어인 암하릭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존심이 강한 국가이다. 에티오피아는 2018년 들어서부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 대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아프리카 국가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나,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 공공부문과 건설, 서비스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모델로 삼고 있어, 다양한 분야(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역량개발 등)에서 유무상 원조에 대한 수요가 높다. 에티오피아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는 도로 건설 및 개보수, 발전소(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등)의 설치, 송전망 구축 등이 포함되는데, 이때 투입 비용 대부분은 세계은행과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차관을 받고, 또 일부는 양자

151) ITC(2015), pp. 23-25.

유상원조 형태로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으로 모조-아와사(Modjo-Hawassa 2공구, 대우건설), 고레-테피(Gore-Tepi, 현대산업개발) 도로 건설에 협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8년 11월, 총 약 11억 미국 달러 규모로 3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을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s)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6개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협력 국가들과 투자보장협정 또는 이중과제 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노력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8월 26일 아비 총리가 방한하여 이루어졌던 정상회담에서 무역, 투자, 개발협력, 환경 등 다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더불어 한-에티오피아간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5건의 관련 부문 MOU를 체결했다. 또한 관세 행정 현대화, 투자보장협정 체결, 양국간 표준 협력 확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설립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2020년 기준으로 에티오피아는 GDP의 20% 이상을 수입이 차지하는 수입 의존국이다. 지난 10년간 에티오피아의 수입은 6.2%씩 증가해왔으며, 2020년 총수입액은 139억 달러였다. 수입은 주로 자본재와 소비재, 반제품, 연료, 원부자재 등으로 구성된다.¹⁵²⁾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국가발전계획을 제시해왔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시행해왔거나 여전히 시행 중인 대표적 산업정책은 아래와 같다.

- ① 농업개발주조산업화(1994~2014): 농업 부문을 개발하여 산업 부문과의 연계성을 확대함으로써 양 부문의 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 ② 산업 발전 전략(2003~현재): 수출 주도형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52)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9. 7), 「2021년 에티오피아 산업개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9. 10).

③ 1차 성장혁신계획(2011~15년)과 2차 성장혁신계획(2016~20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가운데, 경제구조를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④ 에티오피아 산업 개발 전략 계획(2013~35년): 산업 단지를 건설하여 해외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 유치의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제조 우선순위의 다변화와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상 에티오피아 정부가 계획한 정책들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이들 전략 자체가 에티오피아의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야심적이었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들 정책 구현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부족했다. 정부의 기대에 비해 민간 부문의 참여도가 낮았던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¹⁵³⁾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해 자국의 GDP 내 산업과 서비스 부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개년 개발계획(2021~30년)에 따르면, 2029~30년까지 서비스 부문의 GDP 점유율을 42.1%(2020년 기준, 39.5%), 산업 부문의 GDP 점유율을 35.9%(2020년 기준, 29%), 농업 부문의 GDP 점유율을 22%(2020년 기준, 32.6%)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⁵⁴⁾

한국 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¹⁵⁵⁾은 다음과 같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높은 생산성을 지닌 농업 부문으로의 개발과 더불어 제조업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규모 투자와 경험에 필요한 산업 부문에 외국인직접투자를 확대 유치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때 한국 기업은 제조업 부문에 단독 또는 합작 투자 형태로 진출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의 유망 투자 및 협력 분야는 농기계(생산, 조립 등), 농업 관련 약품(비료, 제초제, 농약 등), 의료 관련 제품, 의약

153) 위의 자료.

154) 위의 자료.

155) 이 부분은 에티오피아 진출 한국기업 종사자의 서면 인터뷰 내용과 KOTRA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품 및 제약 관련 제품 등의 생산 부문과 금융기술(핀테크) 부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저렴한 인건비와 무관세 혜택(미국 AGOA, 유럽 EBA 등)을 투자 이점으로 적극 활용하여 섬유봉제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주력 수출품목은 커피(33%), 참깨(15%), 채소류(8%) 등과 같은 저부가가치 농산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비록 버블성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비중은 최근 3년간 40% 정도를 상회하였다. 그리고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 부문은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으로, 두 산업 부문과 관련된 중장비, 건자재, 화학제품의 수요가 높다. 현재 한국이 에티오피아에 수출하는 품목 중 위 제품군들의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한다.

표 4-3. 한국의 대에티오피아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명	수출금액	수입품목명	수입금액
1	합성수지	20	커피류	59
2	건설 중장비	15	식물제 의류	1
3	의약품	11	식품가공기계	1
4	의료용 전자기기	10	화초류	1
5	기타 석유화학제품	10	식물성 유지	1

자료: KOTRA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에티오피아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의 독점 국영통신기업인 Ethiopia Telecom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2개의 통신회사를 추가로 인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에티오피아 항공, 에티오피아 전력, 에티오피아 해운물류회사 등 다수의 국영기업들도 민영화를 준비, 진행하고 있다.¹⁵⁶⁾ 이처럼 에티오피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다.

에티오피아 현지 통신 네트워크와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ICT 부문 사업도 한국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한국 IT회사가 에티오피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인 ‘아게르냐(Agerigna)’가 있다. 기존의 스마트폰 단말기로는 암하라어 문자의 입력이 불가능했으나, 한국의 IT 기업이 개발한 ‘아게르냐’라는 모바일 앱이 출시되면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받은 스마트폰 단말기에서는 암하라어 문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앱은 한국의 IT 기업이 한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이던 에티오피아 대학생을 채용해 개발했다. 출시 이래 약 6만 명의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일 암하라어 키보드를 1,000명 이상 다운로드하고 있다.¹⁵⁷⁾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술 기반 농업 발전을 위해 농기계 사용을 장려하고 현지 농부들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기계와 관개 배수 장비, 사료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다.¹⁵⁸⁾ 에티오피아 정부는 가장 큰 농기계 구매자로서 농기계 제품을 조달하고 현지 농업 종사자들에게 임대한다. 이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관련 상품 구매를 위해 국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기계 수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진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현지 회사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현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다.¹⁵⁹⁾ 더욱이 에티오피아는 외환 부족, 매우 상이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리스크가 다소 큰 편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ODA 등과 연계하여 진출함으로써 비즈니스 리스크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가 주도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제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제

156) KOTRA, 해외시장뉴스(2020. 6. 10),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이해와 투자진출 방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5).

157) 위의 자료.

158)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4. 8), 「에티오피아 농기계 산업 정보」(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5).

159) 위의 자료.

조업 허브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산업화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여전히 농업 중심 경제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에티오피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높은 수입 수요와 저조한 수출 실적, FDI 감소 등으로 초래된 고질적 외환 부족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2. EAC

EAC는 약 1억 8,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소득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AC는 역내무역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단일관세영토(SCT), 비관세장벽 철폐, 단일 통화 도입, 3자 자유무역지역(TFTA) 참여, 공동역외관세(CET)가 있다. EAC의 역내수출 비중은 총 무역 대비 20%로 다른 모든 경제공동체 중에서 역내 수출비중이 가장 높고, 대륙 평균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전체 무역 대비 역내무역의 비중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관리시스템의 통합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등을 통한 개선된 무역 조건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AC의 동아프리카 산업화정책(2012~32년)은 산업 생산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여 지속가능한 부의 창출, 소득 향상 및 지역사회에 대한 더 높은 생활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아프리카 산업화정책은 고용 창출, 수출 수입 및 경제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했으며 동시에 리스크에 대비하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 다각화도 지원하고 있다. EAC 지역은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로 인해 천연자원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비도덕적 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 필수 기술 및 기술 노하우의 부족 및 격차, 정보의 격차, 제한적 시장규모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아직 개발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지역의 자원 공동 개발

을 활용하고 지역의 산업화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적 자원 기반 산업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AC의 주요 수출품목은 의약품, 에너지, 광물 가공품, 농업 가공품, 석유화학 등이다. 이 중 EAC 산업화 전략이 강조하고 있는 품목은 광물 가공품과 농업 가공품이다. 시멘트도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이며 건설과 산업화에 필요한 핵심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EAC 산업화 전략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다.¹⁶⁰⁾ EAC의 잠재적 수출품은 대부분 원자재를 활용한 가공제품으로 철과 철강 부문의 제품이 많다. 예를 들어, 철광석, 제철과 제강, 강철주조, 열연강 등의 공정을 포함하는 제품들이다. 이 밖에 커피, 차, 향신료, 과일, 야채, 곡물 등은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수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케냐와 탄자니아는 EAC의 회원국 중 경제규모와 교역규모가 가장 크고, 동시에 한국과의 무역규모도 가장 큰 두 국가이다. [표 4-4]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분야별 무역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4-4. 케냐와 탄자니아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2015~19년)

(단위: 백만 달러)

EAC		케냐					탄자니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조품	수출	4.3	2.6	0.9	2.5	1.3	0.08	0.02	0.03	2	1.2
	수입	156	119	143	162	134	142	125	78	100	97
	합계	160.3	121.6	143.9	164.5	135.3	142.08	125.02	78.03	102	98.2
연료	수출	0.01	0.006	0.03	0.001	0.008	-	-	-	-	-
	수입	17	7.9	2.7	3	5	2.7	3.1	1.8	1.1	1.5
	합계	17.01	7.906	2.73	3.001	5.008	2.7	3.1	1.8	1.1	1.5
식품	수출	10	6.5	18	25	8.3	21	34	21	13	20
	수입	1.3	1	0.6	7.5	2.8	5.4	5.5	1.4	1.8	1.7
	합계	11.3	7.5	18.6	32.5	11.1	26.4	39.5	22.4	14.8	21.7

160) UNECA(2020), p. 18.

표 4-4. 계속

EAC		케냐					탄자니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광석 및 금속	수출	9.8	8.5	9.8	9.2	5.1	6.7	1.6	2.1	3	2.9
	수입	7.2	6.1	16	11	9.7	4.2	1.8	4.9	3.9	4.8
	합계	17	14.6	25.8	20.2	14.8	10.9	3.4	7	6.9	7.7
농업 원자재	수출	0.7	0.4	0.9	1	0.4	0.2	0.05	0.1	0.1	0.2
	수입	6	4.8	15	17	13	15	16	10	14	13
	합계	6.7	5.2	15.9	18	13.4	15.2	16.05	10.1	14.1	13.2
기타 제품	수출	1	0.2	0.7	0.09	0.1	1	0.03	0.7	0.9	0.6
	수입	1.4	0.7	0.8	1.3	0.8	1.2	1	1.1	1.2	1
	합계	2.4	0.9	1.5	1.39	0.9	2.2	1.03	1.8	2.1	1.6
무역 규모	수출	25.9	18.3	30.4	37.8	15.3	29	35.7	24	19	24.9
	수입	188.9	139.5	178.1	201.8	165.3	170.5	152.4	97.2	122	119
	합계	214.8	157.8	208.5	239.6	180.6	199.5	188.1	121.2	141	143.9

자료: UNCTAD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 케냐

케냐는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등 인구 1억 5,000만 명의 EAC 시장 진입을 위한 물류 중심국이다. 케냐는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보다 발달된 인프라가 장점으로, 최근 몸바사에서 나이로비까지 전철화됨에 따라 철도 수송 능력이 확대되었다. 케냐는 청년층 증가, 민간부문 활력, 고급 기술인력, 인프라 개선, 물류허브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산층이 해마다 10% 늘어 청년과 중산층이 소비를 주도하고 있다.¹⁶¹⁾

케냐의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정책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았으나, 최근 주요 수출품인 화훼를 비롯해 차와 커피도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

161) KOTRA, 해외시장뉴스(2020. 11. 16), 「동아프리카 케냐,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주목 받는 시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6).

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가와 달리 케냐는 자원의존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회복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세계은행은 2020년 경제성장률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1.6%, 케냐의 경우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¹⁶²⁾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에 따르면, AfCFTA 출범에 따라 케냐의 대 아프리카 수출이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고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추가되는 등 특히 동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익이 클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¹⁶³⁾ 이에 케냐는 EAC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국가로서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다. 케냐의 아프리카 지역 내 수출은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수입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케냐 정부는 교통, ICT, 관광, 금융, 비즈니스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더 집중하고 있다.¹⁶⁴⁾

인터넷세계통계(IWS: Internet World Stats)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국가이며, 인구의 87%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의 증가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이용자 증가 또한 디지털 미디어의 모든 부문에 걸쳐 소비 증대로 이어졌다. 이처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증가와 소비 증가는 케냐 정부가 콘자(Konza) 뉴타운을 디지털 미디어시티로 확대, 개편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했다.¹⁶⁵⁾

케냐는 ‘비전 2030’의 대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콘자 뉴타운 개발을 통해 수도인 나이로비와 근접한 지역에 2030년까지 경쟁력 있는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케냐의 미래 동력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뉴 디지털

162) 위의 자료.

163) 위의 자료.

164)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3. 17), 「현지 전문가 인터뷰로 알아보는 AfCFTA가 케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6).

165)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8. 2), 「한-케냐 디지털미디어시티 협력 3년, 그 성과와 기회는?」(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6).

미디어 허브’가 되어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산자, 디지털 기술 투자자 등 관련 분야의 인적 자원을 이끄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케냐 정부의 비전이다.¹⁶⁶⁾

한국 산업의 케냐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¹⁶⁷⁾은 다음과 같다.

EAC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 및 계열사들이며, 주로 상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2020년 7월 동아프리카에서 사업 확대를 위해 한국 수출입은행이 케냐무역개발은행(TDB)과 전대금융(re-lending loan)을 신설하였고, 현지 기업들이 이 자금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 상품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표 4-5. 한국의 대케냐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명	수출금액	수입품목명	수입금액
1	열연강판	45	커피류	20
2	합성수지	28	동괴 및 스크랩	10
3	기타 석유화학제품	26	식물제 의류	2
4	기타 정밀화학원료	8	화초류	1
5	도금강판	7	연초류	1

자료: KOTRA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케냐 정부는 ‘제조업 비전 2030’ 전략에 따라 섬유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는 섬유산업과 관련한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케냐 정부는 기존 수출품들이 시장개방에 앞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제조업자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수출용 농산물에 부가가치를 더하도록 유도하려 한다.¹⁶⁸⁾

케냐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목은 커피, 차 향신료 등의 농산품 및 농가공품이다. 한국기업들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현지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166) 위의 자료.

167) 이 부분은 케냐 나이로비 무역관 종사자의 서면 인터뷰 내용과 KOTRA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68) 위의 자료.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농산물 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할 수 있다.

케냐 정부는 교통, ICT, 관광, 금융 및 통신 등의 분야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케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ICT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인프라, 교통, 통신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진입장벽이 다소 높아 진출 전에 한국기업의 충분한 시장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케냐는 게임, 사진, 애니메이션, 영상 등 콘텐츠 부문의 전문가 및 전문가 양성체계 역량이 낮다. 관련 분야에 한국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 예로, 국내 교육기관은 교육프로그램, 기술협력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러한 교류는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관련 분야의 중견 및 중소기업이 콘자 미디어시티에 진출하여 케냐 기업과의 분업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을 이룰 수 있다.¹⁶⁹⁾

기업 차원에서는 케냐 현지 기업 및 현지에 영향력이 있는 인도기업들과의 합작이나 일부 지분 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현지에 진출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케냐는 이웃 국가들에 비해 시장이 개방적이고 경제통합에도 적극적이다. 건설·주택·건축자재, 농산물·식품 가공, 섬유·의복,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의 분야에 시장 기회가 있다.¹⁷⁰⁾

[건설·주택·건축자재] 경제성장과 주택 부족(수급 격차 약 20만 가구) 등에 따른 건설 등의 산업에서 국내 시장 기회가 있다. 건설업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건축 철강 재료에 대해 정부 조달에 의한 국산재로의 전환이 계획되어 있으며, 철강재

169) 위의 자료.

170) Kagume(2013), p. 24.

의 국내 가공 거점 확대가 예상된다.

[농산물·가공식품] 기존의 큰 국내 시장이 매력인 데다 정부의 역내 허브로서의 인프라 정비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섬유·의복] 동 산업이 번성한 방글라데시에 비해 생산 거점으로서 비용 혜택(약 9% 정도)이 있으므로 현재는 미국과 유럽 등에 대한 수출 기회가 있지만, 또한 가계 지출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BPO] 현재 영국에 비해 70%, 남아공에 비해 50% 정도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케냐의 위험 요소로는 정부 부패와 정치 혼란, 치안 악화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국가 중 천연자원이 가장 풍부하고 인구가 많아 향후 경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탄자니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최근 발견되는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석유 산업 등 2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1차 산품의 수출과 함께 자국 내에 정제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은행은 탄자니아 경제가 2021년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1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를 상회하는 것으로, 탄자니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자니아의 실질 GDP는 지난 10년간 평균 7%씩 성장했다.¹⁷¹⁾

탄자니아 정부는 경제성장 촉진 및 산업화 전략의 하나로 농수산물이나 광물, 천연가스 등 국내 원자재를 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공서 등에서 부과하던 세금 및 수출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줄이는 등 더

171)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1. 21), 「탄자니아, 2021년 경제 전망」(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8).

나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탄자니아는 국가 경제발전 전략에서 인프라 개발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철도, 교량,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재, 중장비, 전문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¹⁷²⁾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섯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열째로 큰 경제규모를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을 잇는 지리적 이점 및 정치적 안정성, 대규모 인구 등은 아프리카 외 지역 투자의 경제적 관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케냐, 이집트, 남아공과 같이 이미 상당 수준 개발되어 물류 유통체계가 잘 갖춰진 지역들과의 투자 유치 경쟁에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내 주요 면화 생산국 중 하나이나 현재 탄자니아 연간 면화 생산량의 70~80%가 수출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섬유·의류산업의 가치사슬 통합을 강화하고 더 많은 면화가 국내에서 가공되도록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섬유산업의 자본재 부가세 면제 등 섬유 및 봉제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AfCFTA는 동아프리카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가 아프리카 역내 국가의 시장으로 확장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되며, 탄자니아가 이 분야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¹⁷³⁾

한국 산업의 탄자니아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¹⁷⁴⁾은 다음과 같다.

2020년 한국과 탄자니아의 무역 총액은 약 2억 달러로 전년 1억 7,000만 달러에서 14% 증가했다. 수출액 기준 상위 5개의 수출품목은 의약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2020년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172) 위의 자료.

173) 정미성 외(2020), p. 35.

174) 이 부분은 탄자니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종사자의 서면 인터뷰 내용과 KOTRA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표 4-6. 한국의 대탄자니아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명	수출금액	수입품목명	수입금액
1	의약품	24	동괴 및 스크랩	25
2	합성수지	17	연초류	18
3	기타 석유화학제품	15	커피류	4
4	기타 섬유제품	14	수목류	1
5	윤활유	5	화초류	1

자료: KOTRA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탄자니아 정부는 2020년 2월에 의료관광 육성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 시설 첨단화 및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 국내 의료시장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탄자니아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체 생산 역량이 낮아 아직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증가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신규 및 기존 진출 기업의 규모 확대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국 기업의 제품은 높은 품질과 신뢰할만한 A/S 서비스를 기반으로 탄자니아 시장에서의 규모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천연가스를 주요 수출자원으로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천연가스 개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탄자니아의 전체 전력생산 중 48%(2020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에너지원이다. 탄자니아석유개발공사(TPDC)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천연가스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최대 156억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천연가스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발전소 및 파이프라인 건설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탄자니아에는 총 2개의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운영 중이다. 탄자니아 정부와 케냐 정부는 2021년 5월 케냐-탄자니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합의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탄자니아 정부는 탄-케냐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한국기업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한 입찰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한국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도 투자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자니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나 여전히 전력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력 공급량의 부족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탄자니아 정부는 에너지 공급 확보를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탄자니아 정부는 전력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는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대지 등 지리적 요인 덕분에 태양광 발전에 이점이 있다. 이처럼 국내 에너지 수요의 증가, 이에 따른 정부의 전략 방향, 지리적 이점 등 일련의 요인을 통해 태양광 시장의 확대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며, 더불어 관련 분야의 사업 기회 증가도 기대된다.

즉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유지관리 역량이 열악한 탄자니아 현실에 필요한 산업품목 지원,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이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인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증가에 따른 관련 분야 파생상품에도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농가공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전기 저장 배터리나 냉장·냉동 보관 및 식수 공급을 위한 정수설비 등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여타의 간접 분야와도 협력할 수 있다.¹⁷⁵⁾

탄자니아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광대한 토지와 항구를 보유하고 있어 외국 기업 진출 위험도가 낮은 편이다. 섬유·의류, 농산물·식품가공, 비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 진출 및 확대 기회가 있다.

175)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3. 12), 「태양열을 전기에너지로, 탄자니아 태양광시장 전망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8).

[섬유·의류]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면화 생산국이자 세계 4위 유기농 생산국이며, 국내 소비시장도 크다. 조정센터, 투자정보센터의 개설과 섬유산업에 특화된 SEZ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¹⁷⁶⁾

[농산물·가공식품] 현지산 식용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철폐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캐슈넛 사업자 조합 설립에 의한 국외용 브랜딩 강화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젓소 품종 개량에 의한 낙농 생산성 향상 지원 계획이 있다.

[비료]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에서 유일한 천연가스 매장국이며, 비료 생산 잠재력이 높다. 정책으로 Mtwara SEZ과 Tanga SEZ의 비료·화학 산업 집적 계획이 있다. 또한 농민을 위한 비료 사용의 홍보에 의한 국내 비료 소비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기타 유망 산업] 자동차(정기 차량검사제도 도입 예정), 심해 천연가스, 금융 서비스 등이 주목된다. 한편 탄자니아의 위험요소로는 각종 사업 인허가 취득의 장벽이 높고, 근로자들의 영어 보급률이 낮은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3. ECOWAS

ECOWAS의 아프리카 대륙 내 무역은 지역경제공동체 내에 집중되어 있다. ECOWAS는 지역통합 촉진과 회원국 간의 더 깊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장기 개발정책인 ‘VISION 2020’을 통하여 인적 자본, 굿거버넌스, 경제 및 통화통합, 지역 평화 및 안보, 민간 부문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관세 철폐, 무역촉진, 서비스 무역 자유화, 소비자 보호, 개발 격차 감소 등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생산적, 혁신적인 단일 ECOWAS 시장을 형성하

176) 經濟産業省(2017), p. 35(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4).

기 위한 공통무역정책(CTP)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21년 9월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에서 ‘에코’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채택하였다. 합의된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단일화폐인 ‘에코’의 정식 출범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에코’ 도입에 적극적인 프랑스어권 국가들과 다르게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영어권 국가들은 금융시스템 안정화 등을 이유로 ‘에코’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ECOWAS의 아프리카에 대한 전체 수출에서 지역경제공동체 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이며, 아프리카 대륙 내 전체 수입에서 공동체 역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였다. ECOWAS의 경쟁력 있는 수출품들은 1차 상품보다 가공상품에 집중도가 높다. ECOWAS의 역내 회원국과 역외 회원국 수출품은 대부분 중복된다. 그 품목은 팜유와 그 분획물, 포트랜드 시멘트, 경질유와 그 조제품, 전기 에너지,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등이다. 반면 ECOWAS의 세계 수출품은 주요 농산품, 가공되지 않은 광물과 석유에 집중되어 있다.¹⁷⁷⁾

표 4-7. 나이지리아와 가나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2015~19년)

(단위: 백만 달러)

ECOWAS		나이지리아					가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조품	수출	40	24	2	2.6	40	4.5	5.2	9.5	8.9	7.8
	수입	1,600	437	1,590	1,807	2,253	224	231	220	218	243
	합계	1,640	461	1,592	1,809.6	2,293	228.5	236.2	229.5	226.9	250.8
연료	수출	736	260	313	807	554	-	-	-	-	-
	수입	0.7	51	157	311	331	17	0.4	23	0.6	0.9
	합계	736.7	311	470	1,118	885	17	0.4	23	0.6	0.9

177) UNECA(2020), pp. 20-21.

표 4-7. 계속

ECOWAS		나이지리아					가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식품	수출	2.5	3.6	9.5	5	11	12	14	14	10	13
	수입	52	17	12	14	30	2.2	4.2	3.1	7	7.8
	합계	54.5	20.6	21.5	19	41	14.2	18.2	17.1	17	20.8
광석 및 금속	수출	79	68	93	74	96	8.7	2.8	6.2	3.7	15
	수입	10	2.9	7.3	21	18	0.1	0.2	0.1	0.03	0.07
	합계	89	70.9	100.3	95	114	8.8	3	6.3	3.73	15.07
농업 원자재	수출	0.03	0.06	0.008	0.6	2.6	0.2	0.01	0.7	0.3	0.02
	수입	24	16	24	18	38	8.3	10	8.9	7.8	7.5
	합계	24.03	16.06	24.008	18.6	40.6	8.5	10.01	9.6	8.1	7.52
기타 제품	수출	1.4	1.3	0.4	0.8	2.4	0.6	0.9	1.6	1.1	1.1
	수입	2.3	2.1	1.7	2	1	0.4	0.2	0.8	0.1	0.6
	합계	3.7	3.4	2.1	2.8	3.4	1	1.1	2.4	1.2	1.7
무역 규모	수출	859	357	418	890	706	26	23	32	24	37
	수입	1,689	526	1,792	2,173	2,671	252	246	255	233	259
	합계	2,548	883	2,210	3,063	3,377	278	269	287	257	296

자료: UNCTAD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이지리아는 ECOWAS 회원국 중 경제규모와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서아프리카 지역경제의 핵심국가이다. ECOWAS의 무역 균형은 주로 나이지리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인하고 있다. ECOWAS의 경제성장은 주로 나이지리아에 의해 주도되는데, 나이지리아는 2014년 전체 GDP의 79.1%를 차지했고, 가나(5.3%)가 뒤를 이었다. 나이지리아와 가나는 ECOWAS의 회원국 중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가장 큰 두 국가이다. [표 4-7]은 나이지리아와 가나의 분야별 무역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가.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약 2억 2,000만 명으로 서아프리카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청년 인구 보유국이다.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권의 석유 및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2014년까지 5%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던 나이지리아 경제는 2016년 침체기 이후, 2017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2%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다.¹⁷⁸⁾

정치적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대통령선거 및 의회선거에서 부하리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하고 집권 여당(APC) 또한 승리하여 정국운영과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내 종족 간 갈등, 보코하람 테러 등 국내외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국경 폐쇄와 함께 치안 악화는 국내 물가상승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식품 물가가 급등하여 2021년도 4월 기준 24%까지 증가해 20.9%를 기록했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에 다다랐다.¹⁷⁹⁾

나이지리아 국가 수입의 90%는 여전히 석유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유가는 나이지리아 경제 재건의 지속가능성을 낮게 한다. 나이지리아는 석유 부문(광업 및 채석업, 무역업 등)과 비석유 부문(농림어업, 정보통신업 등)을 포함한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정부재정(50% 이상)과 수출액(29.3%)에서 석유 부문이 여전히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MF의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나이지리아 GDP 성장률은 2020년 -3.4%까지 하락하고 2021년에는 2.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⁸⁰⁾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농업은 GDP의 2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적 자원 또한 농업 부문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데, 그 수준은 전체 노동인구의 약 45%,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50%에 이른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2020년 농

178) KOTRA, 해외시장뉴스(2020. 11. 16), 「2021년 나이지리아 경제 전망」(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0).

17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슈 트렌드] 「나이지리아,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회복 전망 부정적」(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2).

180) KOTRA, 해외시장뉴스(2020. 11. 16), 「2021년 나이지리아 경제 전망」(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10).

업 부문의 5.7%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종사자의 금융 접근성 향상, 관개시설 확충, 농기계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과 경작지 증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의 경우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지역 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 회복과 성장 계획인 ERGP(2017-2020)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대형 인프라 구축 및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⁸¹⁾

한국 산업의 나이지리아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나이지리아 수출은 나이지리아의 더딘 경기회복에 따라 2019년 7억 5,900만 달러를 보였으며, 2020년 3월 말 기준 1억 4,9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1.3%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원유 수입의 감소로 2019년 7억 2,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원유 수입이 3억 6,1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3월 말 기준 수입액 3억 8,3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5%의 증가세를 보였다.¹⁸²⁾

[표 4-8]이 보여주듯이, 합성수지, 축전지, 기타 섬유제품, 철강재용기, 열연강판 등 주종수출품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기타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조가공품, 평판디스플레이, 기타 정밀화학원료, 냉동어류, 의약품 등 2019년에는 호조를 보였던 품목들은 수출 실적이 부진했다.

181) 위의 자료.

182)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7. 28), 「한-나이지리아 무역동향」(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3).

표 4-8. 한국의 대나이지리아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명	수출금액	수입품목명	수입금액
1	합성수지	132	원유	509
2	기타 석유화학제품	68	천연가스	130
3	축전지	34	동괴 및 스크랩	46
4	기타 섬유제품	31	연괴 및 스크랩	22
5	승용차	20	LPG	19

자료: KOTRA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대나이지리아 수출은 대규모 석유가스 프로젝트 수출실적에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2011년도 수출은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Usan FPSO) 수출실적(15억 달러), 2017년도 수출은 삼성중공업의 해양플랜트(Egina FPOS) 수출실적(18억 달러)이 반영되었다. 반면 대나이지리아 수입이 2013년과 2014년에 높았던 이유는 천연가스 및 LPG 수입이 각각 22억 2,000만 달러, 28억 8,000만 달러로 자원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었다.¹⁸³⁾

2019년 12월 기준 대나이지리아 신규 투자 실적은 2건, 30만 달러였다. 한국은 2006년 이후부터 대나이지리아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도의 경우 신고건수가 9건, 신고금액 3억 1,700만 달러, 실제 투자금액 1억 1,7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2014년에는 신고건수 8건, 투자금액 9,600만 달러를, 2018년도에는 신고건수 7건, 신규법인수 2건, 투자금액 235만 달러를 보였다.¹⁸⁴⁾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1위의 GDP와 인구를 자랑하는 거대 시장이며, 건설·주택·건축자재, 농산물·식품가공, 석유·가스 분야에 시장 진출 및 확대 기회가 있다.

[건설·주택·건설자재] 연간 주택수요 70만 가구에 10만호 정도밖에 공급

183) 위의 자료.

184) 위의 자료.

하지 못해 주택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¹⁸⁵⁾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건설정책에 따라 해외 개발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외 개발자가 원활히 진출하려면 금융과 인프라 문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산물·가공식품]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토지가 풍부하게 존재하고 설탕, 팜유 등의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탕과 코코아 생산·가공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계획되어 있다.

[석유·가스 산업]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 석유 매장국이며, 주변 지역에 대한 석유 관련 제품 수출 증가를 목표로 한 정책 추진 및 공장 건설 계획이 있다.

[기타 유망 산업] 기술 산업의 성장, 에너지(전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소규모 수력발전, 태양광 등), 금융 서비스(고금리) 등을 들 수 있다.

나. 가나

2020년 기준 가나의 GDP는 0.4%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2019년 6.5%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하락 및 원유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산업별 성장률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 1차 산업은 7.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3차 산업은 1.5%의 성장을 보였고 2차 산업은 3.6% 감소하였다. GDP에서 산업별 비중은 3차 산업 > 2차 산업 > 1차 산업 순이며, 2020년 기준 3차 산업은 44.6%, 2차 산업은 36.3%, 1차 산업은 1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⁸⁶⁾

가나 정부는 무역 및 투자부문 강화를 위해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가나투자진흥센터(GIPC)와 가나자유무역지대위원회(GFZB)를 개편하였다. 또한 AfCFTA 사무국과 연계해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를 설립하고 벤처캐피털 트러스트 펀드 지원을 위해 4,5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¹⁸⁷⁾

185) 위의 자료.

186)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6. 24), 「가나 산업 개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3).

농업부문의 수익 증대를 위해 다양한 규제완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농작물 생산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나 정부는 2023년까지 쌀·옥수수 등 주곡작물의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식량자급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농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도농 지역의 기술 및 인적 역량 개발, 공급망 관리, 식량적자 감소 및 수출확대 달성 등 농업부문의 현대화 및 식량안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¹⁸⁸⁾

산업부문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자동차 개발정책이다. 가나 정부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제조를 전략적 앵커 산업으로 선정하여 가나의 산업개발의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OEM 및 투자 파트너로부터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가나자동차산업 육성정책(GADP)을 통해 2022년까지 도요타, 닛산, 현대 및 기아자동차의 조립공장이 가나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자동차산업육성정책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기업의 현지 조립공장 건설, 자동차 운행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 강화, 산업인프라 접근 개선, 기술훈련 강화, 국내 부품 생산 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⁸⁹⁾

최근 몇 년간 가나 경제 한계효용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 부문의 부진한 성장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가나 정부는 다양한 전략적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국가산업활성화 프로그램(National Industrial Revitalization Programme)이 대표적이며 이를 위해 2억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우선 가나 정부는 산업단지와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전략적 앵커 산업을 배치할 계획이다. 농업가공, 제약, 통합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조립, 섬유, 의류, 석유화학, 기계부품 및 장비 제조 및 석유판 산업 등이 전략적 앵커 산업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여 토지취득, 등록, 수

187) 위의 자료.

188) 위의 자료.

189) 위의 자료.

도, 전기, 광섬유,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부분에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¹⁹⁰⁾

한국 산업의 가나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근 3개년 동안 가나의 대한민국 수출품목 및 규모에 따르면, 코코아와 코코아조제품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절반을 훨씬 넘는 수치인 60.5%, 71.9%의 점유율로 수출규모 1위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43.4%로 여전히 1위였지만 증감률은 -25.8%를 보였다. 반면 납을 나타내는 연과 그 제품은 2018년 4.4%에서 2019년 24.9%로 점유율 변화가 있었다. 동과 그 제품의 경우 5997.2%라는 증가율을 보이며 3위에 안착했다. 가나의 대한민국 수출품목 규모 10위 내에는 대체적으로 광물 종류가 많으며 농림수산품이 뒤를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⁹¹⁾

표 4-9. 한국의 대가나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19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명	수출금액	수입품목명	수입금액
1	합성수지	30	동과 및 스크랩	15
2	승용차	27	견과류	11
3	화물자동차	20	패션전지	10
4	기타 섬유제품	17	연고 및 스크랩	3
5	자동차부품	10	기타 식물성재료	3

자료: KOTRA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나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중 80%는 중고차이고, 특히 현대, 기아 등 한국기업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가나의 대한민국 수입 품목 중 한국의 자동차는 비중 측면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꾸준히 1위를 차지했다.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7년에 48%, 2018년에 63.8%, 2019년에 62.5%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류, 기계류가 많은 비중을

190)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6. 24), 「가나 산업 개관」(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3).

191)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1. 18), 「통계로 살펴보는 가나 무역현황」(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5).

차지했다. 자동차는 2019년 이후에도 수입품목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입 규모 자체는 축소된 경향이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역이 둔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나의 대한국 수입 규모도 줄어든 것이다.¹⁹²⁾

가나는 서아프리카에서 정치 안정성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투자국은 중국, 인도, 영국, 남아공, 호주 및 네덜란드 등이며, 향후 AfCFTA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며 투자 유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나는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함께 가나 원조 극복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지구 1공장’ 및 ‘가나 케어스 프로그램’ 등 활발한 제조업 육성 및 기업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현대·기아 자동차를 포함한 폭스바겐, 닛산, 도요타 등의 현지 조립공장 설립이 진행 중이다. 의료기기의 현지 독립 및 생산시설 설립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재료 생산 및 수출 중심에서 고부가 및 산업화 경제로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¹⁹³⁾

한국의 대가나 투자금액은 2018년 48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마저도 2020년 58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¹⁹⁴⁾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12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가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석유·가스 분야의 경우, 채굴을 강화하고자 전문 기술자 육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14년 ‘TEN(Tweneboa, Enyenra, Ntomme) 프로젝트’와 ‘Sankofa-Gye Nyame 프로젝트’ 사업 합의가 의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향후 석유채굴 증산이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JBIC은 2013년부터 TEN 유전의 심해개발 대응을 위해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192) 위의 자료.

193)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7. 7),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가나 투자 진출 전략」(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5).

194) 위의 자료.

에 대출을 실시하는 등 가나의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¹⁹⁵⁾

4. SADC

SADC은 2010년까지 역내관세 철폐를 계획했지만 이행 기간이 지난 현재 까지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인 반면, 인프라 개발과 보통선거의 보급 등 지역개발 및 정치적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후속 통합의 단계도 진행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통합 진행 정도가 다른 공동체에 비해 매우 느린 상황이다.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이 달성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동시장의 단계는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SADC의 역내수출은 2019년 348억 달러로 전체 SADC 수출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다. 해당 수치는 최근 5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입은 2016년 20.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2019년에는 모잠비크, 모리셔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서 감소세를 보이며 17%로 하락, 3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역내무역에서 주로 거래되는 제품은 경유, 전기, 에너지, 다이아몬드, 담배 및 크롬, 광석, 금, 구리 등의 광물이다.

현재 SADC는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가 직면한 문제인 높은 자원 의존성, 낮은 부가가치 및 지식집약적 상품의 수출 비중 등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에 대한 낮은 민간 부문의 투자를 보여준다. 이에 SADC 산업화 전략은 자생적 발전을 위하여 산업생산능력을 높이고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더 높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 분야를 선별, 경제 인프라로 만들어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SADC의 산업화 전략은 산업화, 현대화, 기술개발, 과학기술, 재정 강화, 지역통합을 통한 SADC 지역의 기술

195) 위의 자료.

적·경제적 변혁을 기반으로 하며, AU의 ‘어젠다 2063’을 따르고 있다.

남아공은 SADC 회원국 중 경제규모와 교역규모가 가장 큰 핵심국가이다. 또한 남아공은 SADC 무역에서 총수출의 52%, 역내 수출의 60%를 차지하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내무역에서 남아공은 제조품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반대로 다른 회원국의 수출품은 주로 1차 상품과 자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SADC 회원국 중 남아공, 탄자니아, 에스와티니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바, SADC의 무역수지는 남아공이 전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아공과 앙골라는 SADC 회원국 중 한국과의 무역규모가 가장 큰 두 국가이다. [표 4-10]은 남아공과 앙골라의 분야별 무역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0. 남아공과 앙골라의 품목별 교역규모 변화(2015~19년)

(단위: 백만 달러)

SADC		남아공					앙골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조품	수출	450	619	611	625	480	0.5	1.1	1.2	0.5	0.7
	수입	1,123	903	884	930	766	1,454	66	74	82	200
	합계	1,573	1,522	1,495	1,555	1,246	1,454.5	67.1	75.2	82.5	200.7
연료	수출	19	183	650	557	251	61	126	88	141	118
	수입	45	20	60	45	31	57	427	243	109	516
	합계	64	203	710	602	282	118	553	331	250	634
식품	수출	25	24	40	69	22	3	8.8	1.5	4.5	3.3
	수입	16	11	16	12	15	0.3	1.1	2.1	2.3	3.7
	합계	41	35	56	81	37	3.3	9.9	3.6	6.8	7
광석 및 금속	수출	585	497	670	629	727	0.006	-	0.1	0.06	0.09
	수입	51	36	10	20	13	5.5	8.2	6.2	14	15
	합계	636	533	680	649	740	5.506	8.2	6.3	14.06	15.09
농업 원자재	수출	7.3	7.6	10	16	11	0.01	0	0.001	0	0.001
	수입	13	12	14	18	14	8.2	3.9	5.9	4.6	10
	합계	20.3	19.6	24	34	25	8.21	3.9	5.901	4.6	10.001

표 4-10. 계속

SADC		남아공					앙골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타 제품	수출	0.7	1.4	3	1	3	0.4	0.9	0.4	0.3	0.3
	수입	40	26	13	22	24	3	10	6.8	1.1	2.3
	합계	40.7	27.4	16	23	27	3.4	10.9	7.2	1.4	2.6
무역 규모	수출	1,087	1,332	1,984	1,897	1,494	65	136	91	146	122
	수입	1,288	1,008	997	1,047	863	1,528	517	338	213	747
	합계	2,375	2,340	2,981	2,944	2,357	1,593	653	429	359	869

자료: UNCTAD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2019년 남아공 세계 수출의 27%는 역내수출이며 수입은 12%를 차지했다. 남아공의 교역 규모는 아프리카 전체 역내 수출의 35%, 수입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아프리카 역내 무역 비중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또한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FDI 유입액의 10.2%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FDI 유입규모가 큰 제조업, 건설업, 인프라 확충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려 한다.¹⁹⁶⁾

최근 지속된 저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내 제2의 경제 규모를 보유한 경제선도국을 유지하고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과 AfCFTA 출범에 따른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흑인 중산층 증가에 따른 의료, 유선 통신 등의 서비스 산업 성장,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 가격의 회복세, 소비자 물가 안정세 등이 경제성장의 추가적인 긍정적 요인이다.¹⁹⁷⁾

남아공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현재 직면한 과제는 국영기업의 안정화와

196) 정미성 외(2020), p. 11.

197) KOTRA, 해외시장뉴스(2020. 3. 12), 「2020년 남아공 경제 전망」(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0).

실업을 개선, 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국영전력공사(Eskom)의 경영난에 따른 불안정한 전력수급문제는 남아공 경제의 가장 큰 위기로인이 되고 있다.¹⁹⁸⁾ 국영전력공사 외에도 남아프리카 항공 등 주요 국영기업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국영기업이 파산 시 대규모 일자리 삭감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아공 정부는 금융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디스나 IMF 등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남아공 정부의 조치가 부채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1년 2월 11일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경제회복 가속화,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부정 부패 척결 등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회복을 위해 사업지원과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¹⁹⁹⁾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00억 랜드 규모의 사회경제 구제 패키지를 마련해 1,800만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빈곤층 5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경제 구제 패키지를 제공해왔다. 또한 특별실업기금을 통해 약 450만 명에게 570억 랜드 규모의 임금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 지원에도 약 130억 랜드를 사용했다. 기반시설사업으로는 3,400억 랜드 규모의 에너지·수자원·교통·통신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해왔다. 특히 라마포사 대통령은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란세리아 스마트시티 개발로 향후 10년 내 35만~50만 명이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²⁰⁰⁾

에너지 발전용량 확대와 관련해서는 광물자원에너지부가 2,000MW 규모의 긴급 전력 입찰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음을 발표했다. 통합자원계획(IRP)에 따른 1만 1,800MW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절차 또한 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

198) 위의 자료.

199)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3. 4), 「남아공, 2021년 국정연설 및 예산안 발표」(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0).

200) 위의 자료.

다. 심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5차 입찰을 추가로 개시해 2,600MW의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를 확보하고 2021년 8월에 또 다른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²⁰¹⁾

이상의 라마포사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연장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긴 했으나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경제회생정책을 재구성한 내용이었으며, 포스트 아파르트헤이트 스마트시티 건설계획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2021년 지방선거, 공공임금 협상 등과 관련한 정치적으로 요소에 따른 변동 가능성, 국영기업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국 산업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²⁰²⁾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남아공 수입국 중 27위, 수출국 중 1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대한민국 2019년 수입·수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17%, 22%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인 차량과 기계류 등이 각각 35%, 15% 감소했으며, 제2대 수출품목인 광물성 연료 수입 또한 56% 감소했다.

AfCFTA 시행으로 남아공산 옥수수, 밀, 와인, 과일 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남아공 농산물의 역내수출 중 41%가 SADC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나 관세 철폐에 따라 아프리카 전체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다.²⁰³⁾

201) 위의 자료.

202) 이 부분은 남아공에 진출한 한국기업 종사자의 서면 인터뷰 내용과 KOTRA의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203) 정미성 외(2020), p. 12.

표 4-11. 한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명	수출금액	수입품목명	수입금액
1	승용차	54	철광	521
2	합성수지	50	백금	305
3	건설중장비	42	합금철	155
4	화물자동차	33	승용차	126
5	자동차부품	30	기타 금속광물	103

자료: KOTRA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21년 남아공 식품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6,470억 랜드(약 470억 달러)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는 연평균 7.7% 성장률을 기록하며 9,030억 랜드(약 65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기도 하다. 남아공 식품시장은 웰빙과 편리성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러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현지 소비자들은 보다 건강한 음식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외출과 외식 비중이 줄어들면서 좀 더 조리하기 간편한 음식을 찾고 있다.²⁰⁴⁾

남아공 시장은 다른 국가들보다 아시안 식품에 대한 보수적 경향이 비교적 강한 탓에 아직 수요가 크지 않다. 많은 남아공 현지인들에게 아시안 식품은 중식이나 사시미, 초밥과 같은 일식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한국 식품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전 세계에 한식이 소개되고 있는 만큼 남아공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유행에 반응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²⁰⁵⁾

[첨유·의류] 「우대조달기본법(Preferential Public Procurement Framework Act)」에 따라 2012년부터 정부 조달을 100% 국내산으로 전환하거나 의류 및

204)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6. 14), 「남아공으로 한국 식품 수출하기」(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8. 20).

205) 위의 자료.

섬유 경쟁력 프로그램(Clothing and Textile Competitiveness Programme)을 통해 클러스터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확대도 기대된다. 또한 국외용 신발 제품이나 악어가죽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²⁰⁶⁾

[농산물·가공식품] 2015년부터 가솔린에 국산 바이오 에탄올을 2% 혼입 의무화로,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 콩의 생산 가공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화훼 및 수산물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수출, 과자나 와인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BRICs·중동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금속 및 금속제품] 정부 조달의 75%를 국산으로 전환하는 계획과 'Gold Loan Scheme'이라는 보석 제조자 지원 구조 등 국내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한편 수입품과의 경쟁이나 수출 시의 장벽이 과제로 남아 있다.

[자동차] 국내 생산 거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벤츠의 새로운 조립공장에 남아공 정부의 16억 랜드 투자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수출 차량 대수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약 20% 증가했다.²⁰⁷⁾

[기타 유망 산업] 화장품(제조·수출의 급증), 재생 에너지(국내의 전력 부족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검토)를 들 수 있다.

한편 남아공의 위험요소로는 파업 만연, 정치 혼란과 사회 불안 등의 치안 위험, 전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나. 앙골라

앙골라의 경제규모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공, 알제리, 모로코, 수단에 이어 일곱째이다.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6,670달러

206) South African Government, "Clothing and Textile Competitiveness Programme(CTCP)"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14)

207) SARS, "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APDP)"(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5. 20).

수준이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4위 원유 매장국이며, 세계 7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이다. 앙골라의 경제수준(GDP)은 2015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국제 유가하락으로 인해 점점 하락하고 있다. 2017년에는 실질 GDP가 2.5%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듯 국제 유가의 큰 변화는 앙골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7년 기준 앙골라의 무역규모는 약 520억 달러인데 수출규모는 330억 달러, 수입규모는 190억 달러였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원유, 다이아몬드, 철광석, 구리, 금, 은, 커피 등이 있다. 앙골라 주요산업 구성 현황을 보면 석유, 광물 산업의 비중은 매우 높고, 그 외 산업에 대한 비중은 미미한 상태이다. 석유 및 다이아몬드는 앙골라 수출의 9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앙골라 정부는 석유 및 다이아몬드 산업을 2대 주요 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앙골라가 석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38%), 미국(14%), 인도(11%) 등으로 3개국 비중이 석유 수출규모의 60%를 넘는다.²⁰⁸⁾

내·외국인이 체감하는 앙골라 물가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산업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항상 많고, 이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앙골라의 생필품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는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²⁰⁹⁾

앙골라의 실업률은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지만, 앙골라 경제 특성상 실업률 상승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 앙골라 실업률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7%를 밑도는 수치를 보여줬다.²¹⁰⁾ 앙골라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침체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특히 가뭄현상, 농축산업의 위기, 전력부족으로 인한 공업생산성 감소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8)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2017), pp. 10~15.

209) 위의 자료, p. 22.

210) 위의 자료, p. 58.

앙골라 정부의 해외기업 투자정책 자체는 유연한 편이나 정책의 불투명성, 고위직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장애물이 많이 존재한다. 앙골라는 해외 기업과 자국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의 진출이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한다. 또한 현지인을 고용하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도 부여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적절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앙골라는 규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²¹¹⁾

한국 산업의 앙골라 진출 및 투자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 남아공과 이집트에 이어 3위 교역국이며, 양국간 교역은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포르투갈에 이어 앙골라의 제3위 수입국으로, 한국으로부터 주로 선박, 발전기, 승용차, 건설용 중장비, 기계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앙골라에는 대우조선, LG전자, 현대글로벌, 대동, 삼성의료설비 등 5개 지·상사와 22개 교민기업이 진출해 있다.²¹²⁾

표 4-12. 한국의 대앙골라 상위 5개 수출·수입 품목(2015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품목명	수출금액	수입품목명	수입금액
1	해양구조물	1,458	원유	91
2	철구조물	65	LPG	41
3	경유	43	동과 및 스크랩	7
4	기타 기계류부품	38	기타 어류	2
5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30	연과 및 스크랩	1

자료: KOTRA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11) 위의 자료, p. 108.

212) 위의 자료, p. 266.

한국의 대양골라 투자 누적 신고액은 4,800만 달러이며, 총 26건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출 기업들은 조선소, 석유시추시설 건설 및 운영, 회의장 건설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수산업과 무역업 위주의 인터볼고, 가발제조업의 AANCO사 등을 제외하고는 EDCF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 등의 현지법인이 주를 이룬다. 총 투자액 가운데 건설업이 70%, 제조업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 진출 한국 지·상사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최근 철수(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또는 감축(LG전자, 대우조선해양) 추세에 있다.²¹³⁾

농산물·가공식품은 현재 식량 순수입국이지만, 농업 개발을 위한 국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과 G7 각국에서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내전에 의해 침체되었던 수산 가공업은 최근 회복이 현저하다.²¹⁴⁾

또한 앙골라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 철광석, 구리, 코발트, 대리석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현재 대부분 채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원의 이용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카토카(Catoca) 고산지대의 금광 채굴에 정부와 러시아 은행의 대규모 투자계획 등이 있다. 섬유 분야에서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앙골라 정부에 의한 섬유 산업 업체를 위한 신용협정(모두 180억 엔)이 2건 체결되는 등 일본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²¹⁵⁾ 기타 유망 산업으로 비료·화학·제약, 건설·주택·건축자재, 목재·가구·종이 제품, 도소매 등을 들 수 있다.

213) 위의 자료, p. 147.

214) "Angola and IFAD to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boost food security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2020.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18).

215)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2017), pp. 221~223.

제5장



결론 및 함의



과연 아프리카 대륙 내 지역경제공동체 수립이 경제성장과 회원국 간의 소득 수렴(convergence)의 동력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무역 및 지역통합 추구 노력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아프리카 대륙 내 대표적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 역내교역이 역외교역에 비해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분산지수 분석을 통해 이들 네 가지 경제공동체 모두 역내 생산구조와 역내 수출구조가 전 세계 교역파트너 또는 역외 아프리카 국가와 비교했을 때보다 그 동질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의 동질화의 진척은 아프리카 내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불균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중력모형 분석결과는 향후 한국이 대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역 증대 방향을 제시한다. 가능한 한 아프리카 대륙 내 경제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들 간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별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가장 교역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수출과 수입 모두에 적극적이므로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와 무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무역에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경제정책의 성과를 중시하고 정부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장벽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지역통합의 수혜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입맛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이는 북북협정(North-North agreement)의 경우 수렴 효과로, 남남협정(South-South agreement)의 경우 회원국 간 분산(divergence) 효과로 이어진다는 경험적 분석과 일치한다.²¹⁶⁾ 세계 평균에

근접한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들은 극단에 위치한 국가들에 비해 지역경제공동체에서 더 잘 적응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개발 정도, 기관의 질, 금융 발달의 차이는 장단기적으로 선진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발전된 국가는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관세 해체(tariff dismantling)의 충격을 더욱 잘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의 숙련노동자는 더 많은 FDI를 유발하고, 지역통합으로 인한 자원 재배분에서 더욱 큰 이점을 갖게 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소득수렴(income convergence)에 미치는 경제통합의 영향은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결과는 이들 지역경제공동체의 개별적 특성(통합 형태, 비관세장벽, 정치 위기, 무역협정의 이행 정도 등) 및 개별국가의 특수성과 연관된다. 소득분산효과(income divergence effect)는 규모가 큰 지역경제공동체인 ECOWAS와 COMESA, SADC 등에서 더 급격하게 나타난다. 지역경제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회원국의 경제개발 정도가 제각각이며, 소득분산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는 풍부한 수자원, 삼림, 광물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많지만, 그 경제규모는 여전히 작은 국가들이 다수이다. 지역경제공동체 구성원 중 선도 무역파트너국가를 육성하여 역내무역을 강화하려는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경제공동체 내 주변 국가와 더불어 역내 지역의 물적 혹은 인적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내륙국가로의 운송체계를 현대화하며,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가 보유한 긍정적 효과를 기반으로 4개의 주요 지역경제공동체별로 주요 협력국가 2개국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8개국의 최근 정부정책과 산업 및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 산

216) Venable(1999), pp. 23-28.

업 및 투자 분야, 그리고 한국과의 교역 증대 가능 품목 등을 제시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OMESA 회원국 중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주요 국가와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이집트는 COMESA 회원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이집트는 정부의 다양한 경제개발정책과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미 33개사의 한국기업이 전자, 중공업, 섬유, 종합상사 등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향후 의료 및 의약품, 교육 IT, 수자원, 교통 부문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티오피아는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했으며 이 지역 국가 중 한국의 무상원조를 많이 받는 국가이다. 에티오피아는 2018년 들어서부터 연평균 경제성장률 7% 대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아프리카 국가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농업이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나,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 공공부문과 건설, 서비스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기술 기반 농업 발전을 위해 농기계 사용을 장려하고 현지 농부들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농기계와 관개 배수 장비, 사료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다. 따라서 농기계 수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기업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진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현지 회사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현지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다. 더욱이 에티오피아는 외환 부족, 매우 상이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리스크가 다소 큰 편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은 ODA 등과 연계하여 진출함으로써 비즈니스 리스크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EAC 회원국 중 케냐를 주요국으로 탄자니아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케냐는 EAC 회원국 중 한국과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동아프리카 내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어 이 지역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케냐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 및 계열사들이며, 주로 상사들이 많다. 케냐 정부는 교통, ICT, 관광, 금융 및 통신 등의 분야에 경쟁력 향상

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EAC 회원국 중 케냐 다음으로 한국과 교역규모가 큰 국가이며,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아 향후 경제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탄자니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최근 발견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석유산업 등 2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20년 한국과 탄자니아의 무역 총액은 약 2억 달러로 전년 1억 7,000만 달러에서 14% 증가했다. 수출액 기준 상위 5개의 수출품목은 의약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2020년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에너지 공급 확보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유지관리 역량이 열악한 탄자니아 현실에 필요한 산업 품목 지원,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이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ECOWAS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를 주요국으로, 가나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나이지리아는 ECOWAS 회원국 중 한국과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구성 중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큰 국가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동시에 지역 기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제 회복 및 성장 계획인 'ERGP(2017-2020)'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대형 인프라 구축 및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기업은 대규모 석유 가스 프로젝트 수출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밖에도 합성수지, 축전지, 기타 섬유제품, 철강재 용기, 열연강판 등이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한다.

가나는 ECOWAS 회원국 중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한국과 교역규모가 큰 국가이다. 가나는 서아프리카에서 정치 안정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주요 투자국으로 중국, 인도, 영국, 남아공, 호주 및 네덜란드 등이며, 향후 AfCFTA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며 투자 유

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가나 정부는 자동차 조립 및 부품 제조를 전략적 앵커 산업으로 선정하여 가나의 산업개발의 핵심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도 가나 정부와 현지 자동차 조립공장 2곳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자동차 조립 및 부품 제조 산업 관련 한국기업의 가나 진출이 크게 기대된다. 이 밖에도 가나 정부가 의료기기의 현지 독립 및 생산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한국기업도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ADC 회원국 중 남아공을 주요국으로 앙골라를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했다. 남아공은 SADC 회원국 중 한국과 교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다. 남아공의 교역 규모는 아프리카 전체 역내 수출의 35%, 수입의 17%를 차지할 정도로 아프리카 역내 무역 비중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아프리카 전체의 FDI 유입액 중 10.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아공에서는 이미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저성장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여전히 아프리카 내에서 둘째로 큰 경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선도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AfCFTA 공식 개시에 따른 교역 및 투자의 확대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공 정부는 최근 3,400억 랜드 규모의 에너지·수자원·교통·통신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개발해왔다. 이에 남아공 진출에 관심이 높은 한국기업들은 에너지, 수자원, 교통, 통신, ICT 인프라 분야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아공의 식품시장도 급격히 성장하는 부문이다. 남아공 진출로 아프리카 역내수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앙골라는 SADC 회원국 중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남아공 다음으로 큰 국가이다. 앙골라의 경제규모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공, 알제리, 모로코, 수단에 이어 일곱째이다. 석유 및 다이아몬드는 앙골라 전체 수출 중 90% 가까이 차지하는 만큼 앙골라 경제에서 석유, 광물 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매우 높다. 앙골라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다. 앙골라와는 남아공과 이집트에 이어 셋째로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앙골라의 대한민국 주요 수입품목은 선박, 발전기, 자동차(승용차), 건설용 중장비, 기계류 등이다. 앙골라에는 대우조선, LG전자, 현대글로벌, 대동, 삼성의료설비 등 5개 지·상사와 22개 교민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 기업들은 조선소, 석유시추 시설 건설과 기타 건설 및 운영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앙골라 시장 진출에 대한 기타 유망 산업으로 비료·화학·제약, 건설·주택·건축자재, 목재·가구·종이 제품, 도소매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배성일, 이은경, 이주현, 김형곤. 2011.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와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용역보고서.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수출입은행. 2021. 『세계국가편람』.
-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2017. 『앙골라』.
- 윤우진. 2015. 『한국과 주요 경제권의 국제 분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글로벌 가치 사슬 분석』. 산업연구원.
- 이재훈, 김경하, 김은경, 서상현. 2019.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세계지역전략연구 19-11.
- 정미성, 임해일, 신준열, 이승우, 서영상, 김재우, 조은범, 김영상, 이정훈, 문진욱, 정현철, 김수정. 2020.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공식 시행으로 기대되는 아프리카 시장변화』. KOTRA.
- KOTRA. 2018.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2』.

[일문자료]

- 片岡貞治. 2018. 『アフリカにおける地域統合 - 現状と課題 - 』. 日本国際問題研究所.
- 箭内彰子. 2017. 『アフリカにおける経済統合 - 制度的な制約要因 - 』. アフリカレポート(Africa Report).

[영문자료]

- Abrego, Lisandro, Maria Alejandra Amado, Tunc Gursay, Garth P. Nicholls, and Hector. Perez-Saiz. 2019.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Welfare Gain Estimates from a General Equilibrium Model." IMF Working Paper, No. 19/124.

- AfDB. 2014. "African Development Report: Regional Integration for Inclusive Growth." Abidjan: CCIA(Immeuble du Centre de commerce International d' Abidjan). (African Development Bank).
- . 2019. "West Africa Economic Outlook 2019."
- . 2020. "West Africa Regional Integrations Strategy Paper 2020-2025."
- Africa Union. 2020. *African Trade Statistics 2020 Yearbook*.
- Agba, Opue Job, and Ifeoma Stella Madueme. 2021.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ECOWAS) Controversy: With a Need for Single Currency by 2021?" *Asian Themes in Social Sciences Research*, 4(1).
- Amogne, Habtamu Shiferaw and Taiji Hagiwara. 2021. "Impact of Alternative Regional Trade Arrangements on the Ethiopian Economy." *Economic Structure*, 10(2).
- Arizala, Francisco, Jesus Gonzalez-Garcia, Charalambos G. Tsangarides, and Mustafa Yenice. 2017. "The Impact of Fiscal Consolidations on Growth in Sub-Saharan Africa." IMF Working Paper, No. 17/281.
- Azu, Nnanna P. and Maimuna Y. Muhammad. 2020. "Does political regime influence bilateral trade in West Africa?"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view*, 12(3).
- Balding, Christopher. 2011.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democrac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20(5).
- Banerji, Arup and Hafez Ghanem. 1997. "Does the Type of Political Regime Matter for Trade and Labor Market Polic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1(1).
- Bara, Alex and Pierre Le Roux. 2017. "South Africa's Financial Spillover Effects on Growth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ial Issues*, 7(5).
- Baxtar, Marianne and Michale A. Kouparitsas. 2003. "Trade Structure, Industrial Structure, and International Business Cycles." *The American Review*, 93(2).

- Blanton, Robert G. and Shannon Lindsey Blanton. 2001. "Democracy, human rights, and U.S.-Africa trade." *International Interactions*, 27(3).
- Calderon, Cesar, Alberto Chong, and Ernesto Stein. 2007. "Trade intensity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Are developing countries any differ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71(1).
- Carbaugh, J. 2011. *International Economics. Australia*. Thompson. 13th Edition.
- Cassim, Rashad. 2001. *The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rn African with Specific Reference to South Africa and the Rest of the Region*. University of Cape Town.
- Chingarande, Anna, Macleans Mzumara, and Roseline Karambakuwa. 2013. "Comparative advantage and economic performance of East African Community(EAC) member states." *Journal of Economics*, 4(1).
- COMESA. 2017. "COMESA Industrialization Strategy 2017-2026."
———. 2019. *Annual Report 2019*.
- Diao, Xinshen, Kenneth Harttgen, and Margaret McMillan. 2017. "The Changing Structure of Africa's Economie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31(2).
- EABC Brief on EAC Gazette. 2020. "EAC Partner States Adopt Import Duty Measures to Boost Local Production Amidst COVID-19 Pandemic."
- EAC. n.d. "East African Community Industrialisation Policy 2012-2032."
———. 2019. "EAC Trade and Investment Report 2019."
———. 2020. "EAC Development Strategy(2016/17-2020/21)."
- EAC Secretariat. 2014. "Single customs territory procedures and manual." EAC IRC Repository.
-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1995. "Report on National Strategy for Rational Location of Industries in the Context of the Abuja Treaty." 12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African Ministers of Industry: Gaborone.
- ECOWAS. 2010. "West african common industrial policy(WACIP)."

- EU. 2020. "Action Document for the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COMESA)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me."
- Ezekwesili, Chinweuba. E. 2011. "Can the monetary integration of ECOWAS improve intra-regional trade?" *CMC Senior Theses*.
- Fankem, Gislain Stéphane Gandjon. 2018. Régime politique et commerce international en Afrique centrale Revue économie du développement. 번역: Cadenza Academic Translations. 2018. "Political regime and international trade in Central Africa."
- Frazer, G. 2012. "The EAC Common External Tariff(CET) and Rwanda." International Growth Centre(IGC) Working Paper.
- Hailu, M. B.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Africa: Challenges and Prospects." *Mizan Law Review*, 8(2).
- Harding, Don and Adrian Pagan. 2002. "Dissecting the cycle: a methodolog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9.
- IMF. 2019.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Recovery Amid Elevated Uncertainty." Washington, DC: IMF.
- . 2021.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 Saharan Africa." (October)
- Inklaar, Robert, Richard Jong-A-Pin, and Jakob De Haan. 2008. "Trade and business cycle synchronization in OECD countries—A re-examina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52(4).
- International Trade Center(ITC). 2015. "Textile & Clothing Value Chain Roadmap of Ethiopia 2016-2020."
- Kabundi, Alain, and Elsabé Loots. 2007. "Co-movement between South Africa and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n empirical analysis." *Economic Modelling*, 24(5).
- Kagume, Matilda. 2013. *Investigation of Factors Inhibiting Growth of BPO Companies in Kenya*.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Spring)
- Makochehanwa, Albert. 2012. "Impa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rade in agrifood products: Evidence from Eastern and Southern Africa." African Economic Conference 2012 AfDB.
- Mansfield, Edward D., Helen V. Milner, and B. Peter Rosendorff. 2000. "Free to Trade: Democracies, Autocracies, and International

- Tra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2).
- Milner, Helen V., and Keiko Kubota. 2005. “Why the Move to Free Trade? Democracy and Trade Polic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9(1).
- Ncube, Mthuli, Zuzana Brixiova, and Qingwei Meng. 2014. “Can intra-regional trade act as a global shock absorber in Africa?” William Davidson Institute Working Paper, No. 1073.
-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OAU). 1991. “Treaty Establishing the African Economic Community.” (June 3)
- Olayiwola, Wumi. 2020. “Governing the Interface between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nd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Free Trade Areas: Issu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November 2)
- Peter-Berries, C. 2010, *Regional Integration in Southern Africa - A Guidebook*. Bonn: INWENT.
- SADC. 2015. “SADC Industrialization Strategy and Roadmap 2015-2063.”
- . 2020a. “SADC selected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2019.”
- . 2020b. “SADC Regional Indicative Strategic Development Plan (RISDP) 2020-2030.”
- . 2020c. “SADC Selected Economic and Social Indicators 2019.”
- SADC SECRETARIAT. 2019. “Status of Integration in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pril)
- Shepherd, Ben, Jaime de Melo, J., and Ritwika Sen. 2017. “Reform of the EAC Common External Tariff: Evidence from Trade Costs.” International Growth Centre(IGC) Policy Paper.
- Tanyanyiwa, Vincent Itai and Constance Hakuna. 2014.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The Case of SADC.” *IOSR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9(12).
- . 2019. “Key Statistics and Trends in Regional Trade in Africa.”
- . 2020. “Services Policy Review-ECOWAS.”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UNECA). 2020. “Identifying Priority Products and Value Chains for Standards Harmonization in Africa.”

- UNU-WIDER and UONGOZI Institute. 2020. "Impact of a Single Customs Territory in the East African Community on Tanzanian's export."
- Venable, A. 1999. "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s: a force for convergence or diverge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Paper.
- World Bank. 2020.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 . 2021.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언론/보도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 「2020년 남아공 경제전망」. 보도자료. (3월 12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579>(검색일: 2021. 8. 20).
- . 2020. 「2021년 나이지리아 경제 전망」. 보도자료. (11월 16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5784>(검색일: 2021. 8. 10).
- . 2020. 「동아프리카 케냐,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주목 받는 시장」. 기고. (11월 16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5890>(검색일: 2021. 8. 16).
- . 2020.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이해와 투자진출 방향」. 기고. (6월 10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2461>(검색일: 2021. 8. 25).
- . 2021. 「20/21년 이집트 정부예산으로 살펴본 유망진출 분야」. 보도자료. (4월 2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729>(검색일: 2021. 8. 20).
- . 2021. 「2021년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보도자료. (6월 14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9097>(검색일: 2021. 8. 30).
- . 2021. 「2021년 에티오피아 산업개관」. 보도자료. (9월 7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90662>(검색일: 2021. 9. 10).

- _____. 2021. 「2021년 이집트 경제 개황」. 보도자료. (3월 2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139>(검색일: 2021. 8. 15).
- _____. 2021. 「가나 산업 개관」. 보도자료. (6월 24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89277>(검색일: 2021. 8. 23).
- _____. 2021. 「남아공, 2021년 국정연설 및 예산안 발표」. 보도자료. (3월 4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7392>(검색일: 2021. 8. 20).
- _____. 2021. 「남아공으로 한국 식품 수출하기」. 보도자료. (6월 14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89096>(검색일: 2021. 8. 20).
- _____. 2021.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가나 투자 진출 전략」. 보도자료. (7월 7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9392>(검색일: 2021. 8. 25).
- _____. 2021. 「에티오피아 농기계 산업 정보」. 보도자료. (4월 8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4/globalBbsDataView.do?setIdx=403&dataIdx=187971>(검색일: 2021. 8. 25).
- _____. 2021. 「탄자니아, 2021년 경제 전망」. 보도자료. (1월 21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6879>(검색일: 2021. 8. 18).
- _____. 2021. 「태양열을 전기에너지로, 탄자니아 태양광 시장 전망은?」. 보도자료. (3월 12일). https://overseas.mofa.go.kr/ao-ko/brd/m_10323/view.do?seq=1345858(검색일: 2021. 8. 18).
- _____. 2021. 「통계로 살펴보는 가나 무역현황」. 보도자료. (1월 18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2622>(검색일: 2021. 8. 25).
- _____. 2021. 「한-나이지리아 무역동향」. 보도자료. (7월 28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9999>(검색일: 2021. 8. 23).
- _____. 2021. 「한-케냐 디지털미디어시티 협력 3년, 그 성과와 기회는?」. 보도자료. (8월 2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90072>(검색일: 2021. 8. 16).

- _____. 2021. 「현지 전문가 인터뷰로 알아보는 AfCFTA가 케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보도자료. (3월 17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87478>(검색일: 2021. 8. 16).
- “A New Statistics Strategy for COMESA is in the Works.” 2020. *Kwacha Magazine*. (October 12). <https://kwachamagazinezambia.com/a-new-statistics-strategy-for-comesa-is-in-the-works/>(검색일: 2021. 5. 7).
-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negotiations: WHO is negotiating with WHOM?” 2020. *Tralac*. (June 26). <https://www.tralac.org/resources/infographic/14695-african-continental-free-trade-area-negotiations-who-is-negotiating-with-whom-sacu-and-the-eac.html>(검색일: 2021. 5. 7).
- “Angola and IFAD to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and boost food security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2020. *IFAD*. (July 15). <http://www.ifad.org/en/web/latest/-/news/angola-and-ifad-to-promote-sustainable-agriculture-and-boost-food-security-in-the-face-of-climate-change#:~:text=null-,Angola%20and%20IFAD%20to%20promote%20sustainable%20agriculture%20and%20boost%20food,the%20face%20of%20climate%20change&text=In%20Angola%2C%2050%20per%20cent,cent%20to%20the%20country's%20GDP>(검색일: 2021. 5. 18).
- “COMESA’s New Plan for the Next Five Years.” 2020. COMESA. (September 17). <https://www.comesa.int/comesas-new-plan-for-the-next-five-years/>(검색일: 2021. 5. 7).
- “Intra-SADC FTA trade and SADC FTA trade with the rest of Africa 2019.” 2020. *Tralac*. (November 24). <https://www.tralac.org/blog/article/15016-intra-sadc-fta-trade-and-sadc-fta-trade-with-the-rest-of-africa-2019.html>(검색일: 2021. 5. 7).
- “New Deadline set for Ratification of Tripartite Free Trade Area.” 2021. COMESA. (February 20). <https://www.comesa.int/new-deadline-set-for-ratification-of-tripartite-free-trade-area/>(검색일: 2021. 5. 7).
- “SADC discusses Vision 2050, RISDP 2020-30.” 2020. *Tralac*. (August 17). <https://www.tralac.org/news/article/14852-sadc-discusses-vision>

- n-2050-risdip-2020-30.html(검색일: 2021. 5. 7).
- “West African Nations Rename Common Currency, Sever its Links to France.” 2019. *VOA*. (December 21). <https://www.voanews.com/africa/west-african-nations-rename-common-currency-sever-its-links-france>(검색일: 2021. 5. 18).
- “West African regional bloc adopts new plan to launch Eco single currency.” 2021. *France24*. (June 19). <https://www.france24.com/en/africa/20210619-west-african-regional-bloc-adopts-new-plan-to-launch-eco-single-currency-in-2027>(검색일: 2021. 6. 24).

[온라인 자료, DB 자료]

- 대외정책연구원. [이슈 트렌드] 「나이지리아,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회복 전망 부정적」.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15858&mid=a10200000000&systemcode=05>(검색일: 2021. 8. 22).
-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주간 앙골라 주요 동향(8.17~8.21). https://overseas.mofa.go.kr/ao-ko/brd/m_10323/view.do?seq=1345858(검색일: 2021. 5. 7).
- 주탄자니아대한민국대사관. 동아프리카공동체 단일통화 도입논의 동향. https://overseas.mofa.go.kr/tz-ko/brd/m_10712/view.do?seq=1039104&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검색일: 2021. 5. 7).
-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통계.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검색일: 2021. 9. 12).
- KOTRA. 「지역무역체결협정현황」. <https://news.kotra.or.kr/user/extra/mkotranews/nationInfo/nationItemMovileView/jsp/Page.do?cdKey=101107&categoryIdx=70>(검색일: 2021. 5. 7).
- 經濟産業省. 2017. 「内外一体の經濟成長戰略構築にかかる 國際經濟調査事業(アフリカ地域共同体經濟連携等基礎調査)」.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6fy/000533.pdf(검색일: 2021. 5. 4).
-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https://dataportal.opendataforafrica.org/bbkawjf/afdb-socio-economic-database-1960-2019>(검색일:

- 2021 5. 10).
- Africa Union. “The Schedules of Tariff Concessions.” <https://afcfta.au.int/en/schedules-tariff-concessions>(검색일: 2021. 8. 30).
- CEPII. 2021. “Gravity.” http://www.cepii.fr/CEPII/en/bdd_modele/presentation.asp?id=8(검색일: 2021. 5. 25).
- COMAID. “The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Mechanism(RISM).” <https://comaid.comesa.int/regional-integration-support-mechanism/>(검색일: 2021. 6. 1).
- COMESA. “What is COMESA.” <https://www.comesa.int/what-is-comesa/>(검색일: 2021. 5. 4).
- . “Programmes - COMESA POLICY FOR IMMIGRATION.” <https://www3.nd.edu/~ggoertz/rei/reidevon.dtBase2/Files.noindex/pdf/f/comesa-policy-for-immigration-.pdf>(검색일: 2021. 4. 26).
- EAC. 2014. “East African Common Market Scorecard.” World Bank Document. <https://www.wbginvestmentclimate.org/publications/eac-market-scorecard-2014.cfm>(검색일: 2021. 6. 1).
- . 2018. “PROTOCOL ON THE ESTABLISHMENT OF THE EAST AFRICAN COMMUNITY.”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VeaNp07i8B0J:meac.go.ke/wp-content/uploads/2018/09/EAC-Monetary-Union-Protocol.pdf+&cd=4&hl=ko&ct=clnk&gl=kr>(검색일: 2021. 5. 4).
- . <https://www.eac.int/>(검색일: 2021. 4. 30).
- . “Single Customs Territory.” <https://www.eac.int/customs/single-customs-territory>(검색일: 2021. 4. 30).
- . “Common Market.” <https://www.eac.int/common-market>(검색일: 2021. 5. 10).
- ECOWAS. <https://www.ecowas.int/>(검색일: 2021. 5. 10).
- ECOWAS Commission. 2014. “Regional Strategic Plan 2011-2015: A proactive Mechanism for change.” <https://invenio.unidep.org/invenio/record/19247?ln=en>(검색일: 2021. 6. 5).
- Eurostat. 2018.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21. 4. 28).
- JERTO, 「アフリカ大陸自由貿易圏AfCFTA) 設立協定が発効、運用開始に向けて前進」.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special/2019/0702/>

- 3851ca2c1b66321d.html(검색일: 2021. 10. 10).
- JICA. “Focus on African Development(TICAD V) - One Stop Border Post.”
https://www.jica.go.jp/english/news/focus_on/ticad_v/articles/article15.html.(검색일: 2021. 6. 1).
- SADC. <https://www.sadc.int/>(검색일: 2021. 5. 15).
- . “History and Treaty.” <https://www.sadc.int/about-sadc/overview/history-and-treaty/>(검색일: 2021. 5. 15).
- SARS. “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APDP).”
<https://www.sars.gov.za/customs-and-excise/registration-licensing-and-accreditation/automotive-production-and-development-programme-apdp/>(검색일: 2021. 5. 20).
- South African Government. “Clothing and Textile Competitiveness Programme(CTCP).” <https://www.gov.za/services/business-incentives/clothing-and-textile-competitiveness-programme-ctcp/>(검색일: 2021. 5. 14).
- TMEA. “TMEA in EAC.” <https://www.trademarka.com/>(검색일: 2021. 8. 20).
- USAID. “USAID Southern Africa Trade and Investment Hub.” <https://www.satihub.com/>(검색일: 2021. 6. 1).
- UN Comtrade. 2016. <https://comtrade.un.org/data/>(검색일: 2021. 4. 23~4. 28).
- UNCTAD. 2020.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tableView.aspx>(검색일: 2021. 5. 12).



부록



부록 표 1.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국가별 투자 현황*

순위	국가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천 달러)
1	남아공	78	325,547
2	이집트	54	394,372
3	알제리	53	273,217
4	리비아	50	362,736
5	나이지리아	45	303,009
6	모로코	38	165,073
7	가나	45	136,754
8	케냐	31	10,452
9	탄자니아	31	7,989
10	에티오피아	21	48,254
11	콩고민주공화국	21	10,550
12	앙골라	17	87,540
13	세네갈	16	12,529
14	코트디부아르	14	60,999
15	모리셔스	13	126,945
16	라이베리아	13	24,381
17	마다가스카르	12	2,506,691
18	르완다	12	12,395
19	우간다	12	8,416
20	카메룬	11	5,697
21	기니	11	1,702
22	잠비아	11	1,645
23	수단	10	149,444
24	튀니지	9	3,753
25	모잠비크	8	42,962
26	콩고공화국	8	5,103
27	짐바브웨	6	4,085
2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5	1,081
29	적도기니	4	129,573
30	에스와티니	4	1,439
31	말리	3	5,760
32	나미비아	3	676

부록 표 1. 계속

순위	국가	신규 법인 수	투자금액(천 달러)
33	시에라리온	3	644
34	세이셸	3	258
35	가봉	2	9,089
36	보츠와나	2	66
37	베냉	1	27,398
38	모리타니아	1	5,000
39	부룬디	1	760
40	차드	1	663
41	토고	1	600
42	지부티	1	264
43	기니비사우	1	69
44	니제르	1	4
45	부르키나파소	0	-
46	카보베르데	0	-
47	코모로	0	-
48	에리트레아	0	-
49	감비아	0	-
50	레소토	0	-
51	말라위	0	-
52	상투메프린시페	0	-
53	소말리아	-	-
54	남수단	-	-

주: * 2020년 6월 말 누계.

자료: 수출입은행(2021).

부록 표 2.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국가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수출금액	수입금액	교역량	무역수지
1	라이베리아	1731.00	12.33	1743.33	1718.67
2	이집트	1242.67	308.67	1551.33	934.00
3	토고	787.67	38.00	825.67	749.67
4	남아공	696.33	1714.33	2410.67	-1018.00
5	나이지리아	604.33	688.00	1292.33	-83.67
6	리비아	408.33	84.00	492.33	324.33
7	알제리	355.00	1213.67	1568.67	-858.67
8	모로코	259.00	151.67	410.67	107.33
9	가나	196.67	33.00	229.67	163.67
10	케냐	168.33	36.00	204.33	132.33
11	튀니지	162.67	67.67	230.33	95.00
12	탄자니아	135.33	35.00	170.33	100.33
13	앙골라	128.33	76.33	204.67	52.00
14	수단	127.67	24.00	151.67	103.67
15	코트디부아르	116.00	5.67	121.67	110.33
16	에티오피아	94.67	54.67	149.33	40.00
17	세네갈	74.33	38.00	112.33	36.33
18	모잠비크	65.67	134.00	199.67	-68.33
19	카메룬	46.00	55.67	101.67	-9.67
20	지부티	41.33	4.67	46.00	36.67
21	콩고민주공화국	40.00	461.33	501.33	-421.33
22	모리셔스	32.33	6.33	38.67	26.00
23	기니	30.67	58.00	88.67	-27.33
24	부르키나파소	30.00	3.00	33.00	27.00
25	마다가스카르	27.33	59.67	87.00	-32.33
26	우간다	22.33	5.00	27.33	17.33
27	말리	22.00	2.33	24.33	19.67
28	콩고	21.33	91.33	112.67	-70.00
29	베냉	18.67	5.00	23.67	13.67
30	잠비아	17.67	43.67	61.33	-26.00
31	소말리아	17.67	3.33	21.00	14.33
32	짐바브웨	14.00	10.67	24.67	3.33

부록 표 2. 계속

순위	국가	수출금액	수입금액	교역량	무역수지
33	르완다	13.67	2.00	15.67	11.67
34	세이셸	13.00	5.33	18.33	7.67
35	말라위	9.33	14.00	23.33	-4.67
36	가봉	8.67	207.67	216.33	-199.00
37	시에라리온	8.00	14.00	22.00	-6.00
38	나미비아	7.33	35.67	43.00	-28.33
39	보츠와나	7.00	0.67	7.67	6.33
40	적도기니	6.33	176.67	183.00	-170.33
41	니제르	4.67	19.67	24.33	-15.00
42	감비아	2.67	4.00	6.67	-1.33
43	카보베르데	2.33	0.00	2.33	2.33
44	에스와티니	1.67	9.33	11.00	-7.67
45	부룬디	1.33	0.00	1.33	1.33
4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33	0.00	1.33	1.33
47	차드	1.00	0.00	1.00	1.00
48	에리트레아	0.67	78.33	79.00	-77.67
49	레소토	0.67	0.00	0.67	0.67
50	남수단	0.67	0.00	0.67	0.67
51	상투메프린시페	0.67	0.00	0.67	0.67
52	기니비사우	0.33	2.00	2.33	-1.67
53	코모로	0.33	0.00	0.33	0.33
54	모리타니아	-	-	-	-

주: * 2019~21년 7월까지 평균.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통계(검색일: 2021. 9. 12).

부록 표 3. 아프리카 역내 주요 수입국 현황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합계	61,986	100	74,732.4	100	70,432.7	100
1	남아프리카 공화국	8,485.00	13.7	11,446.60	15.3	10,149.00	14.4
2	나미비아	4,276.30	6.9	5,837.30	7.8	5,132.50	7.3
3	보츠와나	3,918.10	6.3	4,214.50	5.6	4,579.20	6.5
4	나이지리아	1,132.80	1.8	1,526.30	2	3,572.40	5.1
5	잠비아	4,353.90	7	4,980.50	6.7	3,340.90	4.7
6	코트디부아르	1,956.80	3.2	2,516.70	3.4	2,427.60	3.4
7	모잠비크	1,832.50	3	2,130.60	2.9	2,354.60	3.3
8	짐바브웨	2,544.80	4.1	3,230.20	4.3	2,298.90	3.3
9	말리	1,843.20	3	2,146.40	2.9	2,257.10	3.2
10	케냐	1,933.80	3.1	2,030.60	2.7	2,240.90	3.2
11	튀니지	1,325.80	2.1	1,595.90	2.1	2,142.40	3
12	이집트	1,858.70	3	2,203.50	2.9	2,074.20	2.9
13	우간다	945.7	1.5	1,387.90	1.9	2,041.30	2.9
14	베냉	1,610.70	2.6	1,946.80	2.6	1,979.80	2.8
15	모로코	1,556.90	2.5	2,010.00	2.7	1,858.50	2.6
16	콩고민주 공화국	1,104.80	1.8	1,611.30	2.2	1,638.40	2.3
17	가봉	934.9	1.5	1,199.40	1.6	1,199.40	1.7
18	카메룬	1,075.10	1.7	1,172.30	1.6	1,172.30	1.7
19	레소토	0.1	0	403.4	0.5	1,143.80	1.6
20	앙골라	1,612.10	2.6	1,850.70	2.5	1,098.00	1.6
21	알제리	1,203.20	1.9	1,213.00	1.6	1,097.90	1.6
22	부르키나파소	1,013.00	1.6	1,162.30	1.6	1,089.80	1.5
23	가나	1,184.10	1.9	1,241.30	1.7	1,078.30	1.5

자료: Africa Union(2020), p. 35.

부록 표 4. 아프리카 역내 주요 수출국 현황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백만 달러	%
	합계	84,083.2	100	98,565.5	100	91,819.7	100
1	남아프리카 공화국	28,857.70	34.3	31,027.70	31.5	28,812.40	31.4
2	나이지리아	5,317.50	6.3	7,619.70	7.7	12,801.00	13.9
3	콩고민주 공화국	7,723.60	9.2	12,577.50	12.8	6,698.30	7.3
4	이집트	3,716.00	4.4	4,735.70	4.8	4,733.20	5.2
5	가나	2,064.50	2.5	2,548.20	2.6	2,947.60	3.2
6	코트디부아르	2,895.10	3.4	2,852.00	2.9	2,862.20	3.1
7	짐바브웨	2,664.00	3.2	2,607.80	2.6	2,633.90	2.9
8	나미비아	2,199.60	2.6	2,407.30	2.4	2,386.10	2.6
9	세네갈	1,282.80	1.5	1,491.20	1.5	2,382.50	2.6
10	모로코	2,204.10	2.6	2,234.70	2.3	2,203.10	2.4
11	케냐	1,949.60	2.3	1,968.30	2	2,170.60	2.4
12	탄자니아	1,380.30	1.6	2,496.10	2.5	2,061.80	2.2
13	알제리	1,850.20	2.2	2,197.70	2.2	1,883.60	2.1
14	잠비아	1,488.00	1.8	1,813.90	1.8	1,681.60	1.8
15	말리	1,150.40	1.4	1,748.90	1.8	1,626.60	1.8
16	튀니지	1,456.70	1.7	1,615.90	1.6	1,595.50	1.7
17	우간다	1,504.30	1.8	1,600.20	1.6	1,341.50	1.5
18	가봉	1,150.00	1.4	1,322.10	1.3	1,322.10	1.4
19	모잠비크	989	1.2	1,021.80	1	1,096.80	1.2
20	보츠와나	813.8	1	892.6	0.9	747.6	0.8
21	토고	598	0.7	718.2	0.7	740.7	0.8
22	앙골라	1,713.50	2	1,841.20	1.9	722.6	0.8

자료: Africa Union(2020), p. 36.

Trade Environments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the RECs in Sub-Saharan Africa and South Korea's Cooperation Plans

Wonbin Cho, Kyung-Ha Kim, Eun Kyung Kim, Hyeon Seok Park, Sang-Hyun Seo,
Hong Eun Park, and Eseul Choi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 in Africa, focusing on industrial and trade environments, and to find out strategies and cooperation plans for South Korea to enter into the African emerging market.

Do the African RECs work as a driving force for the economic growth of African countries and income convergence among member states in the region? Also, would RECs' efforts to pursue regional integration make African countries catch up with developed countries? In response to these questions, our result shows that intra-trade is practically active compared to offshore trade in the case of COMESA, EAC, ECOWAS, and SADC. Regarding this, the Dispersion Index analysis confirmed that all those 4 RECs member countries have a higher level of homogeneity with production and export structure in trade among member countries than with non-member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such progress in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homogenization among member states could help the economic growth of the African continent and resolve regional income disparit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gravity model suggest a direction for the trading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increase trade with African

countries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rade relations, focusing on countries with as large an economy as possible within the African RECs. Since trade among member states within each REC is actively taking place,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the cooperation with countries with large trade volumes and power to a spillover effect. Second, South Korea needs to expand trade relations with African countries that have high levels of democracy. The result of the gravity model empirically shows that African countries with relatively higher levels of democracy tend to be more active in international trade engagement. This finding seems because, with higher levels of democracy, the country tends to be more concerned with economic policy outcomes and relatively have a higher government quality. Although most African countries have small economies, some have rich natural resources such as water, forest, mineral, and oil. So, RECs is pursuing a development strategy to enhance intra-trade by fostering leading trade partner countries. Moreover, they have an effort to promote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by achieving strategic outcomes like expanding regional infrastructure, modernizing transportation systems head to landlocked countri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sources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suggests ideas for Korea-Africa cooperation and the Africa expansion strategy of Korea through RECs as the central axi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romoting trade in the African continent. We selected two major cooperation partner countries (one for a significant cooperation partner country and one for a country with high potential) each for the four RECs and analyzed the selected eight countrie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industry and trade structure. Based on the analysis, we presented the industrial and investment sectors that would cooperate and specific items to increase trade with South Korea. We selected the following eight countries. The former is, in each RECs, a

significant cooperation partner country, and the latter is a country with high potential. 1) Egypt and Ethiopia in COMESA; 2) Kenya and Tanzania in EAC; 3) Nigeria and Ghana in ECOWAS; 4) South Africa and Angola in SADC.

Recently, the role of the RECs has been growing in terms of regional inte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African continent. In particular,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which is evaluated as the largest free trade area of the world, officially opened on 1 January 2021, African countries' trade and investment with other African countries and with international economies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ncrease. In turn, South Korea needs to develop a new and effective trade strategy toward Africa. As the movement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AfCFTA opening is about to be more active,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develop a multilateral cooperation model based on the critical role of African RECs.

〈책임〉

조원빈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치학 박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국회미래연구원 방문연구원

미국 켄터키대학교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現, E-mail: chowonbin@skku.edu)

저서 및 논문

「중국의 대 케냐 FDI 와 케냐인들의 인식」(2020)

「박정희의 민주주의관과 유신체제 정당화」(공저, 2021) 외

〈공동〉

김경하

영국 SOAS 경제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초빙연구원

(現, E-mail: kh_kim@hufs.ac.kr)

저서 및 논문

“The role of mobile money in improving the financial inclusion of Nairobi’s urban Poor”(2020)

“Assessing the impact of mobile money on improving the financial inclusion of Nairobi women”(2021) 외

김은경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A. 정치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조교수

(現, E-mail: liprib612@gmail.com)

저서 및 논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공저, 2019)

“Economic signals of ethnicity and voting in Africa: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agricultural subsectors and ethnicity in Kenya”(2020) 외

박현석

미국 The University of Iowa 정치학 박사
카이스트 조교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現, E-mail: hyeonseok.park@gmail.com)

저서 및 논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적 결과: 헝가리, 루마니아의 선거제도 연구」(공저, 2019)
「수직적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비교 분석」(2020) 외

서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와힐리어과 졸업 및 동대학 정치학과 석사
남아공 University of South Africa 정치학 박사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現, E-mail: shseo1@hanmail.net)

저서 및 논문

「아프리카의 지역통합과 지역별 개발의제」(2011)
「정치적 부패가 공적개발원조 (ODA) 및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 유입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 사례 분석」(2016) 외

박홍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박사수료
(現, E-mail: hongp0609@naver.com)

저서 및 논문

“How the Mekong River Commission can mitigate collective action problems: in the case of the Xayaburi Dam”(2013)

최이슬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수료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 주임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
(現, E-mail: lclsq@naver.com)

저서 및 논문

「DAC 5대 공여국의 대아프리카 원조 배분 결정요인 분석, 1960-2013: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2016)
「속삭이다, 평화」(공저, 2020) 외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 | |
|---------|--|
| ■ 2021년 | <p>21-01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 이승호·강문수</p> <p>21-02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 정인교·조정란·문남권·김찬우·김건영</p> <p>21-0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방안 / 조원빈·김경하·김은경·박현석·서상현·박홍은·최이슬</p> |
| ■ 2020년 | <p>20-01 미·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홍성우·윤여준·김진오·임지운·남지민</p> <p>20-02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정곤·이정미·윤지현</p> <p>20-03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연구 / 강택구·이상윤·심창섭·장훈·이정석</p> <p>20-04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 김종섭·이승호·이준희·김민정·김세원·김희라</p> <p>20-05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이충열·이종하·이선호·강성범</p> <p>20-06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전제성·정연식·정범모·김희숙·백용훈·박희철·김다혜·김현정</p> <p>20-07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 이훈기·김희경·이현정·정승환</p> <p>20-08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 장윤희·손성현·유광호</p> <p>20-09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 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 장영신·강구상·나승권·김제국·최재필·김수련</p> |

- 20-10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 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 라미령·박나연·정민지·이효진·문수현·정재욱
- 20-11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 강문수·정민지·문수현·박규태
- 20-1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 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장용규·김경하·배유진·조준화·최두영
- 20-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 최영출·김태성·권유경
- 20-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 최금좌·오삼교·설규상·최윤국
- 20-15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 최진우·김새미·김지윤·모춘홍·서지원·진달용·한준성

■ 2019년

- 19-01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 류한별·윤지현·송영철
- 19-02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정재욱·유광호·김상훈
- 19-0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 김정곤·이재호·김도연·신민아·김제국
- 19-04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 정경원·하상섭·장수환·장유운
- 19-05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 김태윤·안동환·지성태·윤태연·Phumsith Mahasuweerachai·이용은·김범석·김나리
- 19-06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정재욱·정민지
- 19-07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하·김은경·윤지소·김정수·박윤정·장영은
- 19-0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 김영석·권기수·강정원·김유경
- 19-09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 문진영·한형민·류한별·박나연·윤지현·김미림·오윤아

- 19-10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
허장·전형진·김상현·이효정·이병훈·이대섭·이수환·최정만
- 19-1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이재훈·김경하·김은경·서상현
- 19-1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
문무경·구자연·김혜진·Nguyen Thi My Trinh·
Nguyen Thi Lan Phuong
- 19-13 한-인도 항공·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
김봉훈·박정웅·유나래·권혁민
- 19-14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
정재욱·손성현·장윤희·유광호·정준환·이소영·이승문
- 19-15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호·정민지·문수현·김예진·최영출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Trade Environments and Industrial Structures of the RECs in Sub-Saharan Africa and South Korea's Cooperation Plans

Wonbin Cho, Kyung-Ha Kim, Eun Kyung Kim, Hyeon Seok Park, Sang-Hyun Seo, Hong Eun Park, and Eseul Choi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 현황을 '산업 및 통상환경' 중심으로 분석하여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한국의 진출전략 및 협력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21년 AfCFTA 공식 개시와 함께 지역경제 통합노력이 활발해진 만큼, 대륙 내 지역경제공동체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아프리카 주요 지역경제공동체인 COMESA, EAC, ECOWAS, SADC 모두에서 역내 교역이 역외 교역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한국은 교역 규모가 크고 주변국으로의 확산 효과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개별 지역경제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산업의 최근 동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한 · 아프리카 간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